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81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3월 16일)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봉축탑 밝힌 광화문…"마음의 평화 찾자"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는 4월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불기 2568년 봉축점등식을 봉행했다. 점등식에는 봉축위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주요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각 단체장들, 시민과 불자 2000여 명이 참석해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웠다. 외국인과 청년들로 이뤄진 연등회서포터즈의 봉축율동을 사전공연으로 문을 연 점등식을 장엄한 건 신라시대 황룡사 9층목탑등(燈)이다. 자장 율사의 요청으로 지었다가 몽골의 침입 때 불타 사라진 성보를 현대에 계승하는 의미를 담았다. 사진은 축포와 함께 이뤄진 봉축탑 점등 모습. **글=윤호섭 기자, 사진=조계종 홍보국**

K-불교 모든 것 담았다 '한국불교문화포털' 오픈

조계종 · 동국대 불교학술원 추진
'한국불교 등재유산' '불교용어' 등 9개 코너에서 6000개 항목 구성
'지리정보기반 콘텐츠' 제공 시도
다양한 콘텐츠 복합 연계 '눈길'


한국불교문화포털 첫 화면.

디지털 시대에 맞춰 한국불교문화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플랫폼이 탄생했다. 한국불교 등재유산, 불교민속의례, 전통수행, 디지털 사지(寺誌), 고승아카이브, 기록문화, 영역불서, 오디오경전, 불교용어 등 9개 코너에서 6천여 개 항목으로 불교문화유산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K-Buddhism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사업단(단장 김종욱 동국대 교수, 이하 사업단)은 4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불교문화포털'(buddhaland.dongguk.edu)을 공개했다.

한국불교문화포털은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 스님)과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이 추진한 사업 결과물이다. 한국불교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수집 분류 제작, 플랫폼으로 통합 정리한 것으로 한국전통불교(K-Buddhism)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202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받아 구축한 문화포털사이트로 한국불교와 관련된 수많은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탑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지리정보기반 콘텐츠 제공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추진해 눈길을 끈다. 포털 메인에 탑재된 지도에 개별 콘텐츠가 제공됨으로써 직관적으로 지역별 분포를 볼 수 있고, 해당 장소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선택해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여러 테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시도됐다.

한국불교문화포털은 '한국불교 등재유산' '불교민속의례' '전통수행' '디지털 사지(寺誌)' '고승아카이브' '기록문화' '영역불서' '오디오경전' '불교용어' 등 9개 코너에, 총 27개 테마, 600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의 정수들을 망라해 대중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콘텐츠가 만들어졌다"면서 "종단 홈페이지 등과 연계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불교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향후 활용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은 "한국불교문화포털은 한국불교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종단과 대학이 힘을 합쳐 좋은 성과물로 회향하는 훌륭한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K-Buddhism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는 5개년 사업이다. 1·2년차에서는 다양한 불교문화를 탑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추후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작돼 공개됐다가 유지되지 못하고 사장된 여러 콘텐츠를 발굴, 탑재해 지속 가능성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업단장 김종욱 교수는 "그동안 많은 불교문화와 관련된 콘텐츠가 국고 또는 종단의 지원을 통해 진행되고 훌륭한 성과를 냈지만,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사장된 사례가 많다"면서 "한국불교문화포털은 단순히 사업단에서 콘텐츠를 생산해 탑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많은 기존 성과물을 발굴해 재생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과거 반복되던 예산의 중복집행 논란과 성과확산의 미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부처님 진신사리, 100년 만에 돌아오다

조계종, 美보스턴미술관 소장 사리 인수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미국 보스턴미술관(관장 매튜 테이틀바움)에 소장됐던 부처님 진신사리와 나옹·지공 선사 사리가 100여 년만에 4월 18일 환지본처(還紙本處) 했다.

조계종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과 총무원 문화부장 혜공 스님을 비롯한 대표단은 4월 16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미술관에 방문, 사리 기증에 대한 행정 절차와 관련 이운 의식을 완료하고 진신사리를 인수했다. 석가여래의 진신사리를 비롯해 보스턴미술관 소장 사리구 안에 봉안되었던 사리는 총 5과다.

조계종은 진신사리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위치한 불교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임시 보관했으며 다음날인 4월 19일 불교 전통 이운 의례와 본 고불식을 진행했다. 5월 19일에는 진신사리를 원 봉안처에 봉안하는 법회를 양주 회암사지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리의 이운은 보스턴미술관의 불교에 대한 종교적 배려와 협조 아래 진행돼 눈길을 끈다. 보스턴미술관 측이 박물관 폐관일에 맞춰 준비한 별도 의례 공간에서 사리 이운을 위한 불교 고유의 전통 의식이 진행됐다. 절차에 맞춰 의례 공간으로부터 보스턴미술관 외부로까지의 이운도 설행됐다.

이운에 앞서 조계종 대표단과 보스턴미술관, 보스턴총영사관 관계자가 참석한 사전 간담회가 진행됐다. 조계종은 사리의 기증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보스턴미술관에서 봉행된 사리 이운 의식.

미술관 소장 사리 5과 한국 이운
고려 나옹·지공 선사 사리 포함
4월 18일 입국…4월 19일 고불식
5월 19일 회암사지서 봉안법회도

보스턴박물관에 따르면, 이번에 반환되는 사리는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지공선사, 나옹선사의 사리다. 사리구에 적혀있는 명문을 통해 여래와 역대 조사의 진신사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광불과 가섭불, 석가불의 진신사리, 그리고 고려 지공·나옹선사의 사리가 한번에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불교적,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이역만리에 보관됐던 진신사리가 마침내 사찰로 돌아와 예경 대상으로서의 본래 가치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남다르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마침내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역대 조사의 사리가 양주 회암사로 환지본처한다는 점에서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러운 심정"이라며 "이후 진신사리의 역사적, 종교적 위상과 가치에 맞게 여법하게 예경의 대상으로 봉안하여 모실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장 혜공 스님도 "조계종과 문화재청, 보스턴총영사관을 포함한 외교부, 시민단체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달성한 성과"라면서 특히 사리가 가지는 성보(聖寶)로서의 가치를 존중해 준 미술관 측에 아낌없는 감사를 표했다.

마음청정 지구청정
Pure Mind. Pure Earth

『기후 환경 위기 극복 불자행동 캠페인』 "생활속 실천에 동참해 주세요"

비움 Simple Life
소욕지족少欲知足 운동
물질은 소박하게 마음은 풍요롭게
적게 소유하며 검소한 삶을 통해 마음의 풍요를 누리겠습니다.
적게 구입하고, 오래쓰며, 윤리적 소비로 살기
자연과 이웃 덕분에 살아감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자연과 이웃의 은혜 알고, 감사와 고마움으로 베풀며살기
본래 내 것은 없음을 알고, 나누고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무소유와 나눔, 자비의 마음으로 돌봄과 배려의 삶을 살기
위가 아니라 옆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물질적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이웃과 협동하며 공동체로 살기

바꿈 Changing Life
수처작주隨處作主 운동
나를 바꿔 세상을 바꾼다
자신을 살피고 주변을 돌아보며 천천히 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고 욕심과 화를 다스리며 수행과 평화명상 생활화하기
쓰레기 제로의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발우공양, 일회용품 사용금지, 비닐 플라스틱 사용절제, 농어촌 쓰레기줍기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전기자동차사용하기
채식위주의 식사와 발우공양문화를 실천하겠습니다.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장려하며 소식하는 빈그릇운동 실천하기

살림 Saving Life
생명방생生命放生 운동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
동물을 보호하고 살리며, 생명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현대적 방생실천, 살처분반대, 동물권옹호, 미래세대권리 옹호하기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며 풍요로운 자연을 만들겠습니다.
나이만큼 나무심기, 산감제도 부활, 사찰숲가꾸기
농업을 지키고 자립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농업자립지원, 텃밭가꾸기, 귀농귀촌장려, 농촌공동체만들기
개발보다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을 우선하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금지, 자연서식지 습지 보호, 생태파괴기업 투자철회

미래 For the Future
자업자득自業自得 운동
미래세대에게 피해 물려주지 않기
환경과 생태문제를 배우고 이웃과 더불어 실천합니다.
종단, 교구별 환경위원회 설치, 환경교육실시, 조직만들고 실천하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이루겠습니다.
사찰과 불교시설 태양광 풍력등 재생가능에너지이용, 넷제로(Net-Zero)실천
지역적으로 실천하고 지구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역단체와 협력하고 지역순환사회만들기, 전지구적인 문제해결에 참여
가난한 이웃과 난민, 미래세대를 위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고통받는 이웃과 난민지원, 공정무역, 미래세대를 위한 활동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천태종 대한불교진각종 대한불교관음종 한국불교태고종 불교총지종 대한불교대각종 사)대한불교원융종 대한불교보문종 재)대한불교원효종
대한불교총화종 한국불교여래종 대한불교화엄종 재)대한불교왕봉선교종 대한불교삼론종 대한불교대승종 대한불교용화종 한국불교미륵종 사)대승불교본원종 보국불교염불종
사)대한불교조동종 사)대한불교법상종 재)한국불교법륜종 대한불교정토종 대한불교진언종 대한불교법연종 대한불교미타종 대한불교일승종 대한불교법화종 한국대중불교불이종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Association of Korean Buddhist Orders

총지종 제13대 종령 지성 대종사 취임

4월 16일 총지사서…"제2의 창종 정신으로 도약"

1993년 품수 후 요직 거쳐
제16대 통리원장 등 역임해
지성 종령 "교화방편 변화를"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교총지종 제13대 종령으로 추대된 지성 대종사가 시대변화에 따른 제2의 창종 정신으로 종단 부흥을 위해 헌신할 것을 서원했다.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우인 정사)은 4월 16일 총본산 서울 총지사에서 제13대 종령 지성 대종사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중앙종의회의장 법상인 전수 등 종단 소임자와 신도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종령 지성 대종사는 이날 종조 원정 대성사의 법통을 이어받았다. 대종사는 "종단 발전과 국가 진호를 위하고 인류의 복지 증진, 중생의 해탈을 위해 종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맹세한다"고 불전에 선서했다.

서울·경인, 부산·경남, 대구·경북, 충청·전라 4개 교구 신정회 지회장들은 지성 대종사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며 종령 추대를 축하했다.

지성 대종사는 이어 법어를 통해 밀교행자들이 대승의 길을 걸으며 사명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종단 교화방편의 변화를 주문했다. 대종사는 "원정 종조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제생의세 방편이 달라져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음에도 우리는 시대에 부응하는 적절한 교화방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종단은 그동안 인재양성에 소홀한 감이 있었다. 앞으로는 인재 발굴과 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봉행사에서 "종령님께서는 시대변화에 동승한 교화방편을 펼치기를 누구보다 염원해 오셨다"며 "넓고 깊은 혜안력의 반야지혜로써 종단의 종지종풍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중생구제와 구국도생의 대표 종단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종령 추대법회에서 대중에게 교화방편의 변화를 주문한 지성 대종사.

내빈으로 참석한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진각종은 총지종과 더불어 그동안 함께해온 소중한 인연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인류세계의 정화와 밀엄정토 구현에 늘 함께할 수 있길 서원한다"며 "새로운 종령을 모신 총지종이 불교 발전은 물론 국가와 사회가 상생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축사했다.

이 밖에 중앙종의회의장 법상인 전수, 박정희 서울경인교구 신정회장이 각각 추대사와 헌사를 통해 총지종의 교세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한편 1946년 경북 포항에서 태어난 지성 대종사는 총지종 창종 당시부터 종단과 인연을 맺었다. 종조 원정 대성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1993년 3월 품수 후 같은 해 10월 중앙교육원 아사리 과정을 수료하고 항마급 대법사에 승서했다. 통리원 기획국장, 재무부장, 총무부장을 비롯해 불교총지종유지재단과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이사, 감찰기관 사감원 원장, 제16대 통리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1월 승단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종령에 추대된 지성 대종사는 2월 16일부터 6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개정 종헌' 공포

제76차 원로회의 인준 거쳐 4월 16일 공포

조계종 중앙종회가 제76차 원로회의에서 인준된 종헌개정안을 공포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4월 16일 "제230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개정되고, 제76차 원로회의에서 인준한 종헌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종헌 개정 취지는 지난 30년간 94년 종단개혁의 성과로 지탱해온 현재의 중앙종무기관 조직이 격변하는 시대를 헤쳐갈 동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이라는 지금의 3원 체제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종헌은 기존 종헌에 명시된 교육원과 포교원 내용을 삭제해 3원 체제를 총무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원과 포교원의 업무는 하위법인 교육법과 포교법 등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혼란을 방지하고 조직개편을 위한 종법 개정 시일을 확보하고자 부칙으로 종헌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 밖에 종헌상 사문화된 복지원 및 승려복지원에 대한 내용을 현실적 기능과 운영상황을 반영해 명칭을 조정했다. 또한 총무원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종단이 설립·출연·인수하는 기관에 대해 종단 산하기관으로 통칭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윤호섭 기자


"만공 스님 정진력 닮아가자" 조계종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가 4월 15일 산내암자인 정혜사에서 만공 스님 탄신 153주년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전 덕숭총림 방장 설정 대종사를 비롯해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사진은 설정 대종사를 비롯한 대중스님들이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 진영에 삼배를 올리는 모습. 유재상 충청지사장

태고종, 자문위원 대거 위촉…외연 확대 시동

4월 16일 대외협력위원 위촉
정치 · 법률 · 교육 전문가 포진
상진 스님 "종단 운영 함께"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홍승기 한국불자네트워크 상임대표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모습.

태고종이 종단 주요 종책 및 현안 사업에 대한 자문과 정책 입안 등을 자문할 대외협력자문위원들을 대거 위촉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4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총무원장 직속 대외협력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재홍·행정부원장 능해·불교문예원장 지허 스님과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이 참석했다.

대외협력자문위원회는 정치, 법률, 교육, 경제 등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상진 스님은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종단 발전에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으로는 김형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강성룡 법무법인 YK 대외협력본부장, 조창희 한국문화예술경영연구원, 홍승기 한국불자네트워크 상임대표, 천우정 국회정각회 사무국장, 양병갑 소나무종합건설 대표, 조환기 한국예총 상임고문이 참여한다.

학계에서는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 교수, 이순학 단국대 교수, 이종수 순천대 교수,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 남수영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 등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상진 스님은 "태고종은 한국불교사에서 적자 종단이었지만, 그간 많은 혼란 등으로 적지 않은 부침을 겪었다"면서 "종단은 총무원장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종도가 참여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오늘 자리는 이를 다짐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태고종은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셋째도 포교를 지상과제로 여기고 전법불사에 매진하겠다"면서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지혜와 경험은 종단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태고종 발전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연 변호사는 "태고종 발전과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대작불사에 동참하게 돼 영광이다. 이런 기회를 준 상진 스님께 감사드린다"며 "태고종 위상이 높아지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장학승 36명에 2억3500만원

4월 18일, 장학증서 수여식
등록금 · 연구비 · 생활비 지원

승가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4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열린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승으로 선발된 36명에게 장학금 2억35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국외 2명, 국내 23명, 사찰승가대학원 11명이다. 장학생들은 해당 과정 수료 시(3년 이내)까지 등록금과 연구비, 생활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장학승 가운데 비구 법봉 스님과 비구니 서림 스님이 대표로 장학증서를 받았다.

앞서 조계종 장학위원회(위원장 종호 스님)는 3월 6일 '제7기 장학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불기 2568학년도 종단 장학승을 선발했다. 장학승 선발 심사는 종단이 정한 전공 분야, 수학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성적, 종단기여 가능성, 추천서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진행됐다.

한편 종단 장학승 선발사업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선발된 장학승은 총 268명이다. 임은호 기자



동국대, 대학생 전법불사 중심으로 부상

서울캠퍼스 경찰 · 예술대학에
불교동아리 창립법회 잇달아
3개 단과대 불교동아리 탄생

WISE캠 '대학생전법단' 출범
내년까지 800명 불자 목표로

신중일 · 이민우 기자


동국대 WISE캠퍼스에서 출범한 WISE대학생전법단. 학생들이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동국대를 상징하는 색의 종이를 들고 '전법' 이라는 글자를 표현했다.

조계종립 동국대가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 전법단 구성 등 대학생 전법불사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는 4월 18일 정각원에서 예술대학 불교동아리 '진선미'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진선미'의 창립회원은 학부생 113명, 대학원생 17명으로 총 130명으로 구성됐다.

예술대학 불교동아리 '진선미' 지도법사에는 은산 스님(동국대 일반대학원 상담코칭학과 박사과정)이, 지도교수에는 정달영 동국대 예술대학장, 이수예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교수, 이주원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교수가 위촉됐다.

앞서 15일에는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불교동아리 '캠폴스테이'가 정각원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청년 대학생 불자로서 부처님 법을 실천하고 전할 것을 서원했다. '캠폴스테이'에는 경찰사법대학 재학생 97명과 대학원생 33명 총 130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도법사에는 동국대 일반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만경 스님이, 지도교수에는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조영일 교수와 이창배 교수가 위촉됐다.

동국대는 지난 3월 20일 사회과학대학 불교동아리 '템플애플'이 창립된 데 이어 경찰사법대학 '캠폴스테이', 예술대학 '진선미'가 창립되며 총 3개의 단과대학 불교동아리가 창립됐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예술대학 불교동아리 '진선미' 창립법회.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건학위원장이자 이사장으로서 동국대 재학생 1만 8000여 명 중 불교를 주춧돌로 삼고 있는 학생은 얼마나 될까 걱정과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이 고민이 희망과 웃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며 "우리 동국인 모두가 불교소모임을 통해 동국대의 정체성과 건학 이념 구현에 함께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보니 26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야사와 그의 친구들이 21세기에 환생해 이곳 정각원에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불교가 잘 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깨어나 열심히 부처님 법을 따르고 전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2600년 전에도 있었듯 오늘날 여러분들이 불교 중흥과 동국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부처님 제자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동국대 WISE캠퍼스(총장 류완화)는 4월 16일 교내 정각원 법당 및 백주년기념관 앞 광장에서 'WISE대학생전법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WISE대학생전법단'은 건학이념의 구현과 대학생 전법 확대 및 불교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출범하게 됐으며 2024년까지 800여 명의 청년 대학생 불자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롭게 창단된 불교동아리를 이끌어 줄 지도법사에는 능견·진욱 스님이, 지도교수에는 김은경·주수언·엄익선·배성현 교수가 위촉됐다.

이날 출범식에서 류완화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WISE대학생전법단이 출범하는 오늘은 매우 의미 깊은 날"이라며 "불교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갖고 전법활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각원장 철우 스님은 축사를 통해 "이번에 출범한 WISE대학생전법단 여러분들은 학문에서 최고가 되어야 하고 늘 봉사하고 수행을 하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WISE대학생전법단 구성원은 출범식 후 참석 인원 모두가 백주년기념관 앞 광장에서 전법 글자 만들기 퍼포먼스를 통해 대학생 전법의 의지를 다졌다.

인묵 스님, 광동학원 13대 이사장 취임

남양주 광동중 · 고교서 취임식
법인 산하학교에 발전기금 지원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이 광동학원 제13대 이사장에 취임했다.〈사진〉

학교법인 광동학원은 4월 12일 남양주 광동중·고교 운악관에서 제13대 이사장 인묵 스님 취임식을 봉행하고, 광동학원 설립자인 운허 스님(1892~1980)의 인재 양성 원력을 계승키로 다짐했다. 인묵 스님은 지난 2월 광동학원 제404차 이사회에서 새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7년 1월 27일까지다.

인묵 스님은 취임식에서 "독립운동가로서 대한민국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한 운허 스님과 명예이사장인 월운 스님의 대원력을 계승해 불교의 자비정신을 펼쳐 봉선사와 연계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스님은 "교직원·학생·학부모·동문회·지역사회가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광동학원이 유기적 관계 속에서 발전하도록 이끌겠다"며 "광동학원은 78년의 전통과 교육성과



의 기반을 가진 명문사학으로서 서울과 경기 북부의 엘리트 교육을 담당할 수 있게 변화와 도약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인묵 스님은 이 같은 학교 발전 원력을 실천하기 위해 이날 산하학교 3곳에 발전기금 총 5000만원을 전달했다. 더불어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인 호산 스님도 장학금 5000만원을 기탁하며 광동학원의 발전을 기원했다.

봉선사 선지식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인 일면 대종사는 격려사를 통해 건학이념 구현에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일면 대종사는 일제강점기 해방 직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재 교육에 있다고 강조한 운허 스님의 '교육입국' 정신을 강조한 뒤 "한층 더 수준 높아진 광동학원을 만들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광동학원 발전이 봉선사 발전이고, 이는 곧 불교중흥의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 광동학원이 융성할 수 있게 열심히 돕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취임식에는 불교계뿐만 정관계에서도 수많은 내빈이 참석해 인묵 스님의 광동학원 이사장 취임을 축하했다. 승가에선 일면 대종사와 호산 스님을 비롯해 봉선사 능엄학림 학장 정원 대종사, 서울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도심 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덕림 스님, 불학연구소장 법정 스님, 서울 수국사 주지 보관 스님, 파주 보광사 주지 혜성 스님, 중앙종회의원 허허·법륜 스님, 불교신문사장 오심 스님이, 재가에선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과 김남명 제25교구 신도회장, 자명화 봉선사 신도회장이 참석했다. 이 밖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동근 의정부시장, 홍지선 남양주부시장, 김병주 국회의원(남양주을) 당선인과 법인 산하학교 학생을 포함해 600여 명이 운악관을 가득 메웠다.

남양주=윤호섭 기자

"세월호 10주년, 잊지 않겠습니다"

조계종 사노위, 팽목항 해상서
세월호 10주기 추모재 봉행해

2014년 4월 16일 전 국민의 가슴에 잊을 수 없는 슬픔을 새겨 넣었던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가 발생했던 해역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날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다.

총 304명에 달하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아직까지도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5명(단원고 2학년 6반 남현철·박영인 군, 단원고 양승진 교사, 일반 승객 권재근 씨·권혁규 군)이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도하는 추모재가 10년 전 참사가 발생한 해상 위에서 봉행됐다.〈사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세월호 10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 4월 13일 유가족들과 함께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세월호 참사 현장을 찾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재 및 미수습자 수습 발원 기도회'를 봉행했다.

배를 타고 두 시간여를 나간 끝에 도착한



바다에는 이곳이 10년 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현장임을 알리는 노란 부표가 떠있었다. 참사 현장에 도착한 스님과 유가족들은 곧바로 준비한 기도회를 봉행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달랬다.

故조은화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는 "아직도 내 딸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고 어디선가 공부하고 있을 거란 생각도 든다"며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사노위스님들과 유가족들은 함께 슬픔을 담은 국화를 바다에 뿌리고 희생된 304명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마음으로 위패에 불을 붙여 하늘로 날려 보냈다.

이민우 기자

2568년 부처님오신날 및 가정의달 기념 서울 종로구 어르신 초청

2024 쿠무다 찾아가는 봉축 음악회 '꽃피는 시절 추억의 멜로디'

전국 각지 힐링이 필요한 곳을 찾아 음악회를 개최해 온 쿠무다는 2024년 세상을 밝고 빛나게 가꾸어 오신 우리 시대 어르신들과 함께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자는 취지로 '찾아가는 봉축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가 더욱 빛나고 풍성하게 진행되길 바라며 유관 기관의 협력과 관내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일시 2024년 5월 3일(금) 14:00 ~ 16:00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4 마로니에공원

진행 : BBS불교방송 아나운서 오승진 & KNN 아나운서 황범
출연 : 미스트롯 송가인, '칠갑산' 주병선, '존재의 이유' 김종환, 리아킴, 국악인 남상일, 상월비보이단 등
주최 : 문화예술사단법인 KUmuda 明京文化財團 명경문화재단 **주관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중구구립·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운영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41 쿠무다빌딩 I 전화 051)702-1300 I 팩스 051)703-2300 I www.kumuda.co.kr

“MZ 포교 구심점”…청년 전법센터 개소

대불련 총동문회 등, 4월 13일 개소식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대불련 후배 위해 선배들이 모연
1000일 기도 동안 6억 2000만원
“교육·소통·성장 요람으로 사용”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가 서울 종로 두산위브파빌리온 1013호에서 ‘대학생 · 청년 전법지원센터’를 마련했다. 사진은 4월 13일 열린 개소식 모습.

대학생·청년 포교 구심점 역할을 할 전법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청년 불자들의 방문을 기다린다. 전법지원센터는 청년 불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창의적이고 톡톡 튀는 전법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최승태, 이하 대불련 총동문회)와 (사)대불(이사장 명호근)이 4월 13일 서울 종로 두산위브파빌리온 1013호에서 ‘대학생·청년 전법지원센터’ 개소식을 거행했다.

전법지원센터는 대불련 후배들의 열정과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발원한 선배들의 동참과 모연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 시작은 2021년 홍경희 제29대 대불련 총동문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다. 당시 코로나19가 극심했던 탓에 회원들 간 만남조차 어려웠고, 모든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그럼에도 포기는 없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내실 강화에 집중키로 했다. 대학생전법을 위한 열린 공간 마련에 원력을 세웠고, 그 해 3월 31일 1000일 모연 불사에 돌입했다.

원력은 변대용 제30대 대불련 총동문회장이 올곧이 이어받았다.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독려하기 위해 10차례나 모심법회를 열었다. 1000일 모연 불사는 대불련 선배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지난해 9월 16일 대불련 창립 60주년 기념법회에서 원만히 회향할 수 있었다. 모연에는 307명의 사부대중과 18개 단체가 동참, 총 6억 2000만원의 건립기금이 마련됐다. 이를 토대로 공간 매입이 진행됐고, 리모델링과 명칭 확정을 거쳐 이날 입주식을 열게 됐다.

전법지원센터에는 대불련 중앙회장 집무실과 대불련 총동문회·(사)대불 사무국이 들어서며, 청년 불자들이 각종 기획과 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대학생·청년 전법의 일진보를 이룰 공간으로 사용된다.

최승태 대불련 총동문회장은 “전법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대불련과 총동문회가 그 구심점 역할을 해내야 한다”며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총동문회가 지원을 통해 뒷받침을 해주면 보다 폭넓은 전법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법지원센터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현해 갈 대학생 불자들도 동문 선배들에 대한 고마움과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주현우 대불련 중앙회장은 “언제나 대학생 포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마음 모아주신 대불련 동문 선배들께 감사하다. 오늘 문을 연 전법지원센터는 대불련 동문 선배들께서 대불련과 대학생 포교를 생각하는 마음이 모인 결정체”라며 “선배님들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전법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대불련이 대학생 전법의 중심이자 선도자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중앙회장은 전법지원센터를 △요즘 대학생들의 성향에 맞는 방식과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갖춘 양질의 불교동아리 프로그램 연구 △대불련 동문 선배들과 재학생이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자 재학생들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 △회의를 통해 지혜를 모아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갈 성장의 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 포교원, 인성교육계발위원 위촉

위원장 혜거 스님…임기 2년
인성 프로그램 개발 · 인증 역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정서 함양을 위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인증하는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4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인성교육계발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명상, 상담, 교육, 예술치료, 고등학교 및 대학 등에서 활동하는 인성교육 전문가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사진〉

향후 위원회는 △종단 공식 인성 프로그램 인증 △종단 인성 프로그램 리뉴얼 △교재개발, 강사교육 등 인성 프로그램 교육 활성화 △사찰 및 불교단체에 프로그램 보급 △대사회 심성 캠페인 등 홍보 사업을 추진한다.

위원회에는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문종 스님,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법정 스님, (사)한국명상상담심리학회 이사장 인경 스님, 광주 정광고 교장 영일 스님, 동국대 WISE캠퍼스 명상심리상담학과 교수 범우 스님, 김영래 독일 마인츠대학 철학박사, 민보현 이로움예술심리치료연구소장, 박범석 한국인성교육진흥원장, 양동효 교법사단장, 이명호 동국대 부디스트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혜거 스님이 위원장을 맡았고, 위원 임기는 2년이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일선에서 실행·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위원회 위상에 걸맞은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포교원이 열심히 돕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청춘들아, 템플스테이로 모여라”

문화사업단, 청춘 템플스테이
4월 26일~ 5월 30일까지
100개 사찰, 1만원에 운영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인된 금액에 템플스테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4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청춘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사진〉 문화사업단이 ‘청춘’을 주제로 젊은 세대만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춘 템플스테이는 한국전통문화 및 템플스테이를 향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학업과 경쟁, 취업 스트레스로 지친 청년들이 사찰에서 일상을 보내며 심신 건강을 도모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 기획됐다.

템플스테이 상반기 프로그램은 국내 거주 대학생으로 한정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전국 100여 개 사찰에서 진행되며, 신청자는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1만원에 체험할 수 있다.

예약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가능하다. 다만 모든 할인 혜택은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자세한 일정과 관련 정보는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청춘 템플스테이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가진 미래에 대한 고민과 불안을 덜어내고 자신을 찾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청춘남녀, 봉은사서 사찰 혼례로 ‘백년가약’

4월 13일, 신도가족 적극 요청
원명 스님 주례법사 나서 축원
사찰음식공양…전법 포교 기대


4월 13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열린 불교전통혼례식에서 신랑 신부가 주지 원명 스님 앞에서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만발한 벚꽃으로 봄기운이 완연했던 4월 13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특별한 혼례식이 열렸다. 불교전통혼례식이 그것. 이날 혼례식에 함께한 동참자들은 신랑 신부의 새출발을 응원하며 부처님 품에서 탄생한 새로운 가족의 앞날을 축하했다.

40여 분 간 진행된 혼례식은 예식을 알리는 타종과 함께 양가 어머니들이 불단에 촛불을 점화하는 의식으로 시작됐다. 향과 등, 꽃을 부처님께 올리는 삼법 공양과 동자 동녀가 도량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 꽃과 향수를 뿌리는 도량결계 의식이 이어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삼귀의례와 함께 본격적인 사찰 혼례 의식이 진행됐다.

혼례의식 주례법사를 맞은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입장, 부처님과 조상님에게 백년가약을 알리는 고불문을 봉독했으며 신랑 신부가 부처님 전에 7송이 꽃을 올리며 아름다운 인연을 서원했다. 이어 혼인서약과 성혼선언, 발원문 봉독, 주례사, 봉은국악합주단 축가, 사홍서원, 행진 등을 통해 신랑 신부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동참자들 앞에서 다짐했다.

이날 사찰혼례의 성사는 양가 혼주들의 힘이 컸다. 원각심 불자와 신부는 지난 3월 초 주지스님을 예방하고 “봉은사 신도이기에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혼례를 사찰에서 치르고 싶다”고 요청했다. 신랑 측 혼주도 과거 사찰에서 혼례식을 치렀기에 이번 사찰혼례가 더욱 빛을 발했다.

혼례식 후 공양에는 사찰음식이 제공됐다. 술과 고기가 제외되고 채식으로 만든 건강한 사찰음식으로 잔칫상이 차려져 동참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봉은사 측은 “예식장이나 성당, 교회도 아닌 사찰에서 혼례를 치르는 것이 극히 드문 요즘, 이번 봉은사 전통혼례식은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불자로서 마음을 모아 사찰에서 혼례를 치른다는 것은 대대적인 전법포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3218-4812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4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4차 산업혁명의 불교적 의미 고찰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마음과 과학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세대별, 대상별 다채로운 법회프로그램 등

일 정 : 2024년 8월 28일(수) ~ 30일(금) 2박 3일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강사진 :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박종래 교수(서울대), 이창수 교수(경희대), 황수경 교수(동국대) 등
교육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조계종 승려연수인증과정(30점)
정 원 : 50명 (선착순 마감)
문 의 : 031-470-3200 (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30주년 추진위원회는 이사장 일면 스님을 필두로 정재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생명나눔 운동이 이룬 성과와 가치를 미래로 이어 나가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다.

생명나눔 운동 30년 성과 미래로 이어간다

30 생명 나누다, 자비의 길 걷다 ②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30주년 추진위원회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우리사회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불교계 유일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자살예방, 환자치료비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며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데 진력한 지 올해로 30년째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지난 30년간의 활동을 알리는 한편 생명나눔 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강조하고 확산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올 한 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생명나눔 운동이 이룬 성과와 가치를 되새겨보고 이를 미래로 이어 나가기 위해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마련키로 한 것. 이에 지난해 여름, 창립 30주년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알렸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30주년 추진위원회는 이사장 일면 스님을 필두로 정재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됐다.

추진위원회가 꾸려지며 가장 먼저 한 일은 올해의 기치를 세운 것. 30주년을 맞아 이웃종교, 넓게는 사회에서 앞서가는 공익법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해 '생명을 나누다, 자비의 길을 걷다'를 기치로 삼아 생명나눔과 불교의 핵심 가치를 전파하기로 했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30주년 기념식, 사사 제작, 각종 이벤트 등 올 한 해 치러질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생명나눔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강조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한다. 올해는 특히 주변 소외된 계층을 찾아 지원사업을 확장하고 젊은 세대가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몰두하고 있다. 불교계를 넘어 국민적, 국가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이벤트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확산되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수많은 환자들에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시작으로 각 교구본사 릴레이 장기기증 서약 운동을 계획하고 있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국가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지원하는 해외 의료물품 지원사업도 4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5월에는 제1회 자선골프대회를 개최, 환자 치료비 기금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 생명나눔 운동이 불교계를 넘어 우리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30주년을 맞아 생명나눔이 가진 가치와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찰하고 이를 향한 다짐과 약속을 나누는 시간을 자주 가질 계획"이라면서 "추진위원들이 머리를 맞대 30년 동안 묵묵히 선행을 해 준 회원과 불교계, 불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정현숙

생명나눔 30주년 추진위원장



"여러 사회봉사단체가 많지만 30년을 이어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생명나눔이 가고자 하는 그 뜻을 제가 미력하게나 곁에서 돕겠다는 마음입니다."

정현숙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30주년 추진위원장의 각오가 남다르다.

정현숙 추진위원장이 생명나눔실천본부에 함께한 지도 어느덧 12년이 훌쩍 넘었다. 2012년, 갑상선암을 앓았던 정 추진위원장은 좀 더 의미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원력을 세웠고 생명나눔실천본부 광주지역본부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2017년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서울본부에 직접 찾아왔을 정도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정현숙 추진위원장의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서울본부로 활동 영역을 옮기자마자 후원회장직을 맡아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생명나눔실천본부에 따르면 정 추진위원장이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회원과 후원금액이 3배 이상 급등했다. 정 추진위원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오랜기간 한국무용을 해왔던 특기를 살려 산하단체로 마하무용단을 조직, 한국의 아름다움이 담긴 춤과 음악으로 포교활동을 펼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지평을 미국까지 넓힌다. 9월 23일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시작으로 25일에는 타임스퀘어 특설 무대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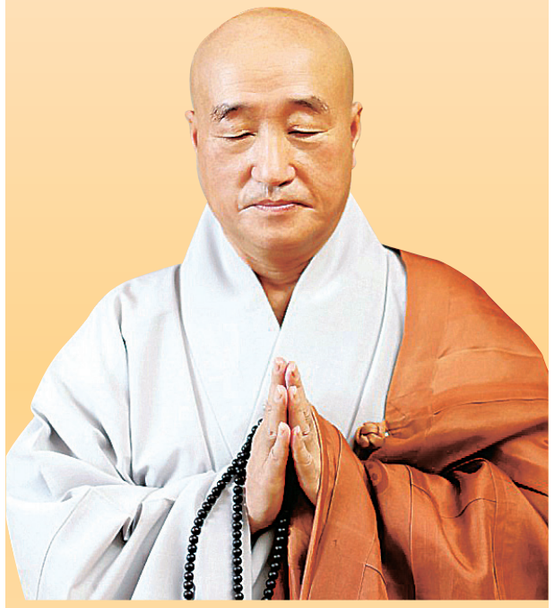
정현숙 추진위원장은 "모든 것은 생명나눔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바른 생각으로 생명나눔 활동을 하다보니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건강하게 살아가야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앞으로 더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당장 올해 30주년 행사를 여법하게 진행하는 것이 먼저겠지요."

정 추진위원장은 생명나눔이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용, 다양한 형태의 기부문화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

"'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며 부담감이 크지만 이사장 일면 스님을 적극 도와 생명나눔을 더욱 큰 나무로 성장시키는데 힘쓰겠습니다. 30년을 발판삼아 앞으로 만들어갈 생명나눔의 아름다운 문화, 기대해주세요."

"행복한 나눔으로 희망 잇겠습니다"



향기로운 꽃나무들이 새싹을 피우는 이렇게 좋은 계절, 부처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1994년 설립된 생명나눔실천본부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살리기와 생명나눔 홍보, 장기기증 희망등록 권선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열악했던 시절, 많은 분들이 모인 장소라면 어디든지 달려갔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목표로 환자치료비 지원,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불우이웃 돕기 등을 전개하며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1200여 환자들에게 45억여 원의 치료비를 전달하며 부처님 자비를 실천해서 25만이 넘는 회원이 함께하는 불교계 유일한 최대 사회단체로 성장, 발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의 손길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눔입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미래의 30년도 희망찬 행복과 감동이 묻어나는 나눔을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생명나눔의 가치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나눔으로부터 희망이 만들어지고 그 희망으로부터 우리들은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행복을 나눠주고 더해줍니다. 생명나눔으로 걸어온 행복 여정 30년. 미래의 30년도 희망찬 행복과 감동이 묻어나는 나눔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꺼져가는 희망불씨를 되살리는 활동에 함께해 주십시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후원계좌 : 농협 301-0009-6876-31
홈페이지 : www.lisa.or.kr
후원문의 : 02-734-8050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용기를 잃지 않게 손을 잡아 주세요.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매달 발행하는 〈행복한 빈손〉 소식지를 통해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고 치료비를 모금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기후원신청 02-734-8059
후 원 계 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통도사 보살계 산림 회향…“소중한 인연”

4월 13~15일 금강계단에서
사부대중 모여 환희 수계해
전계대화상 율주 덕문 스님
학업 매진한 스님 장학금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가 봉행한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삼사 칠증사 스님들이 들어서고 있다.

계율근본도량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하고 불자들이 지계정신으로 수행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통도사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내 금강계단에서 ‘불기 2568년 영축총림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수계산림은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이 전계대화상을, 갈마아사리는 전 통도사 강주 현진 스님, 교수아사리는 통도사 강주 인해 스님이 삼화상을 맡았다. 또 칠증사로 유나 영일 스님, 서축암 감원 우진 스님, 안양암 감원 종현 스님,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통도사 한주 만초 스님, 율원장 도암 스님, 염불원장 영산 스님이 참여해 계단을 증명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계는 우리가 부처 성불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자 마음의 그릇을 만드는 일이다. 통도사에는 10년, 20년, 30년 동안 인연을 이어온 불자들이 계신다. 그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불자님들은 계를 목숨처럼 받아 지니고 지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도사는 신라시대 자장 율사가 금강계단을 쌓아 계를 내린 ‘계율근본도량’으로 계율의 법맥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통도사 측은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부처님의 정골사리와 가사, 대장경 400여 함을 봉안해 646년에 창건한 도량이다. 창건 당시 대승계율을 강조해 금강계단이라는 수계 단을 만들어 신라불교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통도사는 이를 기념하며 음력 3월 5일부터 7일까지 매년 대규모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하고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불자들의 신행생활과 지계를 돕고자 성만패 및 메달을 수여해 수계를 독려하고 있다.

올해 보살계 30회 성만 기념패는 김정자(진여행), 진춘자(수심행), 김미경(금련화), 박정희(지행심) 씨 등 4명이 받았으며 25회는 김말순(상근화), 서우현(수연화) 씨 등 2명이 성만패를 받았다. 기념 메달은 20회 4명, 15회 15명, 10회 14명이 받았다.

아울러 통도사는 보살계 수계산림 회향식에서 학업과 연구를 이어가는 스님들에게 영축총림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율원 금린 스님, 강원 성제 스님 등 박사과정 4명과 석사과정 6명, 학사과정 3명, 승가대학원 및 율원 학림 20명, 승가대학 4명 등 총 37명에게 3020만원을 전달했다.

김봉철 부산공무원불자회장 취임

“불자회 화합에 최선 다해”



김봉철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사진〉이 부산시공무원불자회 제10대 회장에 취임했다.

부산시공무원불자회는 4월 12일 범어사 선문화 교육관 대강당에서 ‘부산시공무원불자회장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장 목종 스님,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을 비롯한 공무원 불자들이 참석했으며, 개회, 삼귀의례, 반야심경, 경과보고, 내빈소개, 이임사, 공로패 및 사진첩 증정, 취임사, 격려사, 축사, 법문, 임원단 소개, 발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김봉철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고 공무원 불자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겠다”며 “불자로서 모범적이고 화합하는 불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삼종 전 회장은 이임사에서 “김봉철 신임회장이 불자회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그동안 소임을 맡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부산시공무원불자회는 1991년 9월 당시 부산시청 내무국 시정과장으로 재직하던 주동관 전 상수도본부장이 초대회장을 맡아 모임을 시작했다. 당시 20여 명의 불자들이 근무 후 회의실에 모여 법문 테이프를 들으며 신행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1996년 당시 교통기획과장으로 재직하던 최익두 고문이 2대 회장에 추대돼 2009년 7월까지 18년 동안 이끌며 모임을 확장해 공무원불자회를 창립했다. 현재 부산시공무원불자회 회원 수는 시청을 비롯해 구·군 등을 포함해 총 1500여 명에 이른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어르신과 함께한 ‘한마음 효잔치’

부산 한마음선원, 어르신 초청해 공양 올려

개원 이후 지역민 초대 처음
공연 · 선물 등 행사준비 만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봉행된 ‘한마음 어르신 효잔치’ 현장.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스님)은 4월 17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한마음 어르신 효잔치’를 개최했다. 행사는 인근 복지관과 연계해 지역 어르신을 초청, 공양을 올리고 흥겨운 공연을 열었다. 1987년 개원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지역민을 도량으로 초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박해일 신도회장, 이화행 신도부회장, 김기재 영도구청장, 이경민 영도구의회 의장,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 등 주요 내빈과 어르신 600여 명이 참여했다.

한마음 어르신 효잔치는 공양, 기념식, 무대공연의 순서로 진행됐다. 공양은 부산지원 사부대중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국과 반찬, 다과로 차려졌으며 선원 신도들은 봉사자로 동참해 어르신들을 안내하며 환영과 공경의 마음을 전했다.

지원장 혜도 스님은 기념식에서 “그동안 영도의 발전과 복지에 꾸준히 마음을 기울이고 이웃을 위한 작은 나눔이라도 하고자 노력해왔지만 마음 한편에는 지역주민과 더 나누고 소통하는 기회가 많기를 바랐다”며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원 하나를 이룬 것 같아 어르신들을 뵙는 마음이 기쁘다”고 기념사를 전했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따뜻한 봄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여러 어르신들을 뵈어 반갑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스님과 신도들께 감사하다”며 “영도에는 다른 지역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하시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이어진 무대공연에서는 한마음선원 어머니 부산선법합창단의 선법가 공연,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 김종희 거사의 아코디언 연주, 초대 가수의 노래로 어르신들의 흥겨움을 더했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어르신들은 배웅하는 지원장 혜도 스님에게 “오늘 도량에 와보니 법당도 훌륭하고 밥도 맛있고 너무나 즐겁게 보내다 간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그동안 영도구 및 서구 복지관 등 9곳에 떡 나눔 보시를 이어왔다. 특히 올해는 영도구와 함께하는 ‘위기 가구 지역사회가 함께 찾는다-2024복지사업등기사업’에도 앞장섰다. 이 사업은 영도구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정을 적극적으로 찾는 복지 사업이다. 아울러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연말 및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영도구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백미 및 성품을 꾸준히 기탁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쿠무다 음악회, 5월엔 ‘마로니에공원’

부처님오신날 · 가정의달 기념
5월 3일 서울 종로구 찾아


지난해 5월 10일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육군 53사단 충렬부대 충렬관에서 열린 쿠무다의 찾아가는 봉축음악회. 자료사진

사단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 스님)가 5월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마로니에공원에서 ‘꽃피는 시절 추억의 멜로디’를 주제로 음악회를 개최한다. 부처님오신날과 가정의달을 기념하는 이번 음악회는 사단법인 쿠무다가 주최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다. 올해 15회를 맞는 ‘찾아가는 음악회’는 다양한 장소에서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출연진들로 꾸며졌다. 이번 음악회 출연진은 미스트롯 송가인, ‘칠갑산’ 주병선, ‘존재의 이유’ 김종환, 리아킴, 국악인 남상일, 상월비보이단 등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는 2024년 세상을 밝고 빛나게 가꾸어 오신 우리 시대 어르신들과 함께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자는 취지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다”며 “화사한 꽃으로 장엄된 5월,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가정의달을 맞아 열리는 이 공연은 한국 최고의 뮤지션들이 추억의 멜로디를 선사하는 등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하고 향기로운 축제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는 부산 대운사를 모 사찰로 지난 2013년 설립 이래 문화와 예술의 컬래버레이션를 통해 세상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화예술인과의 만남인 북콘서트와 쿠무다 음악회를 비롯해 무명 예술인들을 위한 무료 갤러리 대관,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과 장학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을 더 폭넓게 이어가고자 2021년 12월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쿠무다 명상문화센터를 신축개관했다. 또 2022년 6월 재단법인 명경문화재단도 설립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연등회 성공 회향, 봉사자가 이끈다

4월 11일, 봉사자 발대식



부산연등회봉행위원회(봉행위원장 정오 스님)가 4월 11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부산연등회 봉사자 발대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번 발대식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산불교를 대표하는 신행단체와 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기간을 위한 봉사자 발대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대식에는 봉행위원장 정오 스님, 집행위원장 석산 스님, 봉사위원장 법귀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사무부총장 정수 스님을 비롯해 이윤희 부산불교연합회 신도회장 및 신행봉사단체 대표 및 회원들이 동참했다.

발대식에서는 △여래선원 33관음연희단(단장 방수정)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 △삼광사봉사회(회장 이해순) △대한적십자사 불교지구협의회(회장 김인자) △범어사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조영택) △부산개인택시불자회(회장 한영만) △부산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수현)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옥희)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정분남) △불교TV염불공양회(회장 하정선) 등 10개 단체가 임명됐다.

봉행위원장 정오 스님은 “부산연등회는 국가의 문화가치를 보유한 문화유산으로 고려시대부터 이어온 우리의 역사이다”며 “여기 봉사자들은 그 가치를 전하고 지키는 수호신장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불교와의 인연으로 행복을 얻으신 것처럼 이번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그 행복을 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윤희 부산불교연합회 신도회장은 “부산연등회에서 보여주는 200만 부산불교도의 결집을 통해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반야선원 보리수회 금강경 365독 회향

정여 대종사 초청법회도



금정총림 범어사 직할포교원 해운대 반야선원이 금강경 독송 365일 기도를 회향했다.〈사진〉

반야선원 보리수회(회장 손승수)는 4월 13일 부산 해운대 장산 대원각사에서 ‘금강경 독송 회향 및 금청총림 범어사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회향법회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 대원각사 주지 안도 스님, 김영신 반야선원 포교사회 회장, 박종안 조계종 포교사단 부단장, 정분남 부산여성불자회장, 김옥희 통도사 포교사회 회장, 박유순 신라문화원장를 비롯해 포교사들과 불자들이 동참했다.

대원각사 주지 안도 스님은 “금강경 독송 기도 365일 회향에 불교의 큰 어르신 범어사 방장스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다. 금강경을 나 혼자 독송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회향하며 불도 부산에 불교 바람을 다시 일으키기를 기원한다”며 “올해는 108명이 함께 했지만 내년엔 1250명이 함께 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생각에 속지 않아야 하고 금강경은 자기 마음을 바로 보게 하는 힘이 있다”며 “똑같이 살아도 나를 위하고 나만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면 온 세상 사람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이끌어주실 것”이라고 법문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다가오는 봉축을 맞아 등을 들고 대원각사 차밭을 돌며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면서 회향했다.

한편 반야선원 보리수회는 지난해 4월 15일 창단돼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매일 독송해 왔다. 조계종 포교사 30여 명으로 시작해 현재 100여 명이 독송회에 동참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범어사 문화유산 하나씩 알아가요”

성보박물관 문화유산 활용사업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은(관장 정오 스님) 2024년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대웅(大雄), 위대한 영웅을 찾아서!’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운영 프로그램은 △대웅, 위대한 영웅을 찾아서!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자! △알쓸범대, 알고보면 쓸데 있는 범어사 대웅전 이야기가 진행된다.

‘대웅, 위대한 영웅을 찾아서!’는 대표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문화해설사와 함께 범어사 경내를 답사한 뒤 대웅전 속에 숨어있는 단청과 벽화의 문양을 찾아 채색하고, 대웅전을 직접 만들면서 조선시대 건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범어사 대웅전은 부산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중 하나로, 1602년 창건된 이후 여러 번의 중창을 거듭하였음에도 상량문에 기록된 1658년 건립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현재도 예불을 드리는 공간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의 활용을 보여주는 곳이다.

아울러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부모를 동반한 6세부터 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박물관 문화 탐방을 떠나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4년 5월 11일부터 11월 23까지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실시하며, 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유산을 감상하고 소장품을 활용해 관련 작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알알이 소망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연꽃 테라리엄 등 다채롭게 마련되며 특히 7월에는 연꽃 씨앗을 가정으로 배송해 직접 키우고 관찰일지를 작성하는 가정연계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9월에는 범어사 소장 삼국유사를 관람하고, 삼국유사 목판을 직접 인경 체험한 뒤 전통방식으로 책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북 연등축제, 시민 문화축제로 진행된다

전북봉축위, 연등축제 계획 발표
능동적인 화합과 소통 축제 표방
어린이 큰잔치·노래자랑 등 '다채'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 봉축위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2568년 연등축제의 일정과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전라북도 연등축제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화합과 소통의 축제로 마련된다.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일원 스님, 진성 스님)와 불교문화보존회는 4월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계획을 밝혔다.

전북 봉축위는 올해 전주·완주 연등축제의 주제를 '다시 꿈이 시작된다. 꿈 타는 연등회'로 정하고 지역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많은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봉축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연등축제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면서 전통문화유산의 가치를 진정으로 계승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신이 직접 만든 등을 가지고 참여하는 생동감 있는 축제, 단순 종교행사가 아닌 전통 문화콘텐츠를 잘 살린 시민의 문화축제, 구경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의 축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하루 동안 진행된 연등축제를 올해부터는 5월 10일과 11일 이틀간 확대 진행된다.

전라감영에서 열리는 연등축제는 전북어린이큰잔치(사생대회), 아미따유스 페스티벌(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등 경연 행사와 전통문화체험마당, 전통한지등강습회, 수수팥 경단 만들기 등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특히 첫날인 5월 10일에는 아미따유스 페스티벌 본선이 개최된다. 아미따유스 페스티벌은 온라인을 통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 팀이 총상금 500만원을 놓고 경연을 펼친다.

둘째 날인 5월 11일에는 전북어린이 큰잔치와 시민노래자랑도 열린다. 저녁에는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불자 2000여 명이 동참하는 대규모 봉축법요식이 봉행된다.

이어 19시 30분부터는 전라감영, 영화거리, 팔달로, 관통로사거리로 이어지는 거리 연등행진이 펼쳐진다. 연등행진에는 50여 점의 장엄등과 1000여 점의 행렬등이 장관을 이루고 500여 점의 전통한지등이 시민들에게 배포된다.

특히 전주한지를 활용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눈길을 끈다. 지화장인 도홍 스님의 지화연꽃만들기, 전통한지 만들기 체험, 한지로 소원번쓰기, 시민 나눔용 한지연꽃등(500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전주역 마중길에 세워진 부처님오신날 봉축 기원탑은 미륵사지탑 1/5 축소형으로 전통한지로 제작됐다.

전북 봉축위원회 공동위원장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이웃을 위하는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며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뜻"이라며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들을 마주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내소사, 해안 대종사 열반 50주기 추모재

선대 조사 다례재도 함께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 스님)가 4월 15일 해안 대종사 50주기 추모재와 역대 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해안 문도를 대표해 내소사 봉래선원장 철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은사스님의 50주기 추모재에 동참한 사부대중에게 감사드린다"며 "대중을 외호하고 스님들의 수행을 위해 노력해 온 주지 진성 스님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바쁘신 중에도 멀리까지 다례재에 참석해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린다"며 "늘 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대중스님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수행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진각국사 탄신 846주년 추모 다례재

4월 18일, 화순문화원서



진각국사 혜심 스님 탄신 846주년을 맞아 추모 다례재가 봉행됐다.〈사진〉 사)진각국사선양회(대표 대현 스님)는 4월 18일 전남 화순문화원 들국화 강당에서 3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제19회 진각국사 탄신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대현 스님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진각국사의 숭고한 수행과 소통, 화합하는 정신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마이산 탑사, 갑진년 산신대재

복성산업개발 등 후원한
백미 3000kg, 진안군에



신비의 돌탑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2호로 널리 알려진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 스님)가 갑진년 4월 13일 탑사 경내에 마련된 특별법단에서 봄 마이산 산신대재를 봉행했다.〈사진〉

'마이산 탑사 자비의 백미를 붓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산신대재는 범종 타종으로 시작해 전북 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존회(회장 영산스님) 스님들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이어 (사)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은 ㈜복성산업개발, ㈜주일건설, ㈜혁신금속에서 후원한 이웃사랑 백미 10kg 300포대(3000kg)를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 박금태 회장과 함께 진안군에 전달해 신신대재의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는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 종회의장 법전 스님, 전북영산작법보존회장 영산스님, 태봉사 법진 스님, 천지사 현진 스님 등 영산작법보존회스님들과 금당사 주지 능엄 스님, 박금태 ㈜복성산업개발회장, 전문순 부회장, 윤금상 마이산탑사 신도회장, 안계현 진안군 안전환경국장, 김민수 진안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은 "마이산 탑사의 탑을 축조하신 이갑룡 어른께서 1885년부터 매년 음력 3월 9일과 10월 9일에 138년간 산신제를 봉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1962년에 촬영된 사진 속에 들어 있는 탑 1기를 최근에 복원하고 맞는 뜻깊은 날이기도 하다"며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있었기에 오늘 산신제가 더욱 기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밀양 표충사, 사명대사 춘계향사

불교·유교 재례형식으로
의승병 호국정신 되새겨



제561회 호국대성 사명대사 춘계향사가 열렸다.〈사진〉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 스님)는 4월 13일 경내 사당에서 임진왜란 당시 의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사명당 송운 대사, 청허당 서산 대사, 기허당 영규 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불교와 유교의 합동 향사를 봉행했다.

참석대중은 불교와 유교의 재례형식으로 봉행된 이날 춘계향사를 통해 왜군의 침략으로 절체절명의 국가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구국 3화상과 의승병의 호국정신을 되새겼다.

통도사 전 주지 원산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사명대사의 충효정신과 구국정신은 시공을 초월해 오늘날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한 귀의처가 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 부처님 법이 원융무애하고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본받아서 남북이 하루속히 하나 되고 세계가 평화롭고 중생이 행복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안병구 밀양시장도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한 사명대사의 위대함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며 "호국정신이 생생하게 녹아 있는 표충사 도량이 밀양시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수호 도량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고장의 큰 어르신인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앞으로 통일을 이루고 세계를 빛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 성주사 사부대중 삼보일배 정진

4월 13일, 화합·치유 염원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 스님)가 4월 13일 성주사 불모학당, 성주사 불교대학, 창원대 불교학생회 4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경내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 봄 삼보일배 정진을 진행했다.〈사진〉 삼보일배에는 국운 융성과 갈등과 분열로 치닫고 있는 현 사회의 치유와 화합 염원이 담겼다. 법안 스님은 "반야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수덕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법회

4월 15일, 1500여 명 동참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4월 15일 경내 대웅전 3층석탑 앞에서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의식에서 삼중사는 십중대계를 설했고, 참회진언 합송과 함께 스님들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수계자들에게 연비를 했다.

도신 스님은 "계를 잘 받들어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짓는 불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통영불교사암연, 봉축연등 점등

통영불교사암연합회가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연등 점등법회를 열었다.〈사진〉

통영불교사암연합회(회장 묵원 스님)는 4월 16일 통영시 항남 오거리 광장에서 부처님오신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통영시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는 봉축연등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통영사암연합회장 묵원 스님은 "인간 존엄과 상생을 실천해 각종 고통에서 벗어나 어두운 밤하늘에 형형색색 펼쳐지는 연등처럼 우리 사회의 슬픔과 어둠이 걷히고 상생의 등불이 비추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운사,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4월 13일 고창 선운교육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봉축탑과 가로연등 점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가로연등은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봉축 주제에 맞춰 제작됐고, 봉축탑은 선운사 대웅보전 앞 6층석탑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경우 스님은 "이 등불은 일체중생 모두가 부처님의 본성을 간직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등불이요,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사랑과 봉사를 다짐하는 원력의 등불이며, 불퇴전의 용맹심으로 대자대비를 실천하기 위한 정신의 등불"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공주불교사암연, 부처님오신날 점등법회

공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천산 스님)는 4월 13일 금강둔치 신관공원 내 미르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점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봉축탑은 국보 승격이 추진되는 마곡사 5층석탑 모형으로 조성돼 의미를 더했다. 법회는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과 사암연합회 장 천산 스님, 마곡사 부주지 태경 스님, 신원사 주지 성관 스님, 이종직 공주시 불자연합회장, 이윤진마곡사 신도회장, 최원철 공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천산 스님은 "안팎으로 어지러운 세상에 한마음으로 불을 밝혀 더욱 안정된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세종불교사암연, 부처님오신날 점등식 개최

세종불교사암연합회(회장 환성 스님)가 4월 17일 조치원역 앞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을 개최했다.〈사진〉

점등식에는 사암연합회장 환성 스님과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오영철 불교신행단체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환성 스님은 "등불에 불을 밝히는 점등으로 어두운 마음과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는 것이 진정한 점등의 의미"라며 "오늘 점등으로 모든 이의 마음에 불을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봉축법회는 5월 11일 오후 3시 조치원역 광장에서 열린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곡성 태안사, 효잔치 산사음악회

곡성 태안사(주지 각초 스님)는 4월 13일 경내에서 '공양미 삼백석 효잔치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최근 보물로 승격한 일주문과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곡성군 내 어르신들을 초청, 식사 대접과 산사음악회, 공양미를 전달했다.

각초 스님은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도량 태안사는 천 년 전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셨던 혜철선사, 도선 국사의 뜻이 오늘날에도 실현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각초 스님은 문화재청장을 대신해 이상철 곡성군수로부터 일주문 보물 지정서를 전달받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겁외사, 백련문도회 방생법회 봉행

백련문도회가 4월 14일 경남 산청 겁외사(주지 일학 스님)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겁외사는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퇴옹당 성철 대종사의 생가터에 건립된 사찰이다.

겁외사 회주 원택 스님은 "올해는 태옹당 성철 종정예하의 탄신 112주년을 맞고 열반 31주기가 되는 해이다"며 "그동안 코로나19로 방생법회를 못하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많은 불자가 동참해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경호강으로 이동한 사부대중은 방생의식을 봉행하고 붕어와 잉어 치어 3000마리를 방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印 구자라트 주정부 "불교·힌두교 별개"

인도 헌법에 종교 자유 보장 강조
개종 대한 법적 절차준수는 필요
공식적 고지에 현지 불교계 환영
"불교는 힌두교 하위종교 아냐"

박영빈 객원기자


구자라트에서 열린 집단 개종식의 모습. 사진출처=인디안 프레스

인도 구자라트 주정부는 최근 "불교가 별도의 종교로 간주돼야 하며 힌두교에서 불교로 개종하기 위해선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한다"는 관보를 고시해 화제다.

현지 불교계에서는 불교를 힌두교의 분파로 간주하던 지역사회에서 불교계의 위상이 바로 서는 일이라고 환영했다. 이 놀라운 소식을 4월 11일 인도의 '더 인디안 프레스', '힌두스탄 타임즈'등 현지 주요언론들이 대서특필했다.

지난 4월 8일 인도 구자라트 주정부 내무부에서 고시한 관보 〈힌두교에서 불교, 시크교, 자이나교로의 개종 허가에 관하여〉는 주정부가 공식적으로 힌두교에서 불교로의 개종을 허가하고 있으나, 지역 치안판사들이 그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통보했다. 비자이 바데카 내무부 차관의 명의로 발표된 고시에서는 "2003년 구자라트주에서 제정된 '구자라트 종교자유법'과 의거하여 불교는 힌두교와 별도의 종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구자라트 주정부 관계자는 고시에 대해 "인도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개종에는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나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사기, 협박, 금전 갈취 등에 의한 강제 개종의 위험에서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구자라트 종교자유법은 헌법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보장하기 위한 법이나 일부 지역 치안판사들과 행정관들이 힌두교에서 불교로의 개종에 대해 법과 그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면서 "이에 공식적인 고시를 통해 해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고시에서는 "종교개종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 법률 조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답변을 하게 되면 사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법률 집행자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현지 불교계는 고시에 대해 즉각 환영을 밝혔다. 현재 구자라트주에서는 불가촉천민인 달리트(Dalit)를 중심으로 불교로 개종하는 경향이 강하며 '구자라트 불교 아카데미(GBA)'가 정기적인 불교 개종식을 봉행하고 있다. 라메쉬 반케르 GBA 사무총장은 "이 고시는 불교가 힌두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별도의 종교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우리는 항상 불교는 힌두교의 일부가 아니며, 불교로 개종하려는 이들을 위해 규정된 법적형식을 따라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일부 지역판사와 행정관들이 불교를 힌두교의 분파나 하위 종교로 이해하고 개종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오해가 지역사회에 만연했다"면서 "이번 고시는 그동안 주정부의 해명을 발표해달라는 불교계의 오랜 요구가 이행된 것"이라며 기쁜 마음을 내비쳤다.

GBA 측에 따르면 2023년에는 주로 달리트를 중심으로 구자라트 주에서만 최소 2000명이 불교로 개종했다. 2011년 인도에서 실시된 인구조사에 따르면 구자라트에는 3만483명의 불교도가 있으며, 이는 구자라트 전체 인구의 0.05%에 해당한다. 그러나 구자라트의 불교계는 인구 조사관들이 그들을 힌두교도로 기록하기 때문에 실제 불교도 수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中 '댐 건설'로 티베트 사원 무력 이전 논란

이주 작업 착수…문화재 보존 방안 등 무대책

중국 당국이 청해 티베트 자치주 하이난 지역에 위치한 19세기 티베트 불교사원 이주를 시작했다. 문화재 보존 방안 등에 대해서는 무대책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4월 12일 라디오자유아시아(Radio Free Asia, 이하 RFA) 보도에 따르면 아촉곤 데첸 죄코링 사원은 지난해 중국 문화재청 명령에 따라 이주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 당국은 이 사원이 위치한 자낭현(扎囊县) 드리추강 인근에 3D 프린팅 수력댐을 건설 중이다. 이 댐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해 건설 중이며, 댐의 첫 구간은 높이 약 150m에 이른다. 완공되면 지역의 수력 자원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당국은 내다봤다.

중국 당국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주비 지원 등을 약속하며 이주를 명령했지만, 1898년 창건된 이 사원의 문화적 가치 보존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속스님들의 거주처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 사원에는 160여 명의 스님이 머물고 있다. 특히 사원 주변의 벽화와 부도탑 등은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파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사원스님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이주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명령에 응하지 않을 시 처벌하겠다고 엄포한 상황이다.

RFA는 "사원 이주에 대한 반대 운동이 있었으나, 중국 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이주를 추진했다"며 "자낭현에서는 드리추강에 대한 댐 건설에 대한 시위로 인해 1000명 이상의 스님과 주민들이 체포됐었고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구금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 정부의 민족 및 종교 말살 정책인 이른바 '중국화 정책'과 관련한 압박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국제적십자위원회 '불교와 국제인도법'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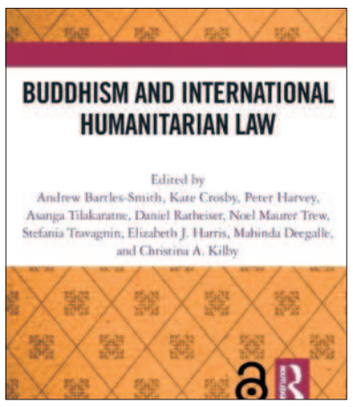
충돌서 불교 가치 실천 사례
국제적십자위원회 주도 발간

폭력을 피하는 방법에 관한 불교의 사례와 저술은 풍부하지만, 실제 무력 충돌 중 불교의 가치를 실천하고 행동을 규제하는 방법을 조사한 사례는 거의 없다. 최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불교와 국제인도법〉을 출간하며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주요 불교학자 및 실무자들의 공동 주도로 발간된 이 책은 국제인도법을 강조하고 강화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무력충돌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불교적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저술자 중 한 명인 위띳 분따르보른 태국 출라롱콘 대학 명예교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교가 완전히 반전적이고 군대를 혐오하는 것처럼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불교는 방어 또는 보호를 위해선 전쟁이 때때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평화의 종교로 알려진 불교에도 전쟁수행에 대한 메시지가 있지만 불교에 뿌리를 둔 연민, 자비, 관용의 개념은 국제인도법의 핵심 원칙을 뒷받침함으로써 적대 행위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불교와 전쟁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돼 왔고, 진행 중인 전쟁에서의 불교 역할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에 출간된 〈불교와 국제인도법〉은 불교 윤리의 기본 원칙이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매우 유사하게 교전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해악과 자신에게 미치는 인과적 결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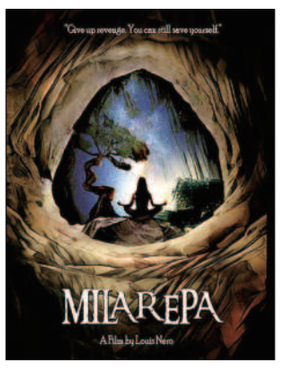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 발간한 〈불교와 국제인도법〉. 사진출처=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국제문제부 소속이자 이 책의 공동 편집자인 다니엘 라세이저도 "불교와 국제인도법 모두 갈등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줄이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불교 윤리는 국제인도법의 규칙과 광범위하게 일치하며, 불교의 심리학적 자원은 국제인도법이 강조하는 인도주의 규범 준수를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책에는 불교 윤리 원칙과 군사 훈련에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군인들에게 제공돼야 하는 불교 가르침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소개하고 있다. 불교를 종교로 가진 전투원들이 불교적 이상과 인도주의적 이상을 군사적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도 담겼다.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 고승 이야기 영화로 만난다

밀라레파·마르파 로츠 일생 다룬
영화 '밀라레파' 최근 제작 마쳐



영화 '밀라레파' 포스터. 사진출처=버라이어티

티베트 불교의 고승 젯선 밀라레파(Jetsun Milarepa)와 마르파 로츠와(Marpa Lotsawa)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가 개봉된다.

미국의 연예 전문 잡지 버라이어티(Variety)에 따르면 11세기 티베트 불교 인물인 밀라레파와 마르파 로츠와의 삶을 다룬 영화가 제작을 마치고 곧 개봉될 예정이다.

'밀라레파(Milarepa)'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이탈리아의 영화감독 루이스 네로가 각본과 연출을 맡았으며, 획기적인 캐스팅으로 벌써부터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티베트인 배우를 캐스팅하는 대신 '레 미제라블'에 출연한 배우 이자벨 알란이 밀라레파로, '아이리시맨'에 출연한 하비 카이텔이 마르파 로츠와로 각각 분했다.

밀라레파는 11세기 티베트의 고전주의 시인, 성인, 스님이자 티베트 불교에서 '대성인'을 의미하는 마호통(Mahasiddha)으로 티베트 불교의 가장 덕망 높은 스님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원래는 흉악범이었으나 훗날 이를 참회하며 불교에 귀의했다. 또 마르파 로츠와는 '큰 완성자'를 뜻하는 마하살립(Mahasiddha)으로서 밀라레파의 주요 스승이자 선견자이다.

이 영화는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섬 사르데냐에서 대부분 촬영했다. 또 과학 판타지 장르 중 하나로, 과학 기술의 발전이나 혁신을 배제하고 기술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상력을 구현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


원불전


법당특별장엄등

장엄등 절찬 판매


만월등


도량장엄등


인 등


위 패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www.boryeon.com 시공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Instagram NAVER 블로그 검색 : 보련기획

고려불화와 2340시간…“삶 방향 정한 시간이었죠”

문화人 동국대 불교미술학과 20학번 김성문 작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10개월 간 2340시간 졸업작품 몰입
‘미륵하생경변상도’에 현대美 눈길
경전 공부하며 손상 부분은 재해석
“불화는 인공지능 대체 못할 예술”
한국 불교미술 널리 알리는 게 꿈

지금으로부터 670여 년 전 고려시대 때 제작된 ‘미륵하생경변상도(彌勒下生經變相圖)’. 미륵불이 부처님 열반 후 56억7000만년 후 세상에 내려와 세 번의 설법회를 열고 남은 중생을 구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불화는 고려왕실 주문 요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합작해 탄생됐다.

이런 역사적인 불화를 불교미술을 전공한 2001년생 미대생이 2024년 버전으로 모작, 재탄생시켜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동국대 불교미술학과 20학번 김성문 작가. 김 작가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무려 2340시간을 작업에만 몰입, 졸업작품을 완성시켰다.

가로 140cm, 세로 230cm 크기로 그린 이 불화는 연필 스케치에만 2개월, 붓으로 초안을 그리는데 1개월 이상이 각각 소요됐다. 초안을 선지에 옮겨 그리는데 1개월, 이후 채색은 3개월 그리고 선을 넣고 세부적인 문양을 그려 넣는데 2개월. 그렇게 장장 10개월 동안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작업에 몰두한 결과 탄생할 수 있었다.

김 작가는 최근 지난 10개월간의 졸업작품 제작과정을 1분 가량의 영상으로 편집, 자신의 유튜브 채널(ARTUBE_불교미술)에 올렸다. 이 영상은 불과 한 달여 만에 600만 이상의 조회수를 달성했고 구독자 1만명을 모으는 등 인기몰이 중이다. 특히 문화재청 공식 계정에서도 댓글을 달고 응원하면서 더욱 화제가 됐다.

4월 16일 인터뷰를 위해 서울 성북동 한 카페에서 만난 김성문 작가는 “얼떨떨하다”고 말했다. 애초에 유튜브로 ‘히트’ 치겠다는 생각으로 올린 영상이 아니었기에 열화와 같은 반응이 부담스러울 정도라는 것. 하지만 “한편으로는 작품에 관심을 가져주는 감사함 역시 크기에 할 수 있는 한 댓글과 답변 영상 등을 통해 그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려시대 제작된 ‘미륵하생경변상도’는 손상된 부분이 많아 모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 불화를 졸업작품으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구성요소의 다양함과 재해석에 대한 욕구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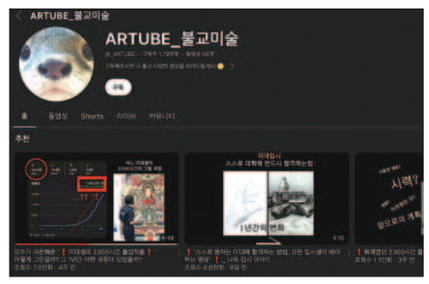
“학부에서 배운 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선보여야 하는 것인데, 쉽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성격이 완벽주의에 가깝기에 재미없이 하다가는 금방 지칠 것 같았거든요. 작업 기간은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게 해줬을 뿐 아니라 삶의 방향도 설정해준 시간이었죠.”



지난해 11월 열린 졸업전시회에서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함께.

김 작가는 “어려운 작업을 스스로 선택했으니 완성도 높은 졸업작품을 선보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각종 자료를 찾아 비교 분석하고 경전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이목구비부터 풍경묘사, 전각 구조는 물론 현대의 미 기준에 맞게 투시와 문양을 치열하게 고민했고 재해석을 통해 작품을 완성했다.

특히 입체감을 위한 명암 작업에만 한 달 이상을 몰두했다. 김 작가는 빛과 어둠으로 인물의 내면까지 표현한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를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 꼽을 만큼 명암법에 관심이 많다. 전통 불교미술에 명암법으로 변화를 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앞으로 불화를 기반으로 명암을 활용한 다양한 일러스트 작업도 해보고 싶다”면서 “꾸준히 작업을 하다 보면 작품을 알아봐 주는 이가 있지 않겠느냐”고 웃었다.



김성문 작가의 유튜브 채널 ‘ARTUBE_불교미술’. 한 달 사이 1만명 넘는 구독자가 생겼다.



올해 2월 졸업한 김 작가는 여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최근 인공지능(AI)이 그림과 사진을 빠르게 창조해 그리는 상황에서 불화 작가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작가는 “프린트된 부처님을 예경하고 절하고자 하는 불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예경의 대상인 불교미술은 신앙을 아는 사람이 직접 그림으로써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돌을 갈아 만든 색과 금을 쓴 부분에서 나는 빛에서 느껴지는 감동은 인공지능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예술의 경지”라고 말했다.

2월 졸업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잠시 휴식기를 가졌다는 그는 최근 다시 방안지를 펼치고 작업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방 안의 물건들을 정리한 것. 작업실이 없다 보니 그리 크지 않은 자취방에 방안지와 흰 천을 펼쳐야 했고 한쪽 벽면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작업을 다시 시작하며 원을 세우기도 했다. 기존 불교미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가로 20대에는 5000시간을 몰두한 작품을, 30대에는 1만 시간을 투자한 대규모 작품을 선보이겠다는 목표다. 유튜브로 유명세를 얻은 후 여러 분야에서 협업 요청이 오고, 진행 중인 일들도 있지만 작가로서 하던 일을 먼저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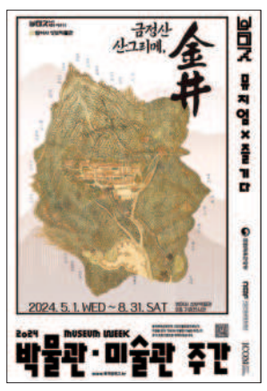
김성문 작가는 올 여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앞두고 있다. 그는 “복무를 충실히 하면서도 작품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체 불가한 불교미술 작품으로 한국의 불교미술을 널리 알리는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범어사성보박물관 ‘금정산 산그리메, 金井’

5월 1일 개막…자연과 삶 주제
‘금정산 산만디 걷기’ 운영도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이 ‘금정(金井)’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특별전시 ‘금정산 산그리메, 金井’을 개최한다. 개막식 행사는 5월 1일 오후 2시 박물관 2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전시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이번 특별전시 ‘금정산 산그리메, 金井’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우리의 삶이 주제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2024.5.2.~5.31.)’의 주요 프로그램 가운데 ‘뮤지엄×즐기다’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범어사성보박물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부산의



진산(鎭山), 금정산 자락에 위치한 사찰박물관이라는 특성을 활용했다. 생태계 동식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금정산과 함께 만들어진 금정의 역사와 문화를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특별전시를 기획했다.

이번 전시는 자연과 교감하는 역사, 문화를 통해 일상에서의 쉼을 전달한다. ‘그리메’는 그림자를 뜻하는 옛말로 산그리메는 산 정상에서 만나는 풍경이다. 산등성이가 겹치고 포개져서 만들어진 장관을 뜻한다. 전시에서는 금정산을 터전으로 살아온 생태계 동식물이 만들어낸 산그리메 위에 역사와 우리의 삶 등 문화를 엮었다.

전시는 전체 3부로 역사적 유물과 기록물, 사진 등을 통해서 금정산 호국사찰 창건의 역사와 금정산성을 지켰던 승영사찰로서 범어사, 국청사, 해월사를 선보인다. 조선시대에 금정 지역을 지나간 문장가들의 시도 관람하며 그 속에 담긴 ‘금정(金井)’을 만날 수 있다.

한편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는 특별전시 ‘금정산 산그리메, 金井’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금정산 산만디 걷기’를 5월 4일 진행할 예정이다. ‘금정산 산만디 걷기’는 자연탐방 플로깅 프로그램으로 자세한 공지는 범어사 성보박물관 홈페이지(www.beomeomuseum.org)에서 확인가능하다. 051-508-6139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누비 대중화 앞장선 김해자 누비장 보유자 별세

1970년대 왕실 침방 나인이었던
선복 스님에게 바느질 · 누비 배워



전통 누비의 명맥을 이어오며 대중화에 앞장서 온 김해자 국가무형문화재 누비장 보유자<사진>가 4월 13일 별세했다. 향년 71세.

일평생을 전통 누비 기법의 보존과 전승에 헌신한 김해자 누비장 보유자는 어려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바느질 기초를 배웠다. 중학교 졸업 후인 197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옷 만드는 법을 익혔다. 조선시대에 침방 소속으로 바느질하던 나인이었던 성옥염 씨와 선복 스님에게 바느질과 누비를 배웠다.

1980년대 초 15년간 경상북도 창녕에서 살면서 누비에 전념, 다수의 제자를 길렀다. 박물관 유물과 구전으로 전해진 전통 기법을 아는 이들을 찾아가 배우는 등 명맥이 거의 끊긴 전통 누비를 되살렸다.

전통 누비를 되살린 장본인이자 전통 누비 기법의 보존·전승활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2년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1996년 누비장 보유자가 됐다. 2000년대 들어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중국 북경 등에서 초대전 등 여러 차례 전시를 여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문화재청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전시에도 작품을 출품하면서 누비옷 대중화에 앞장섰고, 일평생 누비 제작의 문화재적 가치를 선양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고인을 기렸다.

임은호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17~4/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열반경(2)개역본한글대장경	이운허 옮김	동국역경원	6	도표로읽는천수경입문	목경찬	민족사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담마빠다(법구경)깨달음의노래	이중표 역주	불광출판사
3	초발심자경문(강설)	지묵	우리출판사	8	영화스님의선명상	영화 스님	운주사
4	육조단경	청화 역주	광륜출판사	9	불교개론:공부인을위한불교안내서	조계종 교육원	조계종출판사
5	불교입문(조계종신도교재1/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10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책세상

‘어머니’라 쓰고, ‘부처님’이라 읽다



모정불심
박원자 지음
조계종출판사
1만9000원

스님, 재가자 28인의 절절한 사모곡
현대불교신문 인기 연재시리즈 묶어
좋은 부모는 어떤 삶 사는지 보여줘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통도사 백련암에 주석하고 있는 원산 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은 19세에 말없이 집을 나왔고, 보름만에 다시 집을 찾아 출가의 뜻을 밝히고 불문에 들었다. 이후 원산 스님의 어머니는 스님을 다시 찾지 않았다. 묵묵히 자신의 현재에 충실할 뿐이었다. 농사를 지으며 아들 셋, 딸 다섯을 교육시키고 시집 장가를 보냈다.

대강백 관응 스님에게서 전강을 받고 강주의 자리에 오르고, 통도사라는 대찰의 주지를 맡아도 어머니는 원산 스님을 찾아가지 않았다. 스님의 어머니는 자녀들의 효도를 받으며 9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돌아가시기 한 해 전, 자신을 보러온 아들스님에게 이같이 고백했다.

“스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말도 없이 집을 나갔을 때, 매일 저녁 동네 정류장으로 나가 기다렸어. 막차가 들어올 때까지.”

행여 자식의 마음이 상할까봐 걱정했던 구순 노모의 뒤늦은 고백에 원산 스님은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뛰어난 수행자들에게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기 마련이다. “신은 세상에 고루 존재할 수 없어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출가수행자들의 생애와 수행에 대한 글을 30년 이상 꾸준히 써온 박원자 작가가 ‘좋은 어머니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화두를 들고 여러 스님과 수행자들을 찾아 질문하고 얻은 귀한 가르침을 책으로 펴냈다.

박 작가의 저작 〈모정불심〉은 현대불교신문에서 1년 6개월을 인기리에 연재했던 시리즈를 묶은 것으로 스님과 재가수행자 28인의 사모곡이 담겼다.

저자는 대학시절 불교에 입문한 뒤 꾸준히 마음공부를 했는데, 부모가 되자 개인으로서의 수행과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의 수행이 많이 다르단 걸 깨달았다. 그때부터 스님들과 인터뷰를 할 때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히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어떠한 어머니였기에 저리도 훌륭한 수행자를 자식으로 두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떠나보낸 걸까, 그 후의 삶은 어땠을까’ 하며 스님 뒤의 어머니란 존재가 궁금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잘 살아야 자식도 잘 기를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떠한 것이 지혜롭게 잘 사는 것인지”를 스님께 여쭙기 시작했다.

전 조계종 종정이자 ‘절구통 수좌’라 불릴 만큼 치열한 구도행을 펼쳤던 법전 스님, 전국의 제방 선원에서 54안거를 성만한 우리 시대의 대표 수좌 월암 스님 등을 비롯한 23인의 스님과 수행자 5인이 들려주는 ‘어머니’ 이야기는 묵직한 감동과 여운을 준다.

스님들에게 듣는 어머니 이야기는 곧 출가 이야기이기도 하다. 출가할 때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바로 키워주신 부모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연도 다양하다. 때로는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기도 하고, 따듯하게 위안받기도 한다.

어린 나이에 느닷없이 절에 맡겨지자 매일 인기척만 나면 달려 나갔다가 울며 돌아왔다는 법전 스님, 힘든 삶 속에서도 긍정의 힘을 잃지 않은 어머니를 보며 자비명상을 만들어낸 마가 스님, 앞서 소개했듯 막차시간까지 출가한 아들을 기다렸다는 원산 스님 어머니의 이야기는 출가로도 끊을 수 없는 애틋한 부모 자식의 정을 보여준다.

반면 출가한 자식을 놓지 못해 집착하고 괴로워했으나 아들딸스님보다 더 깊은 수행자로 거듭난 어머니도 있고, 자식의 출가를 적극 지원하고 축하해준 어머니도 드물지 않다. 딸 셋의 출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발심한 일진 스님 어머니, 아들과 딸 두 자식을 모두 출가시키고 더더욱 깊은 수행자로 사는 예진 스님과 경국 스님의 어머니, 사미계를 받고 인사차 들른 아들이 하루 자고 가려 하자 “스님, 견성하셨나요”란 한 마디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준한 스님의 어머니 이야기는 ‘중생 구제’의 큰 뜻을 품은 자식을 더 너른 품으로 보듬어주는 모성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애절한 스님들의 사모곡은 어머니는 결국 나의 부처님임을 알게 한다. 따스한 햇볕이 있기에 만물이 생명의 꽃을 피우듯 어머니는 우리의 육신과 인격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끄는 햇살과 같다.

‘어머니,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천수경 바른 이해 돕는 안내서



천수경, 의례로 읽기
이성운 지음
정우북스
1만5000원

한국불교는 ‘〈천수경〉 신앙’이라 할 정도로 〈천수경〉의 다라니 천수주(대비주)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다. 〈천수경〉은 천수다라니를 중심으로 의례에서 활용하는 것이지 상호 독립적인 의례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마치 〈천수경〉을 읽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과 같은 기분이 든다고 생각하는 불자들도 있다. 그래서 다른 경전과 의궤와 달리 〈천수경〉은 여러 의례에서 활용되는 것을 모아 놓아 사실상 연속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천수주 염송 이후 사방찬 도량찬을 하지만 사방으로 감로수를 쇄수도 하지 않고 쇄수했다고 이해하며 그래서 도량이 청량해졌다고 찬탄한다.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게 되어 일어나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에서는 일체를 마음으로 했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이 같은 문제는 “여러 의궤가 독송용으로 모여진 것을 〈천수경〉이라는 하나의 경전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사태”라는 게 이성운 동방대학원대학교수의 주장이다.

2011년 발간 저서 보완해 재발간
“의례로 읽을 때 천수경 이해돼”

이성운 교수가 발간한 저서 〈천수경, 의례로 읽기〉는 현행 한국불교의 〈천수경〉은 천수다라니행법, 도량엄정행법, 참회행법, 준제행법, 서원행법, 설단행법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의례’를 중심으로 풀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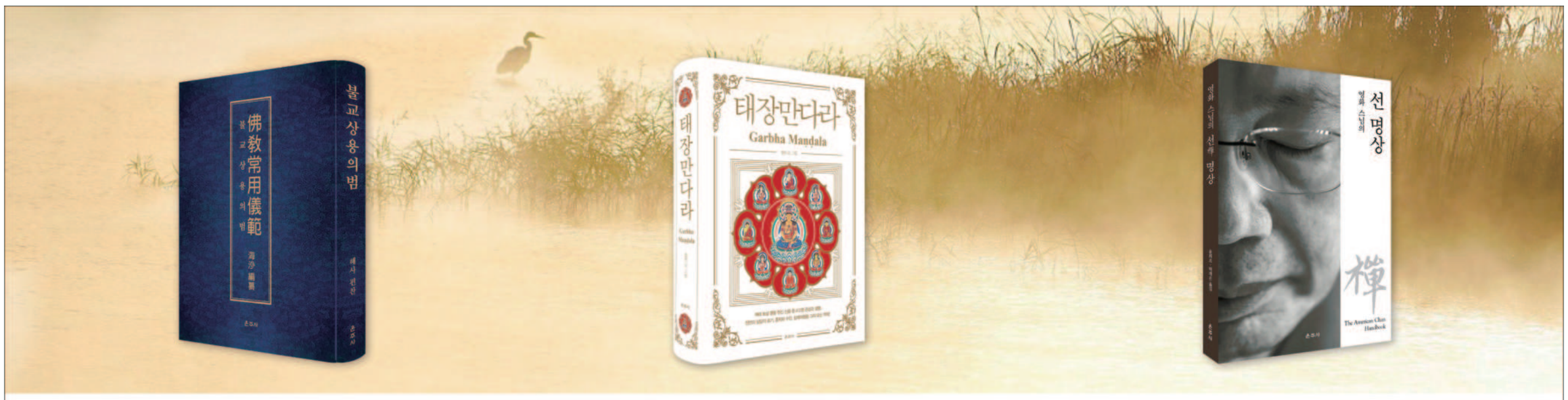
이성운 교수는 여러 행법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나눠보지 않고 연결해서 하나의 의례로 이해하다 보니 이상한 분과와 해석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책은 2011년 3월 정우서적에서 〈천수경, 의궤로 읽다〉라는 제목으로 첫선을 보였고, 14년만에 다시 세상에 내놓게 됐다.

앞선 책과 다른 점은 개경게와 준제행법을 보완하고 첫판에서 발생했던 오자 등을 교정하고 윤문했다.

이성운 교수는 개정판 서문에서 “의례의 정형화된 실천을 의식이라고 하는데, 한국불교의 ‘현행’ 천수경에는 적어도 다섯 종의 의식 행법(行法)과 서두 포함 최소 6종 정도의 의식 의문이 합해져 있다”면서 “천수다라니의 활용 관련 의례 의식의 의문이 합해져 있으므로 다른 의례 의식일 때는 달리 활용돼야 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읽을 때 ‘현행’ 천수경의 의미가 바르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설행하는 재 의식 총망라!
불교상용의범
조석예불과 사시마지, 각단 예경의식, 천도재나 각종 재회 시 설행되는 제반의식문, 각단에 올리는 불공의식문, 각종 시식과 영반 등 누구나 편리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편찬!
해사 편찬/사륙배판/양장/696쪽/값 50,000원

『대일경』에 근거한 태장만다라의 412분 존상을 재현!
태장만다라
중대팔엽원부터 외금강부원까지 12부원을 도상화하고, 412분 존상에 대해 의미와 형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진언과 실담 범자, 종자, 수인, 삼매야형 등을 부여.
법헌 글 · 그림/사륙배판/양장/688쪽/값 100,000원

혼자 명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서!
영화 스님의 선 명상
초심자를 위해 기초적인 앉는 자세부터 경험 있는 수행자를 위한 기본 마음가짐과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명상 안내서이자 지침서’이다.
영화 스님 지음, 윤희조, 박재은 옮김/신국판변형/무선/244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미국 명문대학 인정한 명품 불교명상법



스무 살의 마음연습
에릭 룩스 지음
미산 스님 외 3인 옮김
2만원

브라운대학서 인정한 명상법
'호흡마음챙김경'에 기반해 개발돼
카이스트 명상과학硏서 번역 참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해 8월 문경 세계명상마을에서 열린 '제2회 청년명상힐링캠프'에서 청년들이 명상을 체험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20대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전체 인생의 향방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학점 관리, 어학공부, 자격증 시험 등 치열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노력하고 애쓴 결과가 그만큼의 행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다.

미국의 대학생들도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미국 명문 아이비리그 브라운대학에서 마음챙김센터 소장으로 활동 중인 상담학자 에릭 룩스는 무엇이 총명하고 생동감 넘치는 젊은이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바로 '마음챙김에 기반한 대학생활(Mindfulness-Based College, 이하 MBC)'이다.

〈스무 살의 마음연습〉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연구와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대학생들이 신체적·심리적·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인식을 증진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더 나은 진로 선택, 학업 및 업무 성과 향상, 건강한 사회적 교류, 일상생활의 질을 높여 주는 실용적인 마음챙김 명상법으로써 'MBC'를 소개한다. 'MBC'는 2015년부터 브라운대 학생들이 직접 실천하고 인정한, 명실상부 대학생을 위한 최고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다.

'MBC'가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는 명상법들과 차별화 되는 부분은 불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MBC' 프로그램은 부처님이 개발한 16단계 호흡법을 기초로 한다. 〈호흡마음챙김경〉으로 알려진 고대 빠알리어 경전의 내용을 일반화·과학화해서 그 핵심 기법들을 반영해 놓았다.

MBC 프로그램은 크게 네 단계로 구성돼 있다. 이는 몸(신체적 감각)·가슴(정서)·마음(생각·의식)·온전함(실재의 본질)을 알아차리고 여는 것이다. 인간 경험을 이루는 전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이 네 영역을 열어젖히면, 마치 숙련된 자전거 정비사가 자전거의 모든 부분과 최고 성능을 위한 조립법을 알듯이 내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욕망을 직시하게 되어 나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이로써 세상이 말하는 대로가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명상 혹은 마음챙김 하면 '종교'를 떠올리거나 '깨달음'이라는 거대한 개념을 떠올린다. 그러나 이 책은 종교에 관한 것도 종교적 성취에 관한 것도 아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명상의 이로움인 집중·알아차림·감정 조절의 힘을 기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책의 번역은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소장 미산 스님)가 맡았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명상의 핵심을 전달하고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을 찾던 중 이 책을 발견하고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명상과학연구소는 "불안과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압박이 많은 현대생활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음챙김 명상을 사회 전반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며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마음챙김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주는 마음습관을 길러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엄마의 생생한 명상 실참기



명상하는 엄마
전현자 지음
담앤북스
1만5000원

바야흐로 명상 전성시대다. 최근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파민 디톡스'가 주목받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대표적인 해법 중 하나가 바로 '명상'이다.

〈명상하는 엄마〉는 명상전문가이자 선치료상담가인 전현자 씨가 아이들과 함께 명상하며 체득한 명상법을 소개하는 책이다. 20대 무렵부터 명상서적을 탐독하며 수행하는 삶을 동경했던 저자는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본격적으로 명상을 배우기 시작해, 쌍둥이 아들도 명상의 길로 이끌었다. 현재 저자는 명상전문가로, 아이들은 직장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명상을 안내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과 아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상은 어렵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걷거나 눕거나 밥을 먹거나 누군가를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사찰과 기업, 병원 등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명상으로 마음은 물론 몸의 아픔도 치유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1부 '명상하는 엄마'는 저자의 '수행이력서'다. 20대에는 '이 뭐꼬' 화두를 참구하며 큰스님들을 찾아가 배움을 청했고, 30대부터는 IMS(통찰명상협회)와 고엔카센터, 빤디따라마 명상센터, 쉐우민 명상센터 등에서 수행했다.

2부 '명상하는 아이들'은 쌍둥이 자녀의 성장기다. 5살부터 엄마 손을 잡고 명상센터에 다닌 하늘과 가람이는 초등학교 졸업 후 미얀마에서 단기 출가를 결심해 엄마를 깜짝 놀라게 했다. "저녁밥도 안 먹고 게임도, 축구도 안 하는 스님들에게 어떤 비밀이 있기에 저렇게 행복한지" 알고 싶어서 출가를 결심한 것이다. 이후로도 꾸준히 명상하며 불교학 석사 학위까지 취득한 하늘이는 현재 구글 법무부서에서 일하며 동료들에게 명상을 안내하고 있다.

3부 '명상하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의 행복을 위해 명상하는 이웃들의 이야기다. "명상하면 꿔 준 돈도 받을 수 있을까"하고 명상센터의 문을 두드린 70대 할아버지부터 몸을 치료해주는 의사에서 마음을 치유해주는 활동가가 된 마음복지관 홍두호 사무국장, 대기업에 근무하다 암을 겪으며 명상을 만나 코칭과 심리전문가로 인생 2막을 살게 된 김창동 씨 등의 사연이 눈길을 끈다.

4부 '명상하는 당신'에는 독자들을 명상의 길로 안내하는 아포리즘을 담았다. 저자는 짧은 글을 통해 화가 날 때, 후회스러울 때, 명상하다 딴생각이 들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질 때, 어떻게 해야 알아차림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알려준다. 신중일 기자

새로 나온 책



금강반야바라밀경 역주
양지 스님 역주/ 남청/ 3만원

김해 신흥사 주지 양지 스님의 열 번째 선서(禪書)로,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에서 깨달음과 소승, 대승, 최상승의 문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인 소승(성문·연각·보살)의 수행자는 〈금강경〉을 읽을 수도 들을 수도 없고 타인을 위해 설할 수도 없음을 밝혀내고 있다.



대숲오솔길
혜륜 스님 지음/ 도서출판 문심/ 1만원

대한불교승가종 원로회의 의장 혜륜 스님의 11번째 시집이다.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스님은 1969년 대한불교 신춘문예 수필 부문에, 1995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시조부문에 당선되며 시조시인으로 활동해 왔다. 2012년에는 성파시조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혜륜 스님은 "할 말은 이미 시로 다 썼는데 뭐 더 할 말이 있겠는가. 무사히 사바의 강을 건너가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부처님 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진원 스님 지음/ 마음출판/ 1만3000원

안동의 암자에서 수행 중인 진원 스님의 저서다. 스님은 "장대한 부처님의 팔만사천대장경을 여덟 글자로 요약하면 '마하반야 바라밀다'이고, 팔만사천대장경을 한 글자로 요약하면 마음 '심'이 된다"며 사유와 수행의 단상들을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다. 무엇보다 스님은 "나는 부처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지속가능한 리더십
앤디 하그리브스 · 딘 핑크 지음
정바울 외 3인 옮김/ 살림터/ 2만1000원

〈지속가능한 리더십〉은 미국 교육학자 앤디 하그리브스와 교육 컨설턴트 딘 핑크의 두 사람의 학문적 지식과 컨설팅 경험이 응축된 결정판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모든 학생에게 도움이 되고 지속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면 지속가능한 리더십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눈앞에 있는 변화가 바람직한 변화인지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과제는 현실적인 실행이 가능한 변화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과제는 변화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이 책에서는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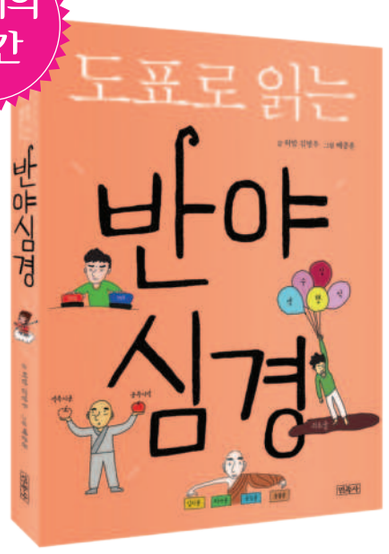
남도 명량의 기억을 걷다
이돈삼 지음/ 살림터/ 1만7000원

〈남도 명량의 기억을 걷다〉는 1597년 8월 3일(음력) 삼도수군통제사에 재임명된 이순신이 조선수군을 재건하며 명량대첩에 이르는 44일의 여정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늦여름에서 스산한 가을에 이르는 '남도 이순신길-조선수군 재건로'에서 우리는 당시의 긴박한 상황과 마주한다. 육로와 바닷길을 따라가노라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하나가 된 이순신과 조선수군의 거친 숨결이 훅 끼쳐오는 듯하다. 탄식과 설움에 겨운 울음소리와 함께 남도의 많은 전쟁터에서 여러 형태로 구국의 길을 걸었던 남도인들의 의로운 투쟁의 흔적이 사무치게 다가온다.

가장 간결한 260자의 불교 철학

『반야심경』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핵심 사상인 공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

화제의 신간



도표와 함께 읽으면 반야심경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산스끄리뜨본, 한역본, 에드워드 콘즈의 영역본을
비교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반야심경』은 자주 접하는 경전이지만
막상 내용을 모르거나,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돼서
차마 주변에 물어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명료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글 김명우 · 그림 배종훈 | 280쪽 | 18,500원



도표로 읽는 시리즈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이자랑 · 이필원 그림 배종훈 / 13,800원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글 안환기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글 법상 · 그림 용정운 / 15,000원



도표로 읽는 부처님의 생애
글 묘장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글 정운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글 목경찬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지상백고좌

한산사 용성선원장 불이 월암 스님

“‘견성성불 요익중생’은 활발발한 동사다”



월암 스님은… 1973년 경주 중생사에서 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전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후 중국과 한국의 제방 선원에서 수선 안거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벽송사와 기기암 선원장 소임을 지냈다. 지금은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에서 정진하며 사부대중 수행공동체 ‘불이선회(不二禪會)’를 이끌고 있다.
저서로는 〈간화정로〉 〈돈오선〉 〈친절한 간화선〉 〈선원청규(주편)〉 〈좌선요결〉 〈니 혼자 부처 되면 뭐하노〉 〈생각 이전 자리에 앉아라〉 등이 있다.

백두대간이 숨가쁘게 달려오다 잠시 걸음을 멈춘 곳이 운수산이다. 골이 깊고 높아 운수산의 봄은 더디게 온다. 온몸으로 봄을 꽃피우는 산에도 겨울의 생채기는 남아있다. 여기 저기 가로로 길게 누운 설해목이 보인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쓰러진 설해목을 보면서 눈처럼 작고 가벼운 허물도 켜켜이 쌓이면 해를 입힌다는 가르침을 온몸으로 말해준다.

한산사를 품고 있는 운수산은 오랜 세월 운수납자가 깃들기를 기다렸다. 어쩌면 용성선원이 세워지기를, 월암 스님을 기다렸는지 모른다.

문경 한산사의 용성선원장 불이 월암 스님을 찾아뵈었다. 먼저 한산사의 의미가 궁금하다고 했더니 ‘한산(寒山)’이라는 의미가 ‘참선 수행자들이 수행을 통해서 일체 망령을 다 끊어버린 경지’라고 한다. 스님은 “그것은 도인의 경지인데, 의지와 뜻만 클 뿐”이라며 웃었다.

이어 ‘용성’의 의미가 궁금해졌다. “용성 스님을 수행의 사표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용성 스님은 절집 족보로 따지면 저에게 상노스님이지요. 제가 용성 스님의 증손 상좌입니다. 용성 스님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으로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킨 분입니다. 신불교 운동을 하신 분으로 그 당시에 풍금을 갖다 놓고 법회를 볼 정도로 앞서가는 분이었어요. 또 많은 경전을 한글로 번역했어요. 지금 조계종의 스님들 중 3분의 1이 용성 스님 문도들입니다. 용성 스님의 정신이 대각사상이기에, 용성 문도들이 모여 대각회와 대각사상연구원도 만들었습니다. 용성 문도 가운데 우리 은사스님과 우리 사형사제들이 가장 용성 스님을 선양하는 편입니다.”

월암 스님은 경주 중생사에서 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고,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전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은사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는지를 물었다.

“은사스님이 굉장히 엄격하신 분인데 우리 상좌들에게 제일 많이 하셨던 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잘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도를 어떻게 깨달으려고 하는가’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지요. 귀가 아플 정도로 많이 들었던 말인데, 그때는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나도 언제부터인가 내 상좌들에게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월암 스님은 중학교 1학년 때 발심하여 자발적으로 출가했다. 처음으로 불교학생회 선배들을 따라 법회에 간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나는 무엇을 말하고,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제 도를 생각하리라. 나는 무엇을 말할까 도를 말하리라. 나는 무엇을 행할까? 도를 행하리라. 도를 생각하는 마음 잠깐인들 잊으리까.”

법상에 오른 스님의 이 말씀은 어디에서도 들어본 일이 없었다. 평생 처음 들은 이 법문에 가슴이 먹먹했다.

“대장부로 태어나서 도를 생각하고, 도를 말하고 도를 행하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겠구나. 그렇게 살다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한마디에 바로 그 자리에서 ‘스님 저 출가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전생의 인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절에서의 현장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부모님은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야 알게 되었는데, 절에서 공부하고 절에서 공

불교, 지혜 · 자비 바퀴로 가는 수레
“중생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견성성불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허물어지면
선방에서 수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견성, 삶 속에서 동사로 구현돼야 한다

납금도 대준다고 하니 그냥 마음 놓고 있었지요.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깊숙이 들어가 버렸으니 어쩔 수 없었지요.”

월암 스님은 중국에서 3년 동안 옛 조사스님들이 깨달음을 펼친 선종 사찰을 순례했다. 옛 선사들의 이야기를 즐겨 읽은 불자라면 궁금해할 것 같아 중국 순례기를 듣고 싶다고 청했다.

월암 스님은 중국의 조사들을 공부할 때면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늘 동경했다. 중국에 가서 옛날 조사스님들의 행화한 도량을 참배하고, 그곳에서 안거도 하고 싶은 꿈이 있었다. 약 3년 동안 중국에 머물면서 조사들의 행화지를 찾아 중원 천하를 주유했다. 문화혁명으로 불교가 형편없이 타격을 입었고, 그때 많은 스님이 속퇴했다. 반대로 더 깊은 산으로 숨어들어간 스님들이 있었기에 산속에 가면 노장스님들을 만날 수 있었단다.

“제가 건너갔을 때는 중국 전체 선원이 6개 정도 있었고 또 거기에 방장스님들도 있었어요. 유명한 허운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의 제자들이 다 방장을 하고 있었고, 이들에 의해 불교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같이 안거도 하고 가르침도 받았지요. 조사스님들의 행화지 백여 군데를 조정하면서 어떤 때는 노장스님의 강의를 듣기도 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교통이 좋지 않아 고생도 많이 했어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또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세내어서 타고 다니기도 했지요.”

우리가 〈전등록〉에서 읽은 그런 전통이 남아있는지, 중국 사찰의 분위기가 궁금해졌다. 이에 월암 스님은 “중국 선원은 일정이 매우 타이트하다”고 했다.

“우리는 선농일치(禪農一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농선(農禪)이라 해요. 농선 화풍이 살아있기 때문에 산속에서 노동도 많이 해요. 한국스님이니 보는 눈이 있어 모범적으로 살았어요. 그때 많이 힘들었지만, 젊은 나이에 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벌써 30~40년 전에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요.”

월암 스님은 북경대 철학과에서 선종사를 전공했고 〈돈오선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백여 개의 사찰 조정을 마치고 중국의 불교학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학문과 실천이라는 두 능력을 다 갖추는 것이 좋겠다면서 중국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권했다. 월암 스님도 조사스님들의 행적을 쫓는 공부는 어느 정도 마쳤으니 학문적으로 정립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작한 공부였는데 끝을 맺는데 7~8년이 걸렸다.

중국에서 돌아온 후 벽송사에서 가르침을 폈다. 지리산 벽송사에서 백송선회를 열어 많은 스님들과 제가불자들에게 실천과 선사상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벽송선회의 전통인 선교겸수(禪教兼修)는 선풍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월암 스님은 선종사와 간화선을 점검하고 실참을 통해 수행자의 바른 행을 점검하는 선회를 4년간 진행했다. 월암 스님은 유일하게 벽송사에서 주지소임을 맡았는데 주지소임은 빵점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월암 스님은 〈돈오선〉 〈친절한 간화선〉 〈전등수필〉 등 책도 여러 권 출간한 바 있다. 선교겸수의 중요성을 여러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물었다.

13면에 계속

흔들림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
나보다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남긴 글,
한시(漢詩)에서 발견하다
불교계 대표 문장가이자 한문학에 정통한 원철 스님이
한시에서 길어올린 ‘언제든 나의 중심을 잡아줄 삶의 지혜’
아주 오래된 시에서 찾아낸 삶의 해답
혼자라도 걱정 않는 삶
원철 지음
264쪽
18,000원
한시는 단순한 ‘시’가 아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의 손을 거쳐
기록되고 가슴에 새겨져서 전해진
이 짧은 글 속에는 당대의
사상가와 문장가들이 남긴,
시간을 초월하여 곱씹을 만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
법정 스님의 뒤를 잇는
불교계 대표 문장가 원철 스님이
한시 가운데서도 명구만 가려뽑았다.
한국·중국·일본이라는 지리적 차이와
승속을 막론하고 옛 문헌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던 한시를 찾아
핵심 구절만 옮기고
새롭게 이야기와 의미를 더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미국 아이비리그 브라운대학교
학생들이 선택한
마음챙김 명상의 마스터클래스!
스무 살, 명상을 시작하기에 딱 좋은 나이!
10년 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지금 당장 마음챙김하자!
스무 살의 마음 연습
숨과 함께하는 온전함으로의 여행
추천의 말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완벽한 책.”
- 존 카밧진,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 창시자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캠퍼스에서 계속해서 주고받아야 할 선물 같은 책.”
- 팀 라이언, 오하이오주 하원의원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려고 짐을 꾸릴 때 함께 챙긴 것을 기뻐할 만한 책.”
- 제프 슈만 올리비에,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
“내면과 외면을 탐색하고자 하는 모든 젊은 성인을 위한 필수적인 안내서.”
- 저드슨 브루어, 브라운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에릭 B. 룩스 지음
김완두, 박용표, 김경희, 김운희 옮김
320쪽 | 20,000원

지상백고좌

한산사 용성선원장 불이 월암 스님

“수행자라면 ‘중도정견’ 바른 이해가 우선”

12면에 이어

敎로써 마음 비추고 마음으로 교 해석
교에 의거해 수행하는 ‘선교겸수’ 강조
중도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는 게 ‘정견’



올해로 4회를 맞은 ‘불이선회’는 선사상 공부와 함께 실참을 할 수 있는 수행공동체로, 월암 스님이 이끌고 있다.

“청허 스님은 선(禪)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敎)는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마음과 말씀이 다를 수가 없지요. 그러니 선과 교는 하나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교(敎)로써 마음을 비추고 마음으로써 교(敎)를 해석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선교겸수의 기본 원칙입니다. 교에 의거해서 선을 깨닫는 것이 달마 선사가 제시한 선교겸수의 종지라고 할 수 있어요.”

“실참실구로 정진할 때도 먼저 공부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가 확립되어야 바른 신심이 생기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월암 스님은 벽송선회를 계승해 불이선회를 만들어서 이끌고 있다. 불이선회는 〈유마경〉의 불이법문에서 나온 말이다. 삶과 수행이 둘이 아니다. 삶이 곧 수행이라는 사상이다.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선사상 공부와 함께 실참을 할 수 있는 수행공동체가 불이선회이다. 비구·비구니, 사미·사미니가 참가하는 불이선회는 봄, 가을 일 년에 두 번 열린다. 불이선회는 유나방송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불교의 희망이자 새로운 수행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스님들의 불이선회는 경주 황룡원에서 진행됐다.

재가자의 불이선회는 매월 둘째 주 토·일요일 1박 2일 동안 한산사에 모여서 법문 듣고 수행을 한다. 봉사할 일이 있으면 봉사활동도 한다. 이렇게 한 지 10년 정도 되었다. 월암 스님은 불이선회를 이끌면서 “삶이 곧 수행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위빠사나를 비롯해 여러 수행법이 유행인 상황에 대해 선의 종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했다. 이에 스님은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금 지구촌 시대인데 간화선이 아닌 다른 수행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법과 조사의 법이 다르면 이건 불교가 아니잖아요. 위빠사나 수행이 부처님 직설이기 때문에 정통의 유일한 수행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간화선 수행이 최상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 불교가 수기설법의 방편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어요. 전통의 화두선, 염불선, 묵조선을 수행해도 좋고, 새로 들어온 사마타, 위빠사나를 수행해도 좋습니다. 서로 다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온 사람들에게 화두 들고 간화선하라고 하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월암 스님은 세 가지 정도의 방편을 사용한다.

“젊은 사람들은 안반선(安般禪) 호흡수행을 좋아합니다. 들숨 날숨에 집중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호흡하는 이것이 무엇인가’하고 화두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보살님들에게는 염불선을 권합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그 소리를 듣는 ‘이것이 무엇인가’하고 참구하도록 합니다. 자성미타와 서방미타가 합일될 때까지 부르는 것이 염불선입니다. 이런 방편 없이 바로 화두선으로 들어가 ‘이 본래 면목이 뭐냐’하고 화두를 참구하는 방편을 쓰기도 합니다. 자기 근기에 적합한 수행법을 고르는 것이 자신에겐 최상승이라 생각합니다.”

스님은 “초기불교부터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교 영역에서 제시된 다양한 수행방편이 모두 선정과 지혜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월암 스님은 수행자가 제일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중도정견(中道正見)임을 강조했다. 팔정도에서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정견’이다. 바른 정견이란 괴로움에 대하여 알고, 괴로움의 근원을 알고, 괴로움의 소멸을 알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아는 것이다. 정견을 확립하고 바르게 보고 실천할 때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正定)의 수행을 통해 열반에 들 수 있다. 스님의 친절한 설명이 이어졌다.

“견성성불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할 것을 발원하여 일심으로 수행하려는 사람은 먼저 정견의 안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제 스님은 ‘진정한 구도자라면 세간의 허물을 구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구하는 것이 절박하다. 바른 견해를 통달하여 뚜렷이 밝으면 비로소 일대사를 마치게 된다’고 했어요. 모든 법이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어 불생불멸임을 여실히 아는 것이 정견입니다. 모든 법이 공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중도에 대한 바른 안목이며, 중도에 대한 바른 안목이 바로 중도정관(中道正觀)입니다. 중도를 바로 깨달아서 바로 실천하는 것이 정견입니다.”

중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고(苦)와 낙(樂), 있음과 없음, 생(生)과 멸(滅) 등 상대적인 어떤 두 극단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중도란 모든 법이 무상하고 공하므로 연기적 관계성 위에 이루어지는 양 극단을 떠난 관계성을 말한다. 연기는 곧 중도라고 말하듯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 바로 연기요 중도이다. 연기란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변화하기에 자신의 고유한 실체성을 지닐 수 없음을 가리킨다.

“결국 참선 수행하는 사람들도 이 중도에 대한 정확한 견해가 갖춰져야 됩니다. 중도정견이 갖춰져야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삿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월암 스님은 인터뷰 내내 어떤 질문을 해도 가볍게 지나가지 않았다. 내용이 이해될 때까지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가장 좋은 절은 친절, 가장 나쁜 절은 불친절’이라는 평소 스님의 말씀에 깊은 뜻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교는 지혜와 자비가 동시에 굴러가는 두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선종의 종지는 견성성불(見性成佛)과 요익중생(饒益衆生)입니다. 견성성불은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부처를 이루는 것, 바로 지혜입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는 견성성불을 이룰 수가 없어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동체 자비심이 흥건히 묻어나는 그곳에서 견성성불의 꽃이 필 수 있어요. 제가 중국 유학 마치고 산문에 들어와 보니 견성성불만 이야기하지, 요익중생을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선종의 초조 달마 스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이다. 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견성성불을 말한다. 사행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실천행을 말하는데 이것이 요익중생의 문이다. 달마 스님은 견성성불 요익중생을 동시에 제시했다. 제자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중생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자비심인데 그런 자비심이 있어야만 그 법이 내려올 수 있단다.

월암 스님은 “부처님 법을 널리 펴고 이 법이 지속되도록 노력하는 사명감도 자비입니다. 결제 기간에 열심히 견성성불하려고 실참을 했으면 산철이 되면 이 공부를 나눠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견성성불 요익중생’은 동사형이지 박제된 언어가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그냥 허물어져버린다면, 화내고 짜증내고, 서로 옳다 틀렸다 하면서 시비한다면 선방에 앉아 있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차원 높은 견성성불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삶 속에서 견성은 동사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견성은 결코 명사가 아니라, 지금 삶 속에서 활발발하게 움직이는 동사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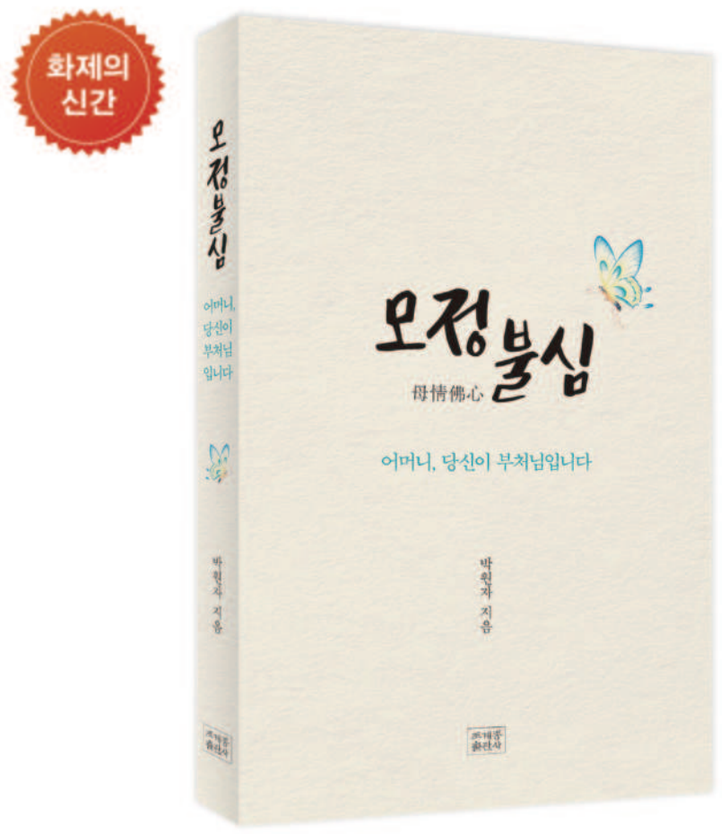
‘삶이 바로 수행’이라는 스님의 사상을 다시 한 번 떠올려보게 되는 말씀이다.

이어 스님은 자비와 지혜를 함께 닦아 깨달음에 나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을 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가 신심(信心)이요, 둘째가 발심(發心)이다.

“신심이란 마음이 부처요,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철저히 믿는 것입니다. 본래 부처의 자리를 확신하여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신심이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발심해야 합니다. 발심이란 생사를 해탈하여 많은 생명을 제도하겠다는 굳건한 의지입니다. 보리를 이루겠다는 발심이 전제되어야 원만한 수행과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말미, 스님은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 궁금하다고 했더니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로 살아가면 되는데 굳이 중생으로 살아가겠다고 고집을 피워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음은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중생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이보다 더 큰 희소식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가 본래 부처이고, 주인공이라고 일러주어도 믿지 않아요. 제 꿈은 세상 전체가 불국토가 되어 부처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문윤정 / 작가



위대한 출가자들에게 어머니는 어떤 존재였을까?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생명을 탄생시키고 길러주신
우리들 부모님은 다 부처님입니다.”

법전·월암·일진·종연·원산·해성·동봉·주경
혜총·자광·동은·자우·무여·원제·준한 스님 등
28인의 수행자들이 들려주는 ‘바르고 맑은 어머니의 길’!
그리고 지혜로운 어머니로 살아가는 방법!

박원자 지음 | 264쪽 | 19,000원 | 조계종출판사

조계종출판사 지혜와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구입문의 : 불교전문서점 향전 www.jbbook.co.kr | 02-2031-2070

무진 스님의 불국토 경주 남산에 오르다 ⑨ 삼릉곡 선각여래좌상



▶한줄 요약
경주 남산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은 5.2m 크기의 불상으로 전법륜인을 맺고 있다. 경외감이 드는 모습은 아닌 친근한 호상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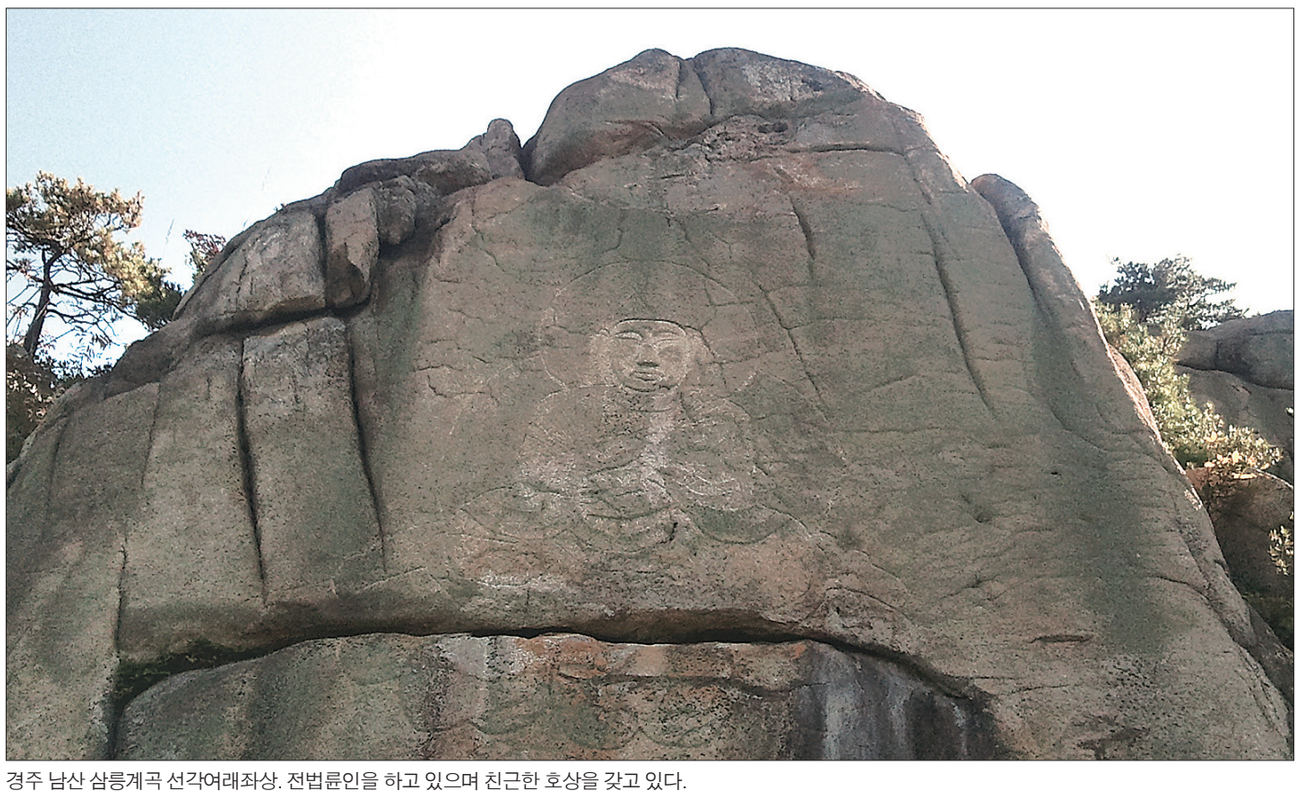
전법륜인 맺은 친근한 호상 가진 부처님

삼릉계곡 선각육존불상을 참배하고 그 위 등성이를 한 200m만 오르면 크고 넓은 바위가 나온다. 이 바위 면 중앙에 높이 5.2m의 마애불상이 새겨져 있다.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이다. 불상이 새겨진 바위면 중간에 가로로 균열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좌대를 구분하고 있다. 균열 윗부분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균열 아래에 연화대좌를 새겨서 둘의 구분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신라의 불교 유물을 보면 볼수록 틀에 얽매이지 않는 창조성이 놀라움과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선각여래좌상 부처님의 손 모양인 수인은 '전법륜인'을 하고 있다. 전법륜은 오른손은 가슴 중앙에 대고 손바닥을 보이게 하여 엄지와 검지나 중지를 구부리며 맞대고 있고, 왼손은 오른손 밑에 살짝 내려 손등이 보이도록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는 수인이다. 전법이란 수레바퀴를 굴리듯이 법을 전한다는 의미를 상징한다. 그래서 인도의 불교 조각에서 나타나는 수레바퀴의 모양은 부처님의 전법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부처님의 법을 단순하게 정리한다면 중도,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연기가 대표할 것이다. 이러한 부처님의 법을 아울러 상징하는 수인이 전법륜인이다.

부처님 그림인 불화를 그리거나, 조각으로 불상을 만들거나, 바위에 선각으로 마애불을 조성할 때, 어떤 부처님인지 상징하는 것이 수인이다. 불화나 불상을 참배할 때 부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수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은 수하항마상의 수인이 대표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새벽 금성이 뜰 때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는 상황을 상징한다. 부처님께서 모든 장애를 이겨내고 깨달음을 얻자 마왕 파순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증명하라며 대들고, 이때 부처님께서 오른손과 왼손을 배꼽에 두었던 선정인의 수인에서 오른손을 무릎에 내려 손등을 보이며 검지로 땅을 가리킨다. 그러자 모든 중생의 생명과 삶을 상징하는 '땅의 신'이 대답을 하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증명된다. 이러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을 상징하여 보여주는 수인이 수하항마상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이다.

아미타 부처님의 불상을 보면 마찬가지로 수하항마상의 수인을 하고 있기도 하다. 아미타 부처님을 상징하는 구품인의 수인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그래서 좌우에 보살님이 있는 경우 수하항마상을 중앙의 부처님이 취하고 있다고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수하항마상의 본존불 좌우에 관세음보살상과 지장보살상 또는 대세지보살상이 있다면 아미타 삼존불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수하항마상의 본존불 좌우에 문수보살상과 보현보살상이 있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분명하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표하는 수하항마상은 왜 아미타 불상의 수인이 된 것일까?



경주 남산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 전법륜인을 하고 있으며 친근한 호상을 갖고 있다.

경북 영주에는 한국불교 화엄을 대표하는 의상 스님이 창건한 부석사가 있다. 부석사의 무량수전을 모른다면 한국의 사찰을 모르는 것이고 한국의 사찰을 안다면 부석사 무량수전을 알 것이다. 고려시대인 1376년에 중수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 무량수전이다. 부석사는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 문무왕 16년인 676년에 왕명으로 창건한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를 대표하는 '화엄십찰' 중 한 곳으로 부석사를 표현하고 있다. '화엄십찰'은 의상 스님의 화엄 정신을 전하는 사찰이라는 의미다. 즉 부석사는 화엄 사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각의 이름이 정토 아미타 신앙을 대표하는 무량수전으로 되어 있다.

무량수전에는 소조라 하여 흙으로 빚어 만든 아미타 불상이 모셔져 있다. 불상은 고려시대 조성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불상의 불단 아래에 있는 석조대좌가 통일신라시대 유구로 확인되면서 의상 스님의 생존한 7세기 후반의 불상은 아니지만, 학자들은 적어도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본존불상의 도상을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홀로 모셔진 본존불은 당연히 아미타 불상으로 불리는데, 이러한 무량수전과 아미타 불상의 명칭은 고려시대 1054년에 부석사에 세워진 원융 국사(964~1053)의 비문에서 확인된다. 비문의 내용을 보면 의상 스님의 제자가 부석사의 본당인 무량수전에 아미타불을 봉안한 이유를 묻자 '화엄경 입법계품'의 내용인 '화엄 일승(一乘)'의 정신으로 아미타불을 설명하고 있다. 즉 화엄은 일승의 정신으로 모든 종파와 모든 부처님을 종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운허 스님이 역경한 '80화엄경의 여래명호품'의 내용에서 확인된다.

> 큰 바위에 새긴 5.2m 선각마애불상
> 수인은 부처님 법 상징하는 전법륜인
> 경외감 드는 모습 아니어서 더 '친근'
> 중생들 이야기 조곤조곤 들어줄 듯해

"여러 불자들이여, 여래가 이 사천하에서 혹은 일체의성(一切義成)이라 이름하고, 원만월(圓滿月)이라 이름하고, 사자후(獅子吼)라 이름하고, 석가모니(釋迦牟尼)라 이름하고, 제칠선(第七仙)이라 이름하고, 비로자나(毘盧遮那)라 이름하고, 구담씨(瞿曇氏)라 이름하고, 대사문(大沙門)이라 이름하고, 최승(最勝)이라 이름하고, 도사(導師)라 이름하나니, 이러한 이름하고 그 수효가 십천이라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알고 보게 합니다."

물론 화엄 본존불상을 대표하는 비로자나불상의 수인 지권인이 있다. 지권인은 한 손을 쥐고 검지를 펴고 있는 금강권에서 나머지 손이 검지를 붙잡으며 엄지로 쥐고 있는 모양의 수인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로자나불상의 지권인 수인은 서역의 스님인 불공(705~774)이 746년 당나라에 들어와 밀교 경전을 번역한 이후에 알려진 수인이다. 즉 의상 스님이 활동하던 7~8세기에는 화엄의 스님들은 지권인을 몰랐다. 그렇기에 이 시기 화엄 불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인인 수하항마상을 하면서 아미타불이라 칭하고 화엄의 본존불로 모셔진 것이라 추정된다.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 수하항마상의 불상이 석가모니 불상이 되기도 하고 아미타 불상이 되기도 한 것이 아닐까 싶다. 아직까지 학계에서 공인한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다.

여기서 한국 불상의 상식 하나. 아미타 구품인 불상이나 비로자나 지권인 불상에서 왼손과 오른손의 위와 아래가 불상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비로자나 지권인 불상에서 어느 불상은 왼손이 위에 있고, 어느 불상은 오른손이 위에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문화권의 관습에 기인한다. 즉 인도는 유목민의 문화권에 있다. 유목민은 오른손을 숭상한다. 그렇기에 불상을 조성할 때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 조성한다. 그런데 중국 문화권은 '좌상우하(左上右下)'라 해서 왼손을 숭상한다. 불교가 전래된 이후 시대가 흐르면서,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은 불상에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는 불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오른손이 위에 있으면 인도 불교, 왼손이 위에 있으면 중국 불교의 영향이구나 이해하면 된다.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은 얼굴 부분만 얕은 새김을 하였고 몸체부터는 선각으로 처리하였다. 불상을 새긴 기술이 남산의 다른 마애불과 비교해서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 눈은 홈을 파기만 했고, 뭉툭한 코와 두툼한 입술은 부처님의 경외감이 아닌 그저 옆에 있을 만한 친근한 모습의 형상이다. 삼릉곡 선각여래좌상을 쳐다보면 경외감을 주는 부처님이 아닌 어딘가 못생겨서 인간적이다. 중생들 삶의 이야기를 하나부터 열까지 조곤조곤 들어주실 것 같은 친근감을 준다. 부처님 머리 위의 육계와 귀 부분을 보면 마무리가 안 되어 미완성의 불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경주 남산에서 가장 늦은 9세기 말쯤 불상으로 보인다. 부처님 광배는 둥글게 선을 그어 머리 뒤의 두광과 몸체 뒤의 신광을 새겨 놓았다. 이 또한 화려함과 멋이 사라진 밋밋한 광배다.

광배는 흔히 말하는 아우라를 떠올리면 된다. 멋진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 뒤에 아우라가 보여'라고 하는데 이 아우라를 광배라고 생각하면 된다. 부처님은 일반 사람과는 다르다. 그렇기에 아우라도 일반 아우라가 아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아우라다. 여기서 조금만 힘을 내서 옆길을 타고 오르면 기묘한 바위 위에 활활 타오르는 너무나 멋진 광배를 한 불상이 기다린다.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 · 조계종 교육아사리〉

식약처에서 인정한 의료기기법 제2조
특허등록
의료기기 근적외선 침대
피부 피하층까지 침투하여 온열효과가 뛰어나며 산화질소를 생성해
현재 세계 각국 의료계의 질병치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의 좋은 기운을 함께 느껴보세요!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숯가마의 열기가 고스란이 녹아든
숯(탄소) 침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원활, 각종중금속배출
• 통증완화(신경통,관절통,견통예방)
• 숙면(불면증,피로회복,좌골신경통)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저혈압),
• 암예방(온열에의한 악성종양의 사멸)
• 새집증후군(포름알데히드)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온열요법 건강매트·방석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매트 99만원
(SS사이즈 : 1100×2000)
사용전 사용후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 20만원
그린에너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81호 | 15 | 전면광고

선지식은 지혜로운 의사와 같다.
증상에 따라 약을 주어
우리 마음의 병을 낫게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열반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18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
- 매가 : 17억2천

- 위치 : 인천
- 부지 : 200평
- 법당 : 60평
- 요사:60평
- 매가 : 15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채권 인수합니다. 사찰컨설팅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836번지
- 835번지 임야 130평
- 836번지 밭전 300평
- 총 430평, 샘물 나옴
- 사정상 급양도 2750만원

010-7628-9997

사찰(급)안내

- 장호원 감곡KTX역 10분거리 깨끗한 사찰
- 대지계획관리, 그린시설 1000평
- 대웅전, 종각, 휴게소, 잔디광장
- 요사채3동, 다도실, 리라이트광석찜질방
- 연못, 가온기치료기실, 각종 암환자 치료완비
- 은행 2억대출 매매가 8억 급매매 전세 놓습니다
- 장난전화 사절

010-7151-8546
010-5883-225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계곡면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85평 (법당 요사채)
(건물 3층 180평까지 증축 가능)
- 가액 : 4억 5천

010-7710-8334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6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지 : 700평 (실사용 1000평)
- 건물 : 법당 (25평), 산신, 칠성, 용왕
- 요사채 : 슬라브 2동 향토방 1동
- 해우소 : 1동 차량 진입 (주차장)
-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도량 (명상, 요가)
- 남향이라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
- 땅에서 나는 물 (약수물)
- 금액 : 5억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광역시 서구 신석로 111번길 3-1
- 2층 : 법당 30평
- 1층 : 요사채 30평
- 지하 : 15평
- 가액 4억원
- 스님 건강상 내놓습니다.
- 교통 아주 편리함

010-9286-1008

사찰(급)안내

- 경남 통영시 정량동 840-1 관음정사
- 대지 106평, 건평 50평, 삼존불
- 모든 집기 일체 양도
-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
- 주차장 완비

010-3344-6667

사 찰 안 내

- 매매가 6500만원
- 영천 북안면 약 60평
- 약사불, 조용한 기도처

010-9572-6778
010-9667-4898

사찰(급)안내

- 위 치 : 충남 부여군 은산면
- 임 야 : 2,000평
- 기도방 3개, 산신각, 용궁, 선황, 요사채
- 매매가 : 2억 7천 (가격절충)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4799-9448

사 찰 안 내

-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창원시 마산 합포구 어시장 너른마당
- 50평, 부처님 삼존불 · 칠성 · 신중 · 산신 · 용왕 · 영가단
- 방1 · 화장실 · 공양간
- 보증금 1000만원/월40

010-4327-86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 대지 : 법당 26평, 요사채 공양간 산신각
- 건물 : 종교부지 300평, 주차장 약 300평, 앞 화단 26평, 631평
- 즉시 법회 가능함 2024년 초파일 즉시 하셔도됨
- 가액 : 6억 9천

010-5519-7711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사 찰 안 내(토굴)

- 위치 : 경북 영덕 동해안
- 대지 : 326평, 40평 건물 2채
- 법당 15평, 공양간 17평, 방 7개, 목욕탕 3, 외부화장실 2
- 용궁당 노천산신 야외석불 지장입불
- 편리한 아파트식
- 가액 : 2억 4천만원 (절충 가능)

010-2008-0377

사찰(급)안내

- 위 치 : 부산 연산동
- 땅값만 받고 양도 합니다
- 대지 124평
- 법당 삼성각 용왕당 호심불(소불)
- 공양간 종무소 스님방
- 가격은 절충

010-7785-5577

사찰(급)안내

공기 맑고 아늑하고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현재 운영 중으로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조정 가능합니다.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9500만원



010-4180-1788

사 찰 안 내

부처님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 위치 : 마산 합포구 교방동
- 임대 : 보증금 40만원 / 월세 15만원
- 방3개, 화장실 등 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3132-966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구)불국사역 인근
- 대지 : 191평
- 건물 : 45평(법당, 산신, 방, 공양간, 사무실, 화장실(대.소)) 등
- 야외 : 용왕, 탑, 화장실 집기 일체
- 매매금액 : 2억 5천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574-798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주시 주덕읍 (국도 4차선 접)
- 대지 : 631평
- 금액 : 2억 5천

010-2136-9889

사 찰 안 내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포항시 남구
- 대지 : 200평
- 건물, 법당, 산신각, 봉왕당, 요사채 2동,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함

※가액 : 보증금 3백만원 월세 20만원 (계약기간 5년이상 해드림)
※권리금 : 1천5백만원
※동시주차 15대 가능
※비구니 스님 원합니다.

010-7788-3320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10억

010-6325-5112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 2억 3천만원(절충가능)

건강상의 이유로 시세 이하로 계산합니다.

010-3007-561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구)불국사역 인근
- 대지 : 191평
- 건물 : 45평(법당, 산신, 방, 공양간, 사무실, 화장실(대.소)) 등
- 야외 : 용왕, 탑, 화장실 집기 일체
- 매매금액 : 2억 5천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574-7985

포교원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9424-4777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81호 | 16 | 전면광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업을 따라 살아간다.
좋은 씨앗을 뿌렸든 나쁜 씨앗을 뿌렸든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두는 것과 같다.



부처님 말씀 읽기 -《본생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무속인,법사,무당,일반인,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불교 의식 학인 모집

• 영남 범음 범패
• 49재 천도재 사시불공 등
• 북 · 징 · 경쇠 · 요령 · 목탁
• 매주 화요일 오후3시~5시반
• 일반인 수강가능
조은사(경북 경산 시내)

010-5315-3589



검색-손도사 자전 천기소설 운명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010-5270-8260
010-6785-1130

점 연구원

• 음력 생일 숫자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로 미래와 과거를 자신 있게 보는 법 전수
• 준비물 없음. 외우는 것 없음.
• 사주 막힘 없이 보는 법 확실히 전수함.

토화사 010-3750-8555

한국빙의퇴마 기 치료연구소

지장대사 원력 단 한번으로 조상 천도
빙의퇴마 · 천병 · 신병 · 우울증 · 불명증 · 가정우환
병명 없이 몸이 아픈 분 상담 환영

010-5152-1222 (정례)

불교무량법계종 (종교법인)

도반 수행자 모집
함께 모여 정진하실 분 찾습니다
위치: 대구시 동구 파계로 22길 7

010-4766-6358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상속 · 증여 · 세금
보장자산
(밀착관리/비밀유지)

삼성생명 팀장 오은정
문의 010-9573-418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충북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669번지 보림정사

010-4760-4358

60대 비구니스님입니다.

4월 초파일 행사 불사 도와드립니다

철학 능통

010-9954-2500 해인합장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수행하며 오래도록 절에 계실 분 공양주를 모십니다

경북 예천 용화사

010-6529-2005

함께 하실 공양주 모십니다
함께 일할 거사님 모십니다
함께 수행할 행자님 모십니다
부산 만덕사

051-334-3009
010-3840-4355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347-5950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다양한 초파일 용품 할인행사중!! 상시대기

최고급 제품&착한가격&친절상담&빠른배송

전품목 10%~30%/승복, 가방 50%/가구, 병풍 30% 할인

최고급 합장주 할인
합장주 ····· 100개 55,000원
어린이합장주 ····· 100개 50,000원

사월초파일 제 품 할 인
인등 신제품 출시, 주문제작 가능
충전 전기초 출시 (1회 충전시 30일 지속, 5종류)
반야심경/산신/용왕/연꽃 일부품목은 제외됩니다 85,000원

- 보시 용품 염줄
- 각종 연등 탄생불 관욕단
- 각종 미니 만월등 100개 ····· 140,000원
- 만월등 사업등
- 연잎 리본
- 방수전선 전구엘리드국산
- 등 승강기 설치

2024 초파일 미리 준비하세요

삼베,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대통부 6,000원
삼베옷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식물성 양초 - 그을음 없는 최상급 (흰색, 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팝초 20개, 노란색 최상급 20개
소진시까지 ····· 65,000원
5일초 24개 ····· 70,000원
3일초 40개 ····· 70,000원
1일초 90개 ····· 80,000원
15일초 12개 ····· 100,000원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수입양초
밀대 50개 60,000원
돈타래 40개 70,000원
원백 20개 70,000원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 50,000원
15일 ····· 70,000원

천왕배 오색길배-최상급
개당 4,500원 / 30개 135,000원

파라핀 오일 1BOX(12개) 65,000원
부정풀이 1BOX(100개) 100,000원
불상 7치 500개 12.000원 / 1000개 11.000원

※칠보 개금 할인 (기존 불상 가능, 3자 기준 좌포함 220만원)
※불상 조각 조성 (소불 500불 이상 1불 당 12,000원, 1000불 이상 11,000원)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054-762-8200 /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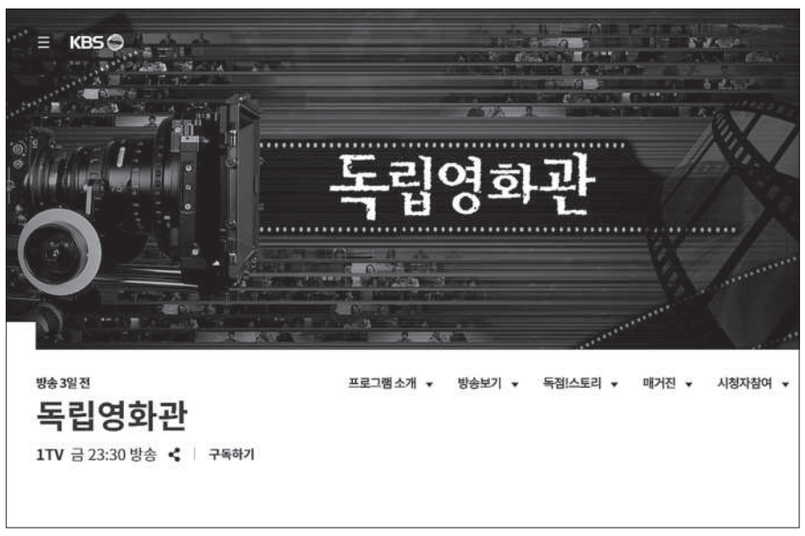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독립영화와 상업영화, 공존을 꿈꾸며



이안의 Media In Buddha

㊳ 독립 · 예술영화의 시간



KBS 1TV 독립영화관 홈페이지 갈무리.

영화관도 골라가는 시대, 전철역 근처나 사람 좀 들고나는 곳이면 영화관 하나씩은 있는 시대다. 영화관이 하나라도 스크린은 여럿인 복합상영관, 멀티플렉스. 그러면 그런 영화관에서 스크린 숫자만큼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장 흥행이 잘 되는 영화를 아무 때고 가도 볼 수 있게 같은 영화가 주르르,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는 있기는 한데 시간표가 평일 아침 첫 회 아니면 마지막 회, 그것도 아니면 한참 바쁜 낮 시간대에 퐁당퐁당.

이렇게 스크린이 많은데도 또 어떤 영화는 예매 시작하자마자 매진이 되어 볼 수가 없다. 그런 영화들을 위해 영화관들은 심야상영을 하는데 그 시간표 숫자가 참 초현실적이다. 25시. 우리가 아는 시간대가 아니다. 12진법을 기준인 시간 셈법이 보편적인데 영화관 심야시간대 상영에서만 쓰이는 이런 시간표를 볼 때면 좀 저항감이 생긴다. 아마도 영화 〈25시〉(앙리 베르누이 감독, 1967년)를 기억하기 때문일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때, 루마니아 산골 농부 요한(안소니 퀸)은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으로 몰려 강제노동 수용소로 잡혀간다. 요한의 아름다운 아내를 욕망하는 경찰서장이 거짓 보고를 했기 때문이다. 아내와도 강제 이혼을 당한 요한이 간신히 수용소를 탈출했더니 스파이 혐의로 잡혀 이번에는 독일로 끌려갔다가 독일 친위대 대령이 요한을 아리안족의 순수 혈통을 가진 영웅이라며 수용소장으로 임명한다. 그러다가 독일이 패하자 이번에는 전범자로 미국포로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억울했던 상황에서 풀려나 석방된다. 요한을 돌아오게 하고자 그동안 애를 썼던 아내는 그 사이 침략군에게 능욕 당해 아이를 낳았다.

이 영화의 원작자인 소설가 비르질 게오르기우는 작중인물을 통해 25시의 의미는 하루 24시간이 모두 끝나고도 영원히 다음날 아침이 오지 않고 아무도 구원해줄 수 없는 최후의 시간을 의미하며, 그 시대 유럽 문명이 처한 시간이라고 했다. '25시'라는 시간이란 아주 야만적이고 불가항력적이며 폭력적이라는 의미가 워낙 인상적이어서 영화관 시간표에서 보는 25시도 어떤 폭력성을 떠오르게 한다.

영화관에만 있는 시간 '25시'
독립영화를 위한 시간은 없다

가령, 독립다큐멘터리를 방영하던 EBS 다큐시네마가 폐지된 것이나, 영화제에서 소개돼 개봉을 기다리던 좋은 영화들이 몇 년째 개봉관을 찾지 못하고 있거나, 개봉관을 찾지 못해 OTT를 통해 풀리거나 하는 맥빠지는 일.

EIDF(EBS 국제다큐영화제)나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같이 오직 다큐멘터리를 위한 영화제도 나름의 연혁을 쌓아오며 지속되고 있고,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여러 영화제들마다 다큐멘터리는 중요한 프로그램의 한 축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영화제들에서 소개된 영화들이 스크린에서 관객을 만나게 되는 경우는 그 기회 뿐인 경우가 허다하다. 영화관도 늘고, 채널도 늘었는데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들에게는 '영화관은 멀고 방송은 대안'인 상황이다.

16mm니 35mm, 시네마스코프 같은 필름 기반 영화산업이 아니라 디지털 방식으로 촬영하고 편집하고 DCP로 상영하는 시대가 되면서 영화관과 가정용 OTT에서 동시에 같은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영화관은 멀티플렉스로 분화하며 스크린 수도 엄청난 속도와 범위로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것은 스크린 숫자만이 아니다. IMAX, 돌비스테레오, 4DX, 3D 등 상영방식에 따라 체험의 양상이 달라지게 한다.

예전의 동시상영은 한 상영관에서 한 번의 관람료로 두 편 또는 세 편을 보는 방식이었다면, 요즘의 동시상영은 여러 스크린에서 하나의 DCP로 동시다발 또는 시간차로 릴레이 상영을 하는 방식이 되었다. 스크린은 늘어났지만 스크린을 확보할 작품의 기회는 늘지 않았다.

규모의 경제는 블록버스터에게만 풍요롭다. 〈아바타: 물의 길〉이나 〈듄: 파트2〉 같은 시리즈 영화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차별화된 특수 상영관 예매부터가 경쟁이 되었고, 상영기업은 그 동력으로 멀티플렉스 스크린 점유율을 높이는 흥행 방식으로 재미를 보았다. 그러나 이런 특수는 '영화관 자체'를 부흥시키는 전략은 아니었다.

관습적으로 영화의 상영관은 연극이나 무대예술의 극장과는 다르다고 여겨졌다. 관객들은 어느 자리에 앉든 같은 장면을 본다. 관객의 위치에 따라 무대의 미장센과 연희자들의 입체적 실체가 다르게 경험되는 극장과 달리 스크린에 비친 영상은 카메라의 시선을 어느 객석에나 똑같이 편재하게 한다. 다만 좌석의 위치에 따라 시야각이 좋고 나쁜 차이 정도가 있을 뿐.

영화관 쪽에서 선택한 것은 그 좋고 나쁜 차이를 관람료에 반영하는 것이었고, 관객들은 오른 요금을 부담스러워 했다. '극장의 위기'가 곧 '한국영화의 위기'처럼 얘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관을 살린 것은 〈서울의 봄〉이나 〈파묘〉가 선택한 방식, '관객과의 대화'인 무대인사였다. 관객들은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고 느낀 감정을 영화 제작진뿐 아니라 다른 관객들과 소통하고 싶어했다.

사실 이런 방식은 여러 영화제나 독립영화, 예술영화들이 꾸준히 지속해온 GV의 연장선에서도 볼 수 있다. 영화제에서나 예술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은 GV를 통한 참여와 소통을 작품 관람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지금 여러 영화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EBS 다큐시네마는 폐지됐지만 KBS 독립영화관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작품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방송국이 공개한 시청률은 0.9%다. 관객수 집계를 내봐야 알겠지만, 어쩌면 영화관 관객 숫자보다 더 높은 시청률일지도 모른다.

KBS 독립영화관은 "〈독립영화관〉은 독립영화가 가진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특별하고도,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작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독립영화만이 갖고 있는 자유로운 사고와 강렬한 에너지를 〈독립영화관〉이 보여드릴 것입니다. 영화관에서도, TV에서도 쉽게 볼 수 없었던 독립영화와 시청자의 적극적 만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획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렇듯 지금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는 관객과 만날 기회 자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스크린이 아무리 늘어나고, 채널도 세 자릿수를 넘어 외울 수도 없는데. 이렇게 스크린 독점이 과도한 승자독식의 상황은 관람료 비싼 특수 상영관이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려고 끌어다 쓴 것과는 다른 영화적 25시다.

불교의 주요 교리와 사상을 대화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경전인 〈아함경〉에는 갈대 묶음을 들어 공존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 사리불 존자에게 "이 세계는 누가 만들었으며 만든 주인은 누구인가요"라고 물었을 때, 사리불은 갈대 묶음 2개를 가져와 세워 보이면서 "이 세계는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만든 주인도 없다. 이것이 넘어지면 저것도 넘어지지 않는가?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것"아라며 '공존'이 곧 세계 그 자체의 원리임을 깨우치게 한다. 이 깨우침이 영화관에도 깃들기를.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⑰

1. 부처님의 제자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사리불은 지혜가 매우 뛰어나서, 종종 부처님의 설법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다.
② 목건련은 신통력이 뛰어난 제자로, 지옥고를 받는 어머니를 위해 우란분재를 올린 주인공이다.
③ 마하가섭은 부처님이 입멸하신 후 첫 번째 결집을 주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하는데 공을 세웠다.
④ 라훌라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뛰어나서 첫 번째 결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대부분을 암송해 내는 역할을 맡았다.
⑤ 아난다는 부처님의 양모였던 석가족 여인들이 출가할 수 있도록 청하여, 비구니승가가 만들어지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해설 : 기억력과 집중력이 뛰어나 첫 번째 결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대부분을 암송해 내는 역할은 아난이 하였다.

2.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출가 이후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행과 선행에 철저하여서 밀행제일로 불리는 인물은 누구인가?

① 목건련 ② 사리불 ③ 아난다 ④ 라훌라 ⑤ 마하가섭

해설 : 라훌라는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낳은 아들로, 자신이 부처님의 아들이라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행과 선행에 철저하여 밀행제일로 불리었다.

3.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천안제일 아나율은 부처님의 사촌동생이다.
② 설법제일 부루나 존자는 부처님과 생년월일이 같다.
③ 다문제일 아난다는 25년간 부처님을 곁에서 시봉하였다.
④ 신통제일 목련 존자는 기원정사를 건립할 때 총감독하였다.
⑤ 지계제일 우팔리는 출신계급이 가장 높은 바라문 출신이다.

해설 : 지계제일 우팔리는 출신계급이 낮은 이발사 출신이다.

4.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최초의 비구스님은 교진여 등 다섯 수행자였다.
② 부처님께 최초로 공양을 올린 사람은 빔비사라왕이었다.
③ 최초로 재가신자가 된 사람은 야사의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④ 오랫동안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가장 많은 가르침을 들은 것은 아난이었다.
⑤ 최초의 결집을 주도한 것은 마하가섭이었고, 이때 율장을 암송한 것은 우팔리였다

해설 : 부처님께 최초로 공양을 올린 것은 제위와 파리이다. 수자따는 태자, 말하자면 보살에게 마지막으로 공양을 올린 것이다.

5.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설법제일로 알려진 제자는 누구인가?

① 라훌라 존자 ② 아난(아난다) 존자 ③ 목련(목건련) 존자 ④ 푸르나(부루나) 존자 ⑤ 사리불(사리풋타) 존자

해설 : 라훌라는 밀행제일, 아난은 다문제일, 목련은 신통제일, 사리불은 지혜제일이다. 부루나가 설법제일이다.

6. 부처님의 10대 제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우팔리는 석가족의 이발사 출신으로 부처님 열반 직후 거행된 결집에서 율(律)을 암송하는 역할을 맡았다.
② 가섭 존자는 원리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행을 하였으며,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난 후, 칠엽굴에서 경과 율을 결집하는데 앞장섰다.
③ 아나율은 '공(空)'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한 제자로 불교가 전파되지 않았던 변방지역에 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퍼뜨린 사람이다.
④ 라훌라는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낳은 아들로 남의 눈에 띄지 않을 때도 은밀하게 스스로 행할 바를 실천하여 밀행(密行) 제일이라 한다.
⑤ 아난 존자는 부처님의 시자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뛰어나 부처님 열반 직후 열린 결집에서 교리에 대한 부분을 암송하는 역할을 맡았다.

해설 : 아나율은 천안제일이며,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한 것은 해공제일 수보리이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정답 : 1. ④ 2. ④ 3. ③ 4. ⑤ 5. ④ 6. ③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새해 기운을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누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감로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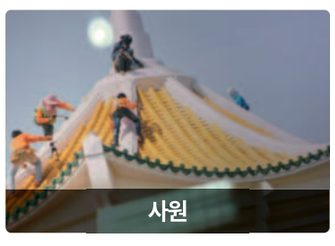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

PREMIUM 싸이렌 SAIREN
since 1996 DONGWHA INDUSTRIAL 동화특수산업(주)
유해 조류, 해충 및 동물 기피제
제품상담/시공문의 동화특수산업(주) 조류방제사업부 031-451-6232 / 010-3747-2111

조류 기피제 구조물용
건축물 등에 피해를 주는 조류를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모기·해충 기피제
천연 고급향료를 사용하여 개발된 제품입니다.
쥐 기피제
쥐를 해치지 않는 친환경 성분들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파충류 기피제
뱀, 도마뱀 등 파충류를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멧돼지 기피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유해 조류(새)에 의한 피해 예방


문화재·사찰


사원


관음상

이미령의 스토리텔링 경전에세이 ⑨ 천수경 ②



▶한줄 요약
〈천수경〉은 깨달음에 대한 서원과 깨달은 이후 지옥으로 나아가 지옥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깨달아 지옥 가겠다'는 서원 담다

세 번째 이야기–무엇을 빌까?

우리나라 사람들 참 빠릅니다. '빨리 빨리'가 입에 붙었고, 몸에도 붙었고, 생각에도 붙어 있습니다. 뭘 해도 빨리 해야 하고, 빨리 하지 않으면 내 차례가 오지 않기 때문에 남보다 빨라야 합니다. 친구가 말하더군요. 국제전화에 국가번호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번호도 '82'라고요. 국제적으로도 빠른 대한민국을 인정받은 건가 싶습니다.

빨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 빨라서 힘든 점도 많습니다. 많이 지치고, 빨리 지칩니다. 그런데 빨리 지친 친구에게 우리는 또 이렇게 격려합니다. "어서 힘내, 빨리 기운 차려"라고요. 어때요? 진짜 '빨리 민족'답지요?

〈천수경〉을 읽을 때마다 웃음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천수경〉도 어지간히 빨리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빨리'라는 말에 해당하는 한자어 조(早)와 속(速)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을 조속히 하겠다는 것일까요? 일단 한문문장으로 만나보지요.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지일체법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知一切法)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지혜안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得智慧眼)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도일체중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度一切衆)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선방편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得善方便)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승반야선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乘般若船)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월고해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得越苦海)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득계정도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得戒定道)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등원적산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登圓寂山)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회무위사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會無爲舍)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동법성신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同法性身)

위대한 연민(대비)을 품으신 관세음보살님에게 귀의하오니, 모쪼록 저를 빨리 일체법 알게 해주시고, 모쪼록 저를 빨리 지혜의 눈 얻게 하시고, 모쪼록 제가 빨리 모든 중생 구제하도록 해주시고, 모쪼록 제가 빨리 좋은 방편 얻게 해주시고, 모쪼록 제가 반야의 배에 빨리 오를 수 있게 해주시고, 모쪼록 제가 고통의 바다를 빨리 건널 수 있게 해주시고, 모쪼록 제가 빨리 계율과 참선의 길을 얻게 해주시고, 모쪼록 제가 빨리 원적(열반)의 산에 오를 수 있게 해주시고, 모쪼록 제가 빨리 무위(해탈)의 집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모쪼록 제가 빨리 법의 성품으로 이뤄진 몸(깨달음)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에게 열 가지 소원을 비는 것이 '〈천수경〉 행자'의 기도 내용인데, '10원(願)'이라고도 합니다.

어,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천수경〉을 외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각자 마음속에 품는 소망은 무엇이었나요? 가족의 무탈함, 소박한 행복, 자식의 성공, 배우자의 승진 등등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들을 이뤄달라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천수경〉을 외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천수경〉에서 예시한 소망의 목록들이 어떤가요? 열 가지 이 소망은 하나같이 "나를 깨닫게끔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루고 싶은 소망들이 아닌,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품는 목적 즉 깨달음을 이루도록 관세음보살님께 도와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천수경〉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세속의 행복을 비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것이 왜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세속의 행복은 언제나 제한적이고 깨지기 쉽고 내가 원하는 그대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세속의 행복은 끝이 없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뤄져도 이내 '더, 더'를 외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쯤해서 세속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은 잠시 멈춰보기를 권하는 것이지요. 분명 다른 행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하는 행복, 깨달음에 이르는 행복, 그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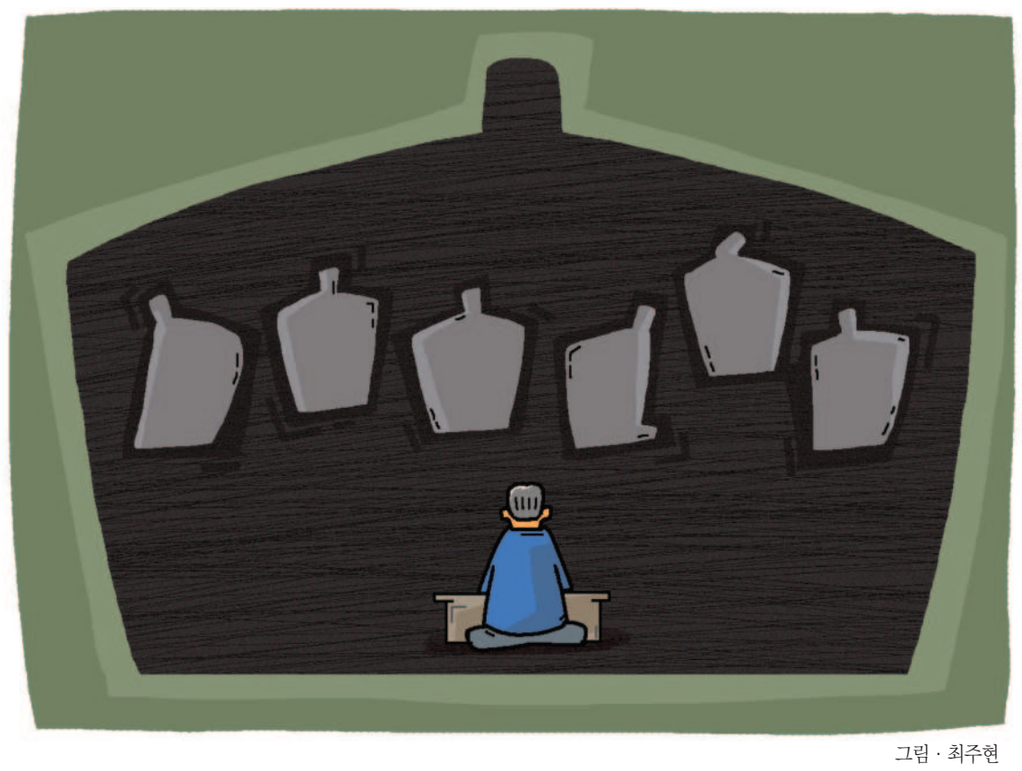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관세음보살 바라는 10가지 소망
'깨달아 法과 하나 되는 것' 서원
깨달은 뒤 향하는 곳은 '지옥'
6개 지옥 가자 지옥이 소멸돼

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복입니다.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님에게 비는 소원은 바로 이런 행복을 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빨리, 빨리 말이지요.

내 가정과 내 가족의 행복을 빌려고 〈천수경〉을 외웠는데, 알고 보니 〈천수경〉에서는 그와는 다른 성격의 행복을 관세음보살님께 빌라고 쓰여 있었다는 사실! 〈천수경〉은 이런 행복을 비는 경임을 불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지옥 가겠습니다

〈천수경〉의 10원이 끝나면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이른바 6향(向)입니다. 여섯 곳으로 향해서 간다는 것으로, 〈천수경〉 한문문장을 음미해보기로 하지요.

아약향도산 도산자최절
(我若向刀山 刀山自摧折)
아약향화탕 화탕자소멸
(我若向火湯 火湯自消滅)
아약향지옥 지옥자고갈
(我若向地獄 地獄自枯渴)
아약향아귀 아귀자포만
(我若向我歸 我歸自飽滿)
아약향수라 악심자조복
(我若向修羅 惡心自調伏)
아약향축생 자득대지혜
(我若向蓄生 自得大智慧)

평소 〈천수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무심코 읽으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딘가로 향한다는 그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이 '나'는 바로 앞에서 관세음보살님에게 지극정성으로 깨닫게끔 도와달라고 빌어서 마침내 깨달음을 이룬(법성신과 하나가 된) '나'입니다. 자, 이제 관세음보살님 덕분에 깨달음을 이루었으니 나도 무엇인가 어떻게든 보답을 해야겠지요. 그게 바로 깨달은 내가 여섯 곳을 향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겠다는 여섯 곳이 하나같이 지독하게 무섭고 고생스러워서 절대로 피하고 싶었던 장소, 이른바 지옥입니다. 산은 산인데 나뭇잎과 나뭇가지 등등이 죄다 예리한 칼날로 이뤄져 있어 닿기만 해도 내 온몸이 저며지는 도산(刀山)지옥, 어마어마하게 큰 가마솥에 물이 펄펄 끓고 있어서 악업 지은 중생들이 그곳에서 죽기 직전까지 푹 삶기는 화탕(火湯)지옥, 괴로움이 끊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죽어버리지도 못하는 지옥, 죽은 뒤에 어떤 음식도 먹지 못해서 늘 배고프고 목마름에 시달리는 아귀, 상대방에게 악의를 품고 늘 싸우려 덤비는 수라, 어리석어서 싸움을 일삼는 축생, 바로 이 여섯 장소에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천수경〉을 보면 내가 기꺼이 지옥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관세음보살님께 대놓고 자기 입으로 약속을 하는 것이지요.

〈천수경〉은 기꺼이 지옥에 가겠다는 발원을 하는 경입니다. 물론 내 뒤에는 든든하게 관세음보살님이 버티고 계시니 쫄 일은 없습니다. 안심해도 좋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내 뒤를 받치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나는 10원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었고, 어느 사이 내 자신이 불보살님처럼 세상을 향해 자비의 두 손을 내미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던 중생이 불보살이 되었거든요.

다섯 번째 이야기–내가 한 건 없어요

〈천수경〉을 읽을 때 짜릿해지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도산지옥이니 화탕지옥이니 하는 곳에 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니 여섯 지옥으로 향해 가서 나는 얼마나 열심히 그들을 구제하려 애쓰겠습니까? 그들이 괴로운 과보를 받을 때 아주 눈꼽만큼이라도 짬이 있으면 서둘러 그 틈을 타서 선업을 생각하고 바른 이치를 떠올리도록 안내할 것이요,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런 나를 향해 오히려 공격적으로 덤벼들어도 나는 그 딱한 처지를 십분 이해하기 때문에 묵묵히 감내합니다. 오죽하면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그러니 나는 그 지옥 중생의 거친 행동을 참아내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천수경〉을 지송하는 불자 즉 '천수 행자'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을 이루게 해달라고 관세음보살님에게 빌었고, 내 소망을 들어주셔서 내가 깨달음을 이루었으면 나는 이제 지옥으로 향해서 그들을 향해, 관세음보살님이 내게 해주셨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그들을 구제하게 되었습니다.

아, 참 장하지 않나요?

이런 내 모습, 불보살님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해냈다는 것, 온 세상에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천수경〉의 6향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나의 허를 찌르는 단어가 하나 들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절로' '스스로'라는 뜻의 '자(自)'입니다.

내가 저들 지옥중생을 다 구제했지만, 나는 전혀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지옥이 없어졌네요. 아귀중생도 그냥 저절로 다 배불리 먹게 되었네요."

'나'라는 생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구제했다'라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공(空)한 가운데 일어나고 벌어진 일이니 그건 그냥 저절로 되어갔을 뿐이라는 것. 도대체 〈천수경〉은 우리들 불자의 수준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 경인지, 나는 〈천수경〉을 읽을 때마다 저릿해집니다.

〈경전이야기꾼, 불교강사〉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풍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5,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82,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50,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한 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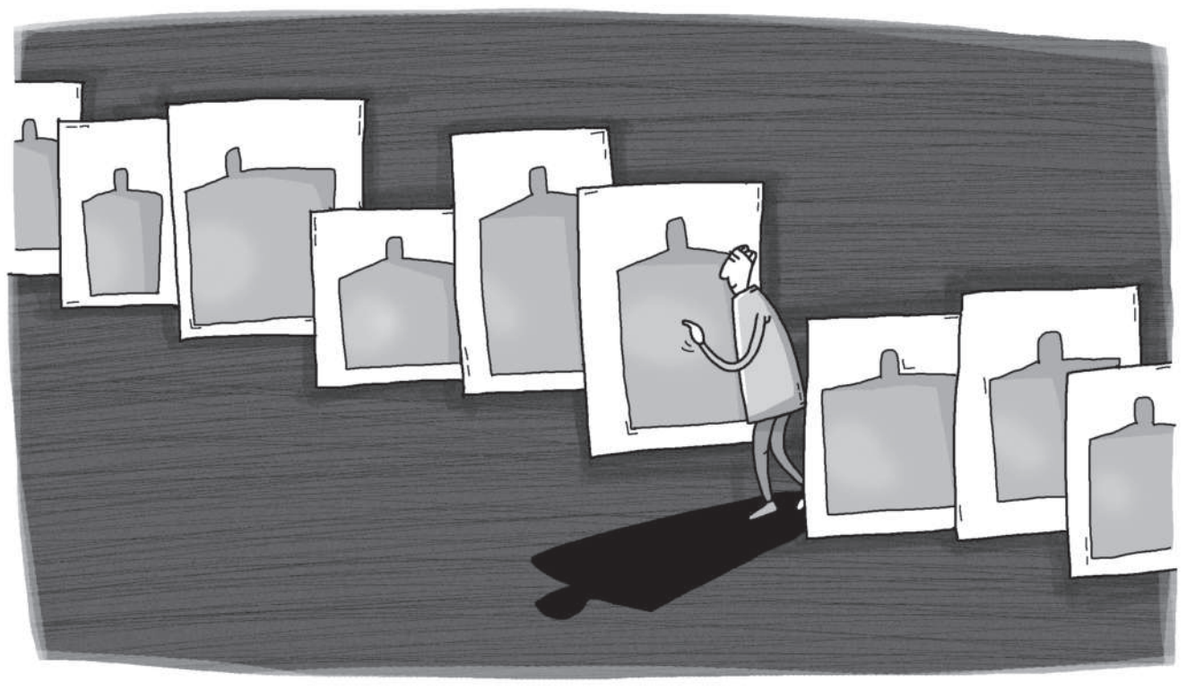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서두에 쪼금 얘길 하고선 하렵니다. 처음에 이 얘길 듣지 않고는 지금 설법하려고 하는 말의 뜻을 납득할 수가 없으니까요. 선법이라는 것은 내가 쫓아다니면서 설법하는 게 아닙니다. 선 강의라는 것도 없고,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동시에 같이 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더불어 진실한 마음이라야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주인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주인공' 이랬다고 해서 없는 것이 주인공이 아니고 고정된 관념도 없을 뿐 아니라 행도 없고, 고정된 들음도 없고 봄도 없고, 먹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모두가 공식하면서 공생하면서 공용을 하고 공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했다면 그쪽에 이익이 가는 반면에 그쪽에서 나에게 이익을 줍니다. 이것이 공통된 우리 사회의 모든 생활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생활 빼놓고 불법은 없습니다. 내가 있고 나서 모든 게 있는 것이지, 내가 없고 종교라는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기복으로 나가는 이런 것을 몰락, 아예 용광로에 넣듯이 없애 버리는 공부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생동력 있는 현실의 삶을 그대로 여여하게, 도도하게, 정당하게 자유인으로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투는 그 주인공의 뜻은 하나하나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찰나찰나 바로 화하면서 나투면서, 즉 말하자면 진화되면서 옮겨 갈 뿐입니다.

24시간 살아가면서 한번 음미해 보실 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찰나찰나 옮겨 가면서 고정된 행을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고정된 말을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말 할 때에 내가 말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부처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공이라는 얘깁니다. "색이자 공이고, 공이자 즉 색이다." 하신 부처님 말씀이나 똑같은 얘깁니다.

또 요거 한마디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처음 온 분들을 위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사대 오온이 다 지수화풍으로 뭉쳐진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이루어진 것도 지수화풍으로 인하여 한데 합쳐진 그 자체의 성이 커진 거고, 그 성이 커진 반면에 우리는 이렇게 분류돼서 항성이다, 행성이다 하는 여러 가지 별들이 많고 인간들도 또 하나의 혹성으로서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찰나찰나 나투어 돌아가는 이 원리를 볼 때에 이렇게 나투어서 돌아가는 이 자체가, 우리는 모습을 바꿔서 옮겨 갈 뿐이지 죽는 것도 아니요,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윤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윤회를 하되 윤회에 끄달리지 않고 자유성 있게, 내가 윤회를 하되 남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유스럽게 이쪽으로 발을 디뎌 놓으려면 이쪽으로 발을 디뎌 놓고 이러는 것입니다. 화가가 이런 걸 그리려도 그리고 저런 걸 그리려도 그리고 자유껏 그리는 거지, 누가 이런 걸 그리라고 해서 그리는 게 아니다 이 소립니다, 비유할 때. 그래서 오늘은 요러한 서두를 얘기해 놓고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오관의 다섯 가지의 문제, 시쳇말로 망원경이라든가, 천체망원경이라든가 무전기라든가, 책정기 또는 탐지기, 컴퓨터 또는 영사기, 이런 것이 어느 누구에게든지 자연법칙에 의해서 주어져 있다는 얘깁니다.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다 쓰질 못해요. 쓰지 못하는 반면에 3차원이다 2차원이다 하는 소리가 나오고, 중생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주어져 있는 걸 다 부릴 줄만 안다면 4차원보다도 7차원으로 우리는 등장을 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오관을 통해서 돼 있기 때문에 원자력, 전자력, 즉 말하자면 통신력 이런 것을 수없이 내가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코드를 뺐다 끼웠다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그 근본을, 자기가 자유스러운 열쇠를 가졌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나가면서 비가 온다 또는 물이 많이 생긴다, 폭풍이 일어난다, 또는 화산이 일어난다, 또는 홍수가 난다 이런 문제, 또는 허공에서 비가 오고 그럴 때, 또 뭐라 그럴까요, 그걸? 무지개가 선다, 또는 번개가 친다 이런 문제 등등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우리가 잘 음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람 사는 데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원인이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주와 더불어 이 모든 천체, 삼천대천세계의 우주의 근본이 바로 우리 한 점, 마음의 근본으로 전체가 같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난 거, 이 생명이 이루어진 것도 흙과 물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의 원료가 바로 물, 흙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원료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원료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발전이 됐으며 지금 발전이 됐으면서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이게 모두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이 모든 무지개가 선다, 번개가 친다, 비가 온다 하는 것이 정맥 동맥이 오르고 내리듯이 그렇게 하면서 순조롭게 순환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순환을 하는데, 우주와 더불어 우리 이 지구의 혹성, 이 삶에 대한 모든 에너지, 그 원료가 바로 순환이 되는 데서 원료를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서 원료가 나갈 수도 있지마는 우리에게 원료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원료가 많은 데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원료가 있으니까 되고, 원료가 없는, 즉 말하자면 원료를 다 쓰고 만약에 맹물이 원료가 많은 데로 들어간다면 그건 정화가 돼서 영양소가 돼 버리고 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옮겨 가면서 변화해서 에너지를 스스로서, 자연법칙으로서 지금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어떠한 것이 포함되어 우리가 그렇게 그 뜻을 알며, 그 도리를 알며, 그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모든 게 한마음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증명해서 내 자신이 알 수 있을까? 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나 절대로 모를 겁니다.

우리에게 원자력과, 즉 공한 진화력, 이 원자력이 튼튼함으로써 진화력도, 또 전자력도 또는 통신력도 또는 망원경도 책정기도 또는 영사기도 모두가 스스로 돌아가는 겁니다. 컴퓨터, 그것을 불교에서 말하면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또 탐지기, 이것을 타심통이라고 합니다, 불가에서 말할 때. 그러면 이것이 포함돼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활용해서 내가 쓸 수 있어야만 원료를 얻어 올 수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저 우주에서도 더불어 같이, 그것이 옷을 벗으면 새것이 나오고 새것이 나오면 옮기고 옮기고 옮기고 옮겨서 옷을 벗고 옮길 뿐이지, 그게 없어지고 죽어 버리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우리 인간도 그런가 하면 모든 별성들도 다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료를 얻어 오려도 이런 도리를 알아야 어떠한 한생각에 원료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억만금을 줘도 바꾸지 않을 보배가 자기에게 있다

☞ 19면에서 계속

를 얻어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은, 번개가 치거나 무지개가 서고 이럴 때, 비가 무지하게 오거나 비가 안 올 때, 창창한 때에 번개가 치고 이럴 때는 바로 우리가 물 호수를 대 놓고 서로 교환하는 그 때이다 이런 얘깁니다. 이 자연의 이 섭류를, 무루의 이 섭류를 어떻게 인간으로서 다 알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천체, 모든 것을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천체를 알 것입니다.

종교가 무슨 밥이나 해 놓고 떡이나 해 놓고 비는 그러한 것이 종교라고 잘못 생각한다면 역대의 조사들과 역대의 부처님과, 부처님이 나기 이전에도 있었던 이 진리 자체를 아주 망각하는 그런 의도라고 봅니다. 지금 어떠한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고, 또는 화산이 일어나고 하는 것도 모두 교환, 즉 말하자면 나는 이거를 줄 테니까 너는 이거를 달라는 격이나 똑같습니다. 소가 똥을 누어 놓으면 수많은 벌레들이 그것을 먹고 삽니다. 마르면 그걸로 집을 만듭니다. 나뭇가지를 갖다가 집을 만들고 그걸로다가 벽을 치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그런 문제들을 볼 때 너무 신비하고 그렇지마는, 그 신비한 도리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낮은 동물들도 전부 통신이 돼 있고, 즉 말하자면 식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식물들도 식별을 해서 앞으로 바람이 부는 거를 알고 있고 앞으로 모진 바람이 불어서 뿌리가 파이는 걸 알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박고 이 세상에 탄생을 하는데, 어찌 인간이 고등 동물로서 우리 자체에 주어진 거를 파악 못 하고 쓰지도 못하고, 중생이라는 이름에 못 박혀서 그냥 옮겨 가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또 그러한 반면에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허덕이고 또는 그 창살을 벗어나지 못해서 애를 쓰는, 자유권이 없이 끌려만 다니는, 바로 종 문서를 면치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면 여기 지구 안에는 지구 중생이라고 하겠지요. 지구 자유인이라는 소리를 못 듣고, 지구 벌레라는 소리를 듣고, 지구 중생이라고 듣겠지요. 그러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린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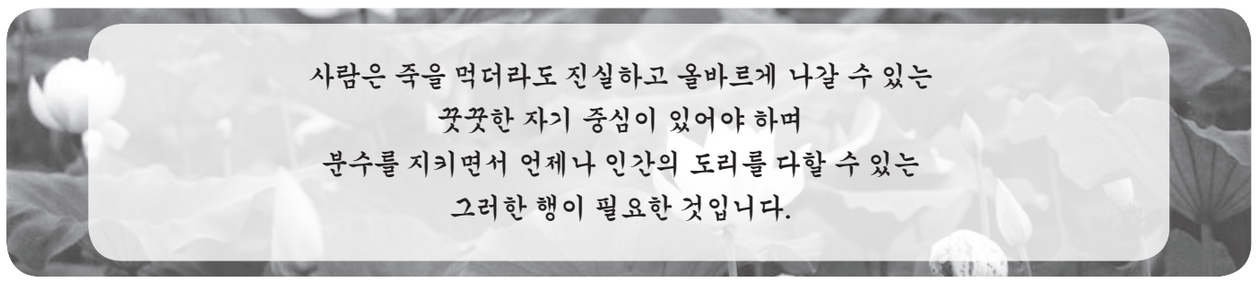
그럼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 그랬는데, 그건 우리 인간들이 그 존엄성을 위로는 가지고 아래로는 자기 배 속에 든, 이 세포에 들어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몸에 있는 중생들도 제도 못 하면 자기 자체를 끌고 다니지도 못해. 어느 스님네들이나 어느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중생들' 하면 여러분을 모두 제도해야 할 중생인 줄 아는데 자기부터 제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수천수만 개 헤아릴 수 없는 자기 몸에 들어 있는 자기 중생을 제도 못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중생을 제도합니까? 수많은 제도를 할 수 있음으로써 자기 몸에 있는 그 중생들의 마음을 한마음으로 만들어서…, 즉 말하자면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살던 습이라는 것도 체가 없는 겁니다.

업이라는 것도 체가 없는 거야. 자기 마음으로써 자기가 쌓아 놓고, 긁어서 부스럼 만들어 놓고 빠지고 울고 하는 거지, 어떠한 체가 있어서 빠지고 울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몸에 있는 그 마음이 모든 거를, 한생각이 투철하다면 이 5억이라는 생명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한 근원이 내 한마음의 근원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러니 자유스럽게 이 몸을 끌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진화시켜서 옮겨 놓고 옮겨 놓고 하는 데에 뭐, 죽는 것을 그렇게 죽는다고 하겠습니까?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어느 친구가 중이 됐는데, 한 친구는 중이 안 되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친구를 불러와서 "우리 어머니 천도 좀 잘해 다오." 하니까 대답도 없이 들어오면서 하는 소리가 "허허, 애당초에 태어나지나 않았더라면 죽지나 않을 것을…." 하고 그냥 바깥으로 발을 돌리며 나가더랍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것이 하치않게 들리겠지마는 그것은 무진 법문이자 무진 법칙에 의해서 동시에 바로 요리를 해서 동시에 바로 인간으로 천도를 시킨 한 찰나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죽을 때가 되면 벌써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달라.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고 하면서도,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간편하게 받고 또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 자기가 마음으로 업을 지어 놓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무지하게 고생을 해. 자기 마음으로 지은 모든 생명들이 자기한테 붙어서 떠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이상 자기 생명이 갈 수가 없어. 그러니 모두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받는 것이기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누구에게 기대고 누구를 믿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려면, 진정한 자비를 알려면 이 도리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룻밤 사이에 죽어 가고 하룻밤 사이에 태어나고 이러는 거,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야, 오늘은 예쁘게 차리고 누구하고 만나고, 또 오늘은 돈을 얼마를 벌고, 오늘은 식구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또 저거 하고, 어디 가서 술 먹고, 어디 가서 또 만나고 또 살고 재미있게 지내면 이게 사는 보람이지." 이러지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죽을 먹더라도 진실하고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꿋꿋한 자기 중심이, 분수를 지키면서 언제나 항상 인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어떠한 것을 할 때에 자기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 자기가 만났다고 할 수 있으랴.' 하는 것을 생각해서 자기는 종이라고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게 공이 아닌가. 그거를 안다면 이 우주, 전체가, 즉 말하자면 원료를 튼튼하게 공급을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받습니까? 내가 그 원료를 갖다 쓰려면 갖다 쓰는 거지. 어디고 나 아님이 없고 어디고 내 마음 아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생각을 내면 전체가 바로 한생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대로 자유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굼벵이가 매미만 되라는 법도 없습니다. 사람이 또 이런 게 있지요? 요걸 한 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굼벵이가 떨어질 때는 벌써 생각이 있어서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굼벵이가 떨어지기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굼벵이 껍질 이 자체가 굼벵이가 아닙니다. 굼벵이의 마음도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가 날 것을 미리 해 놓고서 날 때가 되면 여기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없어지자마자 벌써 여기에서는 매미로 탄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만 9개월이 되는데 인간이 여기에서 내가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갈 거를 벌써 정해 놓고, 여기에서 벌써 정해서 아홉 달이 돼서 날 때에 여기에서는 생명이 끊어지고 저기에서는 탄생을 찰나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묘한 인간의 법칙과 더불어 우주의 법칙이 동시에 같이 한 찰나 한 찰나 이렇게 돌아가는 이치를 여러분은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하기 때문에 그 원료를 지속적으로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모르면 지속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지속시킬 수 없다면 내 집도 망가지거니와, 내 집을 바꿔서 좋은 집으로다가 옮길 수도 없거니와, 자유자재할 수도 없거니와 이 지구의 집도 내가 지속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될 때에는 얼마나 한 점의 마음이 중요한가 하는 거를 여러분이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마음들을 올바로 써야지 마음들을 올바로 쓰지 않으면서, 진실치 못하면서 내가 잘살겠다, 못산다, 뭐, 어쩐다 이런 말들은 다 핑계이고 좋은 말이 못 됩니다. 내가 하나를 알면, 뿌리 하나만 싱싱하면 이파리고 가지도 다 싱싱하듯이 내 중심이 완벽하다면 가환, 우환, 액난 이런 모든 게 다 거기서 녹아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라도 뭐 걱정될 게 있습니까. (중략)

사람이 어떠한 급한 일이다 할지라도 자기 믿음이 진실하다면 죽으나 사나지, 자기 안 믿어 봤자지, 뭘 그래? 그럼 누굴 믿습니까? 자기로부터 이 세상이 나왔는데 자기를 억겁 전년서부터 이렇게 끌고 진화시키고 창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형성시킨 이 몸뚱이가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자기 마음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운전수가 돼 가지고 자기 몸뚱이가 움죽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인간이라면 상식과 교양 모두, 잘못되고 잘된 거를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인간은 인간답게 알고 있으니까 나쁜 일을 한다 하고 이렇게 생각이 났더라도 그것은 자기 마음이 자기 몸뚱이를 리드해 나가면서, 또 자기 몸뚱이는 마음이 잘못되면 '이건 안 된다.' 하고 주인공에 맡겨 놓고, '이건 된다.' 할 때는 주인공에 감사하게 놓으면서, '내가 움죽거리는 것이 바로 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그 성품 자체가 고정됨이 없으니 공이 아닌가. 모든 것은 공이면서도 소소영영하게 아프면 만져 주고, 또 아프면 금방 통신이 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당신이 얼마나 고마우랴.' 이렇게 자기 주인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간다면 억만금을 줘도 바꾸지 않을 보배는 자기가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가 딴 데 있습니까? 저기 저 형상, 저 부처님이 당신네들 몸이고, 저 부처님의 마음이 당신네들 한 점의 마음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둘로 보겠습니까. 절대로 둘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절에 가든지 부처는 한 부처라고 하지마는 그 절에 사람이 있어야 부처가 있는 거지, 도둑놈이 있는데 어찌 부처가 있겠습니까. 모두 사람이 있어야 부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칠성이다 독성이다 뭐, 전부 해 놓은 거를 열 가지를 만들어 놓은 절에 간다 할지라도 그 독성도 나인 것이요, 부처도 나인 것이요, 신중도 나인 것이요, 모든 것이 나 아님이 없어. 그거를 다 둘로 보면서 모든 것을 각각으로 본다면 끄달려서 어떻게 인간이 이루종차 삽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기도 놔야 되고 저기도 놔야 하고, 여기 안 놓으면 우리 남편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우리 자식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이걸 왜 각각 찾습니까. 물부처, 불부처, 흙부처, 바람부처 이것이 여기에 다 한꺼번에 있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이름을 일일이 찾고 그렇게 나가야만 하겠습니까.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6년 4월 27일 일반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5년 간 안양시 시민인성함양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행복한 부모되기
마음 치유와 자녀 심리 이해



신 청 안 내

수 강 료 : 무료교육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대 상 :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자 하는 누구나 (선착순 35명)
기 간 : 5월 2일 ~ 6월 20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장 소 : 한마음선원 경내 한마음과학원 3층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문 의 : 031-470-3200, 3198 매주 월요일 휴무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hansi.org)에서 신청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김영애 법사의 안심뜰

⑨ 내 힘으로 내가 산다는 착각

아상 없애야 업장 소멸된다

4월 18일 아침에는 온라인으로 한탑 스님의 〈금강경법문〉 225쪽 '반야의 광명'을 함께 낭독하며 법담을 나누었는데, 현주(가명)님이 법문 들은 소회를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

"'업장은 나 스스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상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금강경을 읽어서 아상이 없어지면 업장은 당연히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법문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금강경을 만나기 이전에 저는 저와 연결된 거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많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컸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아주 얕잡아보는 것 같았죠.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마음을 다치고, 그냥 지나가는 가벼운 말에도 자주 걸려 넘어지며 며칠 동안 끙끙 앓곤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또 저를 짓누르는 건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었어요. 그래야만 좋은 엄마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정작 어른인 저 자신도 '자존감'이라는 말 앞에서는 작아질 대로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말 한마디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하고 나서도 괜히 말했다는 생각에 우울해지고, 점점 더 위축되어 갔죠. 나는 잘하려고 노력했고, 또 실제로 잘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몰라준다는 생각이 들어 항상 불만이 많았어요. 힘든 가운데 나름 애를 썼지만, '상황이 또 나를 이렇게 만드니 이건 어디까지나 내 잘못이 아니야. 난 할 만큼 했어'라는 생각에 늘 남 탓을 하고 환경을 탓하고 상대를 원망했지요.

그런데 〈금강경법문〉으로 함께 공부하면서 그것 또한 나를 앞세웠기 때문이라는 걸 새삼 느껴요. 살면서 겪어왔던 많은 장애와 어려움들의 시작이 결국은 '내 힘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상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모두가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존재들로 잘못 받아들이고 힘겹게 살아왔는데, 매일 아침 108배와 함께 금강경법문을 공부하면서 저의 비뚤어진 마음을 보게 됐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너 때문이야. 그러니 내 탓 아니야'라고 우기며 아상으로 가득했던 지난 날을 참회하며 지내고 있는 중인데요. 내가 원인을 짓고 그 결과를 받는다는 걸 인정하니 더 감사하게 되었어요.

'나와 따로인 남이 없다'는 법문을 새기며 나를 비추는 거울을 보듯 남을 보려 하고, 수시로 두 손 모아 합장하며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해요. 염불을 하다보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쁨까지 느끼게 되요. 오늘 말씀해주신 '빛을 나누어 줘도 줄어들지 않는 무진등'이 마음에 와닿고, 스스로 밝아져 그 빛을 나

가벼운 말에 쉽게 상처 받던 지난날
금강경 공부로 비뚤어진 마음 바라봐

누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드네요.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이 밝아졌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요즘 금강경으로 회복의 길을 걷는 기분이 들어요.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태양을 비추면 밝아지듯이, 금강경을 읽어서 반야의 광명이 비치면 모든 어두움은 사라진다는 오늘의 법문에 의지해 나무아미타불 해봅니다. 그저 무조건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회합니다. 찬탄합니다. 모두가 덕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화면을 뚫고 법우님들의 찬탄의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난생 처음 금강경 공부를 시작하고 40여 일 만에 이렇게 큰 삶의 변화를 맞이하고 나눠주시는 도반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가피와 따스한 자비의 마음이 느껴졌다. 오늘 함께 공부한 한탑 스님의 〈금강경법문〉을 소리 내 읽어본다.

"번뇌망상을 다 없애고 중생세계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금강반야입니다. 중생세계를 완전히 부정하면 절대무한인 부처님생명만이 남을 뿐입니다. 바라밀은 지혜의 광명을 비추어서 본래부터 절대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금강반야를 다른 말로 하면 나무(南無)이고, 바라밀은 아미타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무'에 의해서 중생세계가 부정되면, 아미타(阿彌陀) 세계 즉 절대무한의 세계가 드러납니다.

결국 금강반야바라밀은 '나무아미타'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이 뜻을 알고 경을 읽으면 본래 어둠이 없고, 병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것이 밝혀지므로 본래의 밝은 생명이 드러납니다. 또한 내가 밝아지면 우리의 주변이 밝아집니다. 내가 밝아졌는데도 주위가 어둡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태양이 비추면 밝아지듯이, 금강경을 읽어서 반야의 광명이 비치면 모든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금강경을 자꾸 읽으면 업장이 소멸됩니다. 업장은 나 스스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상(我相)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금강경을 읽어서 아상이 없어지면 업장은 당연히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문사수법회 법사〉

건강 365

⑮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활동 'UP'·약물 'DOWN'…심장 보호 효과적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이란?

퇴행성 관절염 등 각종 관절 질환이나 외상 등에 의한 무릎 관절 파괴가 심해 통증, 기능 소실, 변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보행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시행하게 되는 수술적 치료이다. 수술 전 충분한 기간의 보존적 치료(약물, 주사, 물리 치료 등)를 시행했음에도 이에 반응하지 않을 때 통증 조절과 기능회복, 삶의 질 향상, 궁극적으로 환자의 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언제 수술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모든 환자가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을 수는 없다. 환자의 무릎 방사선의 평가를 통해 KL(Kellgren/Lawrence) 1기부터 4기까지 등급을 나누게 되며, 나이 또한 고려하게 된다.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환자의 통증감소와 기능회복을 도모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반응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주된 수술의 적응증이 된다. 쉽게 말해,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이 사라진다면 방사선학적 평가에서 3, 4기라 하더라도 응급수술이 필요하지는 않다.

심한 퇴행성 관절염 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감염 후 관절염, 외상 후 관절염, 무혈성 괴사, 일부의 신경병성 관절염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의 대상이 된다.

만약 환자가 양측 하지의 퇴행성 관절염이 오래되었고 그로 인해 양하지의 근력저하가 심하게 동반되어 자가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수술을 하는 것을 권하기 어렵다. 수술 후에 양하지의 근력은 일시적으로 저하되며 그 후 부지런한 재활을 통해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상실된 근육 상태에서는 좋은 수술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누워서 지내는 고령의 환자의 경우 수술의 의미가 없어진다.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은 어떻게?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은 무릎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 즉 대퇴골, 경골, 그리고 필요에 따라 슬개골의 손상된 부분을 적합한 정렬을 이루도록 계획해, 평균 약 8~9mm 정도 두께의 뼈를 절제하고 인대의 균형을 맞춘 후 특수한 금속 및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인공관절로 절제된 부위를 채워 넣는 수술이다. 따라서 환자의 손상된 관절 표면은 거의 모두 인공관절로 바뀌지만, 환자의 무릎뼈 자체는 대부분 보존된다. 또한 환자의 힘줄, 근육, 인대 등 인공으로 대치할 수 없는 연부조직은 관절염에 의하여 변형이 온 부분을 늘리는 등의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인공관절의 수명은 어느 정도인가?

현재까지 보고된 논문들에 따르면 수술 후 10~15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가 90% 이상으로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하지만 이 논문들에 사용된 인공관절은 초창기 만들어진 것이며, 현재 사용 중인 인공관절은 아직까지 장기적인 추시 관찰을 요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마모에 의해 20년 내에 문제 될 가능성은 더욱 적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수술 후 통증조절과 재활과정은

과거 통증 조절에 관심이 적을 시기에는 수술의 특성상 수술 초기의 통증이 매우 극심했다. 현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자의 통증을 줄이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수술 후 당일 밤의 통증은 거의 없도록 조절하고 있다. 또한 물리치료사 또는 의료진에 의한 강제로 무릎을 구부리는 행위는 더 이상 불필요하기에 시행하지 않는다.

수술 후 6주까지는 수술 부위의 치유가 진행되며, 목발 및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을 주로 시행하게 된다. 수술 후 3개월째가 되면 수술 후 얻을 수 있는 최종 근력과 기능의 약 40%까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이 시기에 일상적인 평지 보행은 큰 무리 없이 가능하게 되며, 수술 후 2년까지 무릎의 기능은 더욱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행은 1) 평지 보행 2) 계단을 오르기, 3) 계단을 내려가기가 가능해지는 순서로 기능 회복이 일어나며, 무릎에 가장 힘든 동작인 4) 바닥에서 앉고 일어서기가 가장 마지막에 가능해질 수 있지만 이 동작은 근력이 약하고 고령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계속 힘들 수 있다.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이 수명을 늘려준다?

본 의료진과 서울대학교 공동연구 결과,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은 환자의 활동을 늘리고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 등 약물 사용을 줄여 심장 보호 효과(cardioprotective effect)가 있고, 약물 사용을 줄이면 소화기 질환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고했다. 또한 수술 전 검사와 수술 후 정기적인 검진을 함으로써 일반인구들보다 종양의 초기발견율이 높아 그로 인한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음을 알아냈다. 퇴행성 골관절염 환자에게 있어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은 특히 순환계 질환, 신생물(암), 소화기계 질환에 있어 기대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수술이라는 말이 두려울 수 있지만, 수술 후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잘 파악해 관심을 갖는다면 매우 가치가 있는 수술이며, 환자의 행복한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상효
거인병원 관절센터 진료과장



전법 일기

부처님의 품 안에서 언제나 평안하시길

若有人兮山之阿(약유인혜산지아)
被薜荔兮帶女蘿(피벽려혜대여라)
既含睇兮又宜笑(기함제혜우의소)
子慕予兮善窈窕(자모여혜선요조)
乘赤豹兮從文貍(승적표혜종문리)
辛夷車兮結桂旗(신이거혜결계기)
被石蘭兮帶杜衡(피석란혜대두형)
折芳馨兮遺所思(절방형혜유소사)

누군가 있는 듯한 산모퉁이에/ 벽려 옷을 입고 덩굴 띠를 두르고/ 정겹게 곁눈질하며 미소를 짓는/ 그대 내 아리따운 자태 좋아서여라/ 붉은 표범을 타고 얼룩 너구리 데리고/ 목련 수레에는 계수나무 깃발을 매었네/ 석란 옷 입고 두형 띠 두르고/ 향기로운 꽃 꺾어 사모하는 이 드리고파

중국 고전 〈초사(楚辭)〉에 실린 굴원(屈原)의 '산귀(山鬼)'라는 시의 첫 부분이다. 제목인 산귀가 뜻하는 바는 산에 사는 신령스러운 여신이라고 한다. 아직 산에 오른 날들이 적어서 그런지 산의 여신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늘 산의 넉넉한 품과 차분하게 불어오는 바람은 산이 나를 보살피는 느낌이 들게 한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2년 등산 등 숲길 체험에 대한 국민 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등산이나 숲길 체험을 하는 인구는 전체 성인 남녀의 78%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산에 대한 사랑과 등산에 대한 열정이 참으로 대단하다. 나도 지난 2023년 범어사 불자님들과 함께 시간을 내어 '영남알프스 9봉 완등'에 도전했다.

인증 어플리케이션으로 완등 인증을 하면 매년 3만개 한정 기념은메달(한국조폐공사 제작)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모두 마감될 만큼 인기가 높다.

좋은 불자님들과 함께 산에 오르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지만, 산에서 처음 만나는 낯선 이들과의 만남도 좋은 추억을 남겨 주었다. 등산은 경쟁하는 운동이 아니다 보니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들 간에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사진 촬영을 부탁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내 걸음이 느리면 뒷사람을 위해 좁은 길에서 순서를 양보하기도 하고, 정상에서는 초면인 등산객들과 덕담을 건네며 간식을 나누어 먹기도 했다. 같은 산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서로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즐거운 경험이었다.

돌이켜보면, 불교라는 산에서 만난 이들이 대개 이와 같았다. 순수한 호의와 배려를 가진 이 좋은 사람들을 부처님 법의 인연이 아니었으면 어찌 만날 수 있었을까. 고마운 사람들을 위해 나는 늘 이 한마디를 건넨다. 배낭에 너무 많이 넣지 말라고. 너무 비우면 불편해서 괴롭고 너무 채우면 무거워서 괴롭다고. 함께 산을 오르는 친구들에게도, 함께 삶을 닦아나가는 도반들에게도 이 한마디를 드리며 4주 연재를 마칠까 한다.



부처님의 품 안에서, 내내 평안하시길.

범어사 전 포교국장 눌은 스님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④ 사춘기의 이해(1)

사춘기, 독립을 위한 몸부림의 시간

해마다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사춘기의 이해 특강을 한다. 중학교 들어올 무렵 시작한 사춘기는 중학교 2학년 때 절정을 이루고 3학년 때 조금 시들했다가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 철이 들어 점잖아지는 것이 하나의 패턴이다. 그럼 대체 사춘기는 무엇이고, 또 왜 찾아오는 것일까? 사춘기(思春期)는 말 그대로 '봄을 생각하는 시기'이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춘정(春情)'을 생각하는 시기이다. 춘정은 '이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마냥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했던 아이들이 이제 후손 볼 나이가 되어 짝을 찾아 어른으로 독립하려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크게 '사고·감정·의지'로 이뤄졌다. 그중 가장 힘이 세고 본능에 가까운 '의지'는 우리 몸으로 치자면 단단한 뼈에 가깝다. 우리 몸 중 뼈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 치아이고, 이 치아가 바로 우리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유치가 완성되는 3세,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7세, 그리고 영구치가 완성되는 15세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미운 일곱 살' '인생에 방향성을 고민하는 지학(志學)' 등 특별한 수식들이 붙는다. 그중 압권은 북한의 김정은도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는 공포의 중2병, 즉 사춘기다. 의지가 절정을 발하는 시기이며, 내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하기 위한 몸부림의 시기이다.

사춘기는 우선 신체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다. 몸집이 성인처럼 커지기 시작하고, 성기에 음모가 나기 시작한다. 남자아이들은 정액이 생산돼 몽정을 하며, 변성기가 찾아와 목소리가 굵어진다. 여자아이들은 가슴이 커지고 생리를 시작한다. 앞서 말한 후손 볼 나이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성적 관심과 환상이 고조되며 연예인에 깊이 빠지기도 한다.

또 '자율성'이 극에 달해 잔소리를 하면 그게 자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 온갖 짜증으로 화답한다. 혹시 자신의 아이가 삐뚤어지기를 바란다면 잔소리를 많이 하면 된다. 착한 아이도 청개구리처럼 금세 삐뚤어진다. 이때 아이들은 '흑백논리'가 강해 이 세상을 친구 아니면 적으로 나눈다.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하면 부모를 적으로 간주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소화하지 못한 내적·외적 자극을 쉴 새 없이 '욕설'로 뱉어낸다. 마치 낯선 여행에서 새로 물을 갈아먹으면 그게 몸에 받지 않아 설사를 하듯이 말이다.

자녀 삐뚤어지지 않게 하려면 '잔소리 금물'
흑백논리 강한 시기, '친구 아니면 적' 인식
잔소리 심하면 부모를 적으로 간주해 갈등

하지만 이런 욕설은 크게 의미가 없는 말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철이 들면 저절로 사라진다. 또 강한 힘을 경험하고 싶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세를 과시하길 좋아한다. 덩치는 어른인데 마음은 아직 애기라 친구들과 뭉쳐 다녀야지만 소속감과 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심력처럼 퍼져가는 자기중심적 시선에서 벗어나 구심력처럼 안으로 수렴하는 '객관적 시선'이 생겨난다. 남들은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데, 자기 혼자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크게 과장해서 고민한다. 그래 자주 하는 말이 '아, 쪽팔려'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춘기 아이들을 부모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부모는 이제 처음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경험하게 된다. 드디어 수행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장애·비장애' 경계 넘어서려면

장애인의날이었던 4월 20일, 불교를 사랑하는 장애인들의 모임 보리수아래가 개최한 토론회 '장애인의 날, 마음열어 대화하기'에 발제자로 동참했다.

'내가 생각하는 장애·우리가 함께하는 장애'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10명이 발제자로 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다. 장애인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불교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들어보는 시간이었다. 또 장애인들이 사회 변화 속에서 대중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좋은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소소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내용으로 진행된 이 작은 토론회는 보리수아래가 20여 년간 활동하면서 시행해왔던 사업들과 맥을 같이했다. 보리수아래는 그동안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의 하나로 다수의 자료집을 제작 보급했고 콘서트와 시집 발간 등 장애인들이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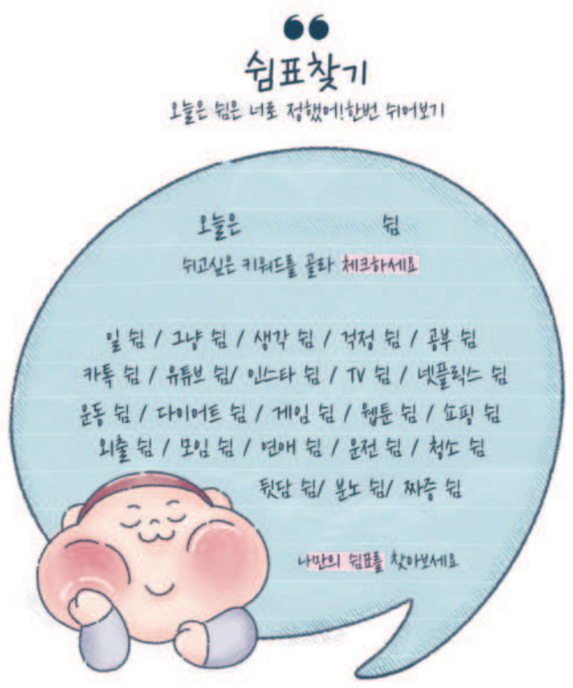
사회 구조가 법률 제정, 각종 편의시설 설치, 직업, 문화 등 대부분의 환경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사찰의 편의시설, 불교문화 활동 등 불교계에서도 장애인불자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나아지면서 과거와 같은 노골적인 편견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장애인을 대할 때 어색함이나 머뭇거림은 쉽사리 극복하기 힘든 과제다.

올해로 제44회를 맞은 장애인의날. 양보하고 더불어 함께 살 것을 알려주셨던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한다면 굳이 정해진 날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고 이해하면 더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다. 교감은 따뜻한 배려로 이어지고 장애·비장애를 넘어 진정한 도반으로 함께하는 첫발이 될 것이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전재산 다 팔았지만 아들 혈액암치료비 막막

몽골 아나르군, 림프종혈액암에 장기치료 불가피
미납된 병원비만 6천만원…후원받기도 어려워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지공·나옹 법연, 다시 한반도에 나투다

현불논단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나옹 혜근(1320~1376)은 20세에 친구 죽음을 목격하고, 출가했다. 나옹은 운수납자로 여러 곳을 유행하다 25세에 양주 회암사로 들어가 4년간 장좌불와로 용맹정진했다. 나옹은 29세에 원나라로 건너가 연경 법원사에 머물고 있던 인도 승려 지공을 만났다. 지공이 먼저 물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고려에서 왔습니다."

"배편으로 왔느냐, 육로로 왔느냐, 신통으로 왔느냐?" "신통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신통을 내게 보여 주시오."

그러자 나옹이 지공 앞에서 두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지공이 다시 물었다.

"고려에서 왔으면 동해를 보고 왔는가?" "안보고 어찌 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너를 오게 했는가?" "제가 스스로 왔습니다."

"무얼 하러 왔는가?" "후인을 위해서입니다."

나옹은 지공 문하에서 2년을 머물렀다. 지공은 인도 마갈타국(磨竭提, Magadha) 왕자 출신으로 법맥 108대 조사이다. 지공은 우리나라 충숙왕 때에 고려를 다녀간 적도 있다. 이후 나옹은 평산 처림(1279~1361)에게서 법을 받았고, 몽산 덕이(1231~1308?) 등 여러 선지식을 만나 법거량하였다. 나옹은 고려로 입국하기 전, 다시 지공을 찾아가 '고려로 돌아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한다.

나옹, 지공·평산에게서 法 전수 받아
조선代 영향, '나옹법통설' 나오기도
나옹, 지공 사리 귀환 환희로운 일

"너는 본국으로 돌아가 '삼산양수처(三山兩水處)'를 찾으면 불법이 흥하리라."

나옹은 10년 만에 고려에 귀국해 해주 신광사에 머물며 제자들을 지도한다. 이후 여러 곳을 순례하다가 회암사에 머물렀다. 51세에 공민왕은 나옹에게 5교양종의 납자들을 시험 감독토록 하였다. 이 무렵, 나옹은 공민왕으로부터 왕사 책봉을 받았다. 이후 1371~1373년 송광사(수선사)에 머물렀는데, 2년간 수선사 사주를 역임했다. 나옹은 지공이 말한 '삼산양수처'로 회암사를 생각하고, 재차 회암사로 돌아와 사찰을 중수했다. 이때, 조정대신들은 나옹에게 '경사 근처에 머물지 말라'며 밀양 영원사로 유배했다. 선사는 가는 길녘 신륵사에서 입적한다. 나옹은 선시에도 능했으며, 자력·타력적인 측면의 염불을 강조했고, 교학이나 수행 등 모든 면에 뛰어났다.

50세의 나옹이 회암사에 머물 때, 원나라 사신이 지공의 유골을 모시고 왔다. 나옹은 회암사 경내에 탑을 안치하고 지공의 유골을 봉안했다.

법통 문제를 보자. 나옹의 사상은 조선 중기까지 영향을 미치었다. 사명 대사와 친분이 깊은 허균이 휴정과 사명 입적 후인 1612년에 법통을 정리했다. 허균은 법안종·임제종·조동종의 선 계보를 이은 보조 지눌의 법맥으로 '나옹 법통설'을 주장했다. 이후 허균이 역적죄로 죽임을 당한 이후 휴정의 막내 제자인 편양 언기(1581~1644)가 재차 법통설을 주장했는데, 나옹이 아닌 '태고 법통'이다.

평소 필자는 나옹 혜근이 불교사 뒤안길에 가려진 것 같아 늘 안타까웠다. 그런데 4월 18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에 소장 중이던 부처님 진신사리 1과, 지공 사리 1과, 나옹 사리 2과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지금이라도 나옹 혜근의 면모가 빛을 발함이요, 지공과 나옹의 법연이 한반도에 나퉈다. 환희로운 일이다.

불교와 민주주의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국회의원을 뽑는 제22대 총선이 광풍처럼 지나갔다. '광풍'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 삼독(三毒)의 회오리 속에서 치러진 선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도 국민의 한 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치열한 갈망을 보면 대한민국은 분명 민주주의 국가인 모양이다. 민주주의는 선거의 텃밭에서 이루어진다. 선거의 텃밭은 민주주의를 키우는 정원이다.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여러 조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인성과 삶의 양식이다. 민주주의 성패의 핵심은 바로 '국민 참여(by the people)'이다. 시민이 지닌 정치문화의 수준에 따라 민주주의 운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불교와 민주주의는 매우 친화력이 높다. 불교의 승단조직과 운영은 어느 종교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적 요소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많다. 바람직한 민주공동체를 정확히 나타내는 〈유행경〉의 내용을 보면 붓다의 정치관이 얼마나 민주주의적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붓다 재세시 강력한 대국인 마가다국이 민주주의 성격이 강한 밧지국에 대한 침략을 제지하는 내용으로 여기서 '칠불쇠법(七不衰法)'이 나온다. 이 칠불쇠법은 불교 공동체가 쇠락하지 않을 조건으로도 등장한다. 필자는 칠불쇠법의 핵심은 '자비 윤리'라고 본다. 자비 윤리는 바로 민주적 인성과 생활양식의 토대이다. 자비 윤리는 '상호윤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윤리는 열린 자세의 덕목에 바탕을 둔다. 자비의 윤리는 도덕적 진리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하지 않고, 또한 타인의 윤리적 행위에 대해 독단적 판단에 조심하고 연민심을 가지고 접근한다. 이러한 자세는 타인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이러한 상호윤리적인 자비 윤리는 갈등의 삶의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민주적 인성과 삶의 양식은 바로 중도적 삶과 연결된다. 자비 윤리는 갈등의 바다를 항해하는 나침판이라 할 수 있다.

불교와 민주주의, 친화력 매우 높아
자비 윤리 담긴 칠불쇠법이 대표적
연기 기반한 자비 윤리, 적용 필요

이렇게 자비 윤리는 민주주의 정원을 가꾸는 핵심 가치이다. 미국의 에릭 리우(Erick Liu)의 저서 〈민주주의 정원〉에서 오늘날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연기의 자비 정치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기계형 사유와 정원형 사유를 비교하면서 연기적 사유를 정원형 사유로 표현하고 있다. 연기법과 여기서 생성된 자비 윤리로 민주주의 성숙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긴 역사 속에서 불교와 정치의 관계는 부정적인 요소도 많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다. 국가와 불교의 관계 속에서 불교의 많은 치부가 숨겨져 있다. 오늘날 불교가 민주주의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무거운 주제다. 민주주의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해 자비의 윤리로 어떻게 비옥한 토양을 만들고, 적당한 일조량과 물을 공급해야 할 것인가?

社 說

동국대發 대학생 전법불사 기대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대학 불교동아리 창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조계종립 동국대의 노력이다.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는 현재 단과대학별 불교동아리 창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WISE캠퍼스에서는 학내 전법을 위한 전법단이 출범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는 지난 3월 20일 사회과학대학 불교동아리 '템플애플'이 창립된 데 이어 4월 15일 경찰사법대학 '캠폴스테이', 4월 18일 예술대학 '진선미'가 창립되며 총 3개의 단과대학 불교 동아리가 창립됐다.

동국대 WISE캠퍼스는 4월 16일 교내 정각원 법당 및 백주년기념관 앞 광장에서 'WISE대학생전법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WISE대학생전법단'은 건학이념의 구현과 대학생 전법 확대 및 불교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출범하게 됐으며 2024년까지 800여 명의 청년 대학생 불자 구성을 목표로 한다.

이는 지난 3월 13일 열린 건학위원회 기본기관장 연석회의에서 이사장 돈관 스님이 "동국대부터 불교학생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기다리지 말고, 지도교수와 교원들이 나서서 불교학생회 회원 유치에 나서달라"는 당부와 궤를 같이 한다. 생활불교와 대중불교를 강조했던 범산 김법린 선생은 '기다리는 불교는 이미 썩어있는 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학생과 청년세대가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는 가람을 조성하는 것은 현재 사부대중의 화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불교문화포털' 오픈에 부쳐

한반도에 불교가 도래한지 1700년이 됐다.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불교는 한국인의 정신수행문화 근간을 이뤘고, 건축·미술·공예·기록 등의 전반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 양과 분야가 방대하다보니 이룩해 놓은 결과물들을 망라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조계종과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선보인 플랫폼 '한국불교문화포털'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불교문화포털은 '한국불교 등재유산' '불교민속의례' '전통수행' '디지털 사지(寺誌)' '고승아카이브' '기록문화' '영역불서' '오디오경전' '불교용어' 등 9개 코너에, 총 27개 테마, 600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리정보기반 콘텐츠 제공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추진해 눈길을 끈다. 이 같은 접근방식은 여러 테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시도됐다. '고승아카이브'에서는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몸소 겪으며 수행하고 대중을 제도한 고승들의 삶과 가르침을 생애, 수행, 포교, 사상으로 분류해 실었다.

무엇보다 '한국불교문화포털'은 한국불교의 정수들을 망라해 대중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콘텐츠화 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시대에 맞는 언어와 방법으로 불교를 전하는 선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기록이 쌓이면 역사가 된다. 한국불교문화포털은 그간 축적됐던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망라고 새롭게 재생하는 허브가 될 것이다. 향후 이어질 행보도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4월 17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4월 17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4월 17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부처님 법(담마) 바르게 알아야 내가 변한다’ 강좌 개설

강좌내용

초기불교(테라와 다불교, 상좌부불교)의
이론과 실참수행법의 교재를 위주로
(월1회) 이론체계 강의 : 90분, 명상 : 30분

■ 강　사 :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황경환박사 (석좌교수)

■ 일　시 : 2024년 **4**월 **27**일 (토) 14:00~16:00 [첫강좌]
2024. **4**. **27**(토)~2024. **12**. **28**(토)
[매월 4째 토요일, 8월 휴강 (총8회)]

■ 등록비 : 10만원(교재비 포함)
국민은행 674701-04-459952 (사)21세기불교포럼

■ 장　소 : 사)21세기불교포럼 사무국
(경주시 일천북로 345, 경북신문씨에로빌딩4층)

■ 주　최: 사)21세기불교포럼

■ 문　의 : 010-9210-2959

※강좌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